

발간사

창립 60주년 맞이한 우리 수도회는 지난 날 가난했던 초창기 수도생활에서 받은 은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힘과 우리에게 신앙과 자립을 익혀주셨던 창설자 성재덕 신부님께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오묘하신 하느님의 섭리는 1935년 성재덕 신부를 한국 땅에 첫발을 디디게 하였고 1943년 12월 25일 가난한 이들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 수도회를 창설하셨습니다. 성재덕 신부님은 1935년부터 1992년까지 한국 교회에 선교사와 수도자 창설자로서 생을 마치신 분이십니다.

이 책은 성재덕 신부님이 선교사로서 57년간 걸어오신 길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집입니다. 이 책에 실린 글을 통해 사제이자 선교사로서의 영성적 확신의 깨끗함과 그분의 일관되고 단순한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 신부님은 그 시대의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해 가지며 온 몸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시고 복음의 말씀 따라 열심히 사목활동을 하셨습니다. 신부님의 사목은 창의적이었고 진취적이었으며, 대중적이었고 종교적이었으며, 그것은 그분의 타고난 카리스마였습니다.

우리 수도회는 이제까지 성재덕 신부님의 신앙을 기초로 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리의 핵심적인 사명을 잘 이해하여 왔습니다. 봉사, 특히 가난한 이들에 대한 봉사는 성가소비녀회 회원들의 신앙생활의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반면 정신적 영성이 고갈된 현실에서 우리의 신앙은 나자렛 성가정의 생활처럼 단순하고 더욱 사랑이 넘치고 더욱 온화하고 복음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가난한 이들과 하나되어 일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수도회의 사명임을 재확인 하게 됩니다.

신부님은 믿음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왔으며 가난한 이들, 소외되고 작은 이들을 품에 안으시어 그들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방하시고자 신부님께서 겪으셨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가난한 이들, 그리고 어린이 사랑에 대한 특별한 카리스마는 바로 현존하시는 하느님 자비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셨던 신부님의 뜨거운 사랑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창립자의 참 뜻을 살아가고자 하는 수도회 회원들에게 소중한 영적 양식이 되고 새로운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본 수도회는 창립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료집을 출판하면서 신부님의 정신을 기리고, 신부님의 영성이 본 수도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깊이 뿌리 내려 이 땅 위에 하느님 나라가 하루 속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총원장 이영자 프리스카 수녀

책 소개

이 자료집은 『성재덕 신부』 출판 이후 10여 년에 걸쳐서 수집된 창설자 신부님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아서 엮은 책이다. 이 책의 특징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성 신부님의 삶에 대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1998년 6월 김 미리암 수녀가 파리외방전교회의 본부 문서고에 소장된 잡지와 문서 가운데 성 신부님에 관한 내용을 모두 찾아 발췌한 것을 유소연(비안네) 자매님이 초고 번역한 것이다.

이 자료집에는 성 신부님께서 1946년 포항예수성심시녀회 창설자이신 남 루도비꼬 신부님께 보낸 편지글이 실려있다. 우리 수도회의 창설 목적과 배경을 설명하고 계신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성 신부님께서 수도회 창설을 구체적으로 심사숙고하시면서 계획하신 사실과 우리 수도회의 창설 연도가 1943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35년부터 1982년까지의 성 신부님의 모든 기사와 글 그리고 성 신부님을 위한 추도사가 실려 있다. 추도사는 성 신부님의 일대기를 요약한 글로서 성 신부님의 생애를 그림처럼 볼 수 있다.

성재덕 신부의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김 임마꼴라따 수녀가 국내에서 인터뷰한 글은 성 신부님의 이웃 사랑 특히 어린이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증언하고 있다. 또한 2001년 5월 프랑스를 방문하여 김 임마꼴라따 수녀와 김 미리암 수녀가 인터뷰한 성 신부님의 가족들의 증언에서는 신부님의 어린시절의 종교교육과 개방된 선교관을 엿볼 수 있다.

부록으로 수록된 『성모승천작은자매회의 정신』은 성 신부님께서 1963년 불란서 휴양 중에 보내신 것으로서 불어본을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이 글은 1963년에 성 신부님께서 우리 수도회 회원들이 반드시 읽도록 권고하신 것인데, 40년이 지난 오늘에서 신부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

이 책은 성 신부님과과의 새로운 만남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성 신부님의 열정 어린 신앙의 향기를 맡게 될 것이고,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적인 봉헌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 차 례

발간사 3

책 소개 5

1. 파리외방전교회 입회 추천서와 청원서 9
2. 성 신부님이 남 루도비꼬 신부님께 보낸 서한 10
3. 故 성재덕 신부님 추도문 15
4. 파리외방전교회 본부에 소장된 잡지와 문서에서  
성 신부님과 관련된 글 28
  - 1) 불땡(bulltim: 파리외방전교회에서 간행한 잡지) / 28
  - 2) 에코스(ECHOS: 파리외방전교회에서 간행한 잡지) / 63
  - 3) 에피파니(EPIPHANIE) / 66
  - 4) 파리외방전교회 문서(M·E·P) / 89
5. 전시일기 95
6. 성재덕 신부님을 회고하며 120
  - 김 돌로로사(종순) 수녀 / 120
  - 김 화밀리아(선례) 수녀 / 120
  - 김 베아트릭스(정자) 수녀 / 121
  - 최승룡(테오필로) 신부 / 124
  - 장익(요한) 주교 / 125
  - 두봉(레나도) 주교 / 128
  - 윤사균(바오로), 박종례(막달레나) / 131
  - 김용태(베네딕도) 신부 / 132
  - 여충구(마르코) 신부 / 135
  - 송갑의(사도 요한) 신부 / 138
  - 유유철(프란치스코) / 140
  - 신성자(안나) / 140
  - 김재영(로렌조) / 141

김갑선(요한) / 141	
유호식(아우구스티노) 신부 / 142	
윤종수(세레자 요한) 신부 / 143	
이 레오날드(완영) 前 총장수녀 / 144	
카세 신부(Cassez, 에댕 본당 신부: 현재 은퇴) / 147	
장 피에르(Jean Pierre, 큰형의 둘째 아들) / 151	
클로드(Claude, 큰형의 맏아들) / 152	
테레즈(Therese, 큰형의 쌍둥이 딸 중 둘째) / 153	
주느비에브 큰 형수 / 153	
조오지(George, 조카 사위) / 154	
폴레뜨(Collette, 조카딸) / 154	
다미안(Damien, 조카 손자) / 155	
테레즈(Therese, 성 신부님의 여자 친구) / 155	
폴(Paul), 리제뜨(Lisette), 마리 클레르(Mari Claire)와의 인터뷰 / 156	
7. 피에르 생제(Pierre Singer) 선교사가 되기까지	165
[부 록] 성모승천작은자매회의 정신	174

## 1. 파리외방전교회 입회 추천서와 청원서

### 추천서

피에르 생제는 생 베르탱(Saint-Bertin) 고등학교에서 정규 고등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학업상의 어려움을 몇 번 겪었으나 그때마다 성실한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신앙심이 돈독하여 항상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이 의향이 확고한 소명에 부합하는지 그에게 적절한 시험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1928년 7월 25일 생 베르탱 고등학교장 르앙브르

총장 신부님께

저는 몇 해 전부터 부모님께 외방전교회 신학교 입학 허락을 간청하였던바 오늘에야 비로소 동의를 얻었기에 이렇게 총장 신부님께 편지를 올립니다. 부디 저의 신학교 입학을 승락해 주십시오. 저는 그토록 오랫동안 원해온 신학교 입학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총장 신부님의 선처와 부모님의 배려에 모두 맡기겠습니다. 부디 좋은 답장을 주시리라 굳게 믿으며, 총장 신부님의 매우 겸손되고 지극히 순명하는 자녀로 불리기를 고대하는 저의 존경하는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1928년 8월 31일 에댕에서 피에르 생제 올림

## 2. 성 신부님이 남 루도비꼬 신부님께 보낸 서한1)

1946년 11월 26일, 서울에서

친애하는 남 신부님,

공소에서 돌아와 보니 신부님의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일을 끝내고, 신부님께 서둘러

답장을 드립니다. 일이 좀 많아서 초고 없이 직접 쓰느라 아마도 일관성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교만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반대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신부님을 놀라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모든 것을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릴 것이며, 저의 고해 신부님께라기 보다는 동료에게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명성을 경계하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저를 조선에 보내셔서 한 직책을 주셨는데, 여기서는 모든 일이 조선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은 제가 제 임무에 합당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선 전체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신학교 근처에, 그리고 대학교 근처에 있는 서울의 한 본당의 신부입니다. 제 본당에는 조선의 모든 막후 실력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르는 바로는 “대주교들” 이지요. 여기서는 한 발자국을 옮겨 짚어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더 큰 공을 세우고 있다고는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신부님께서서는 아마도 그 오지에서 인내와 겸손으로 저보다 일만 배는 더 큰 공로를 쌓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신부님께 설교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신부님께서서는 세계 25명의 고아와 노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2,500명에 달하는 구제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5~6명의 노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세계는 단지 장애인 1명과 선비 1명이 남아 있는데 그들은 세계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신부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영광은 신부님의 것이고 세계는 금방 사라져 버릴 명성뿐입니다.

전쟁 중에 설립된 저의 수도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2~3년 일한 뒤,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1) 가르멜을 제외하고는 서울에 수녀원이 하나밖에 없다. 가르멜을 제외하고는, 이런 상황에서는 수도자의 숫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은 성 바오로 수도회 수녀들에게 해로울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도생활을 독점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신자들로부터 신부와 맞먹는 공경을 받으면서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그들은 아무런 선의의 경쟁심이 없고,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에도 역시 해롭다. 왜냐하면 할 일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해서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 바오로 수도회 수녀들은 전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합당하지는 않다. 이 상황은 또한 성소 발굴에 해가 된다. 왜냐하면 많은 처녀들이 성 바오로 수도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혹은 어떤 이유로 성 바오로 수도회에 가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히 성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쫓아버리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 2) 다른 어떤 수도회도 오려고 하지 않고, 전쟁 후의 상황은 아직도 오랫동안 그대로 지속될 것이므로 지금으로선 오로지 한 가지 방법만 있을 뿐인데, 그것은 새로운 수도회를 시작하는 것이다.
- 3) 새로운 수도회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급한 일이다. 왜냐하면 전쟁 후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 어디에 시작할 것인가?
- 4) 유럽인이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 신부는 성 바오로 수도회만 보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 5)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에서 시작하는 것이 낫다. 서울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주교가 있다. 또 여러 명의 신부가 있어서 지도와 피정을 해줄 수 있다. 이 점은 수녀들에게 좀더 보편적인 정신을 갖도록 하고, 수녀원이 채플화하는 것을 막아준다. 지방에 있는 신부 혼자로서는 그의 사목활동, 병고, 항상 있을 수 있는 전근 등으로 인해 그러한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좀더 쉽게 구할 수도 있다. 서울 주교좌 성당은 성 바오로 수도회에 너무 가깝고, 약현 성당에는 2명의 신부밖에 없는데 그나마 계속 바뀌므로 어렵고, 백동(현 혜화동 본당)에는 여러 명의 신부가 있고, 가르멜 수도회가 있고, 충분한 대지가 있으므로 백동 성당에서 새로운 수도회를 시작해야 한다.

저는 창립자의 자질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꼭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프랑스인들은 곧 강제수용소에 끌려가게 된다. 그렇다면 나는 노 주교님을 되도록 이 일에 끌어들이고 나서 이 일을 시작해야겠다. 그런 후에 나는 수용소로 떠나겠다. 그러면 노 주교님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저는 강제수용소에 끌려가지 않았고, 이 일을 떠맡은 채 남아서 그럭저럭 계속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 목적과 규칙

이 수도회의 목적은 자선사업이다(고아원, 양로원, 병원 등). 이는 자신을 성화하고, 비신자들에게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 말없는 포교사업을 하는 것이며, 관청의 존경심을 사는 것이다. 수녀들은 제의방에서든, 성가대를 위해서든, 교리교육을 위해서든, 영세를 위해서든, 본당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수녀들은 일반 신도들처럼 미사에 참석할 것이며 오로지 자신들의 자선사업에만 전념한다. 수도원은 본당 영역 밖에 있어야 한다. 이는 모든 마찰을 피하기 위함이고 비신자들 사이에서 빛이 되기 위함이다. 수녀들은 한 수도원에 적어도 7명이 있어야 하고 자급자족할 것이며, 자신들의 힘으로 구제민을 도와야 한다.

처음에 아주 가난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제게는 단지 학식이 부족한 이들만 있는데 그들은 지금 17명이고, 성 바오로 수도회에서 파견된 2명의 지도 수녀가 있습니다. 저의 현재의 목적은 실행이 아니고, 아직은 수녀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두 달 후에는 6명이 더 들어올 것이고, 그녀들은 30명의 노인들이 머무는 양로원을 맡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수도자 교육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전무후무한 생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살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그들의 목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회를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수녀들은 조금씩 집을 늘리면서 6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 인가

- 1) 주교님께 새로운 수도회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문의하는 편지를 올림. 주교님은 답장을 대신해서 마렐라 주교님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분은 이 새로운 수도회의 창립에 매우 적극적이셨음. 이 편지 안에는 교황청 수도성서의 지침에 관한 또 하나의 편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기본규칙도 내재되어 있었음.
- 2) 시잘레 신부님과 규칙을 작성함. 그 당시 상황으로 인해서 로마의 인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교회법 81조에 의거해서 노 주교님의 인가를 받음. 노 주교님은 수도원 설립 인가를 보냈고 수련원의 시작을 허가했음.
- 3) 마렐라 주교님은 이 절차를 인정하고 조언해 주었으며, 주교님 자신이 조선에 오신 기회에 수녀원에 오셔서 수녀들을 축복해 주셨음.

수도원 설립과정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좀더 학식 있는 사람들과 시작하지 않은 것을 조금 후회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 ‘만약 학식이 있었다면 그들은 자만하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반대로 학식 있는 여인들이 온다고 해도 자기들이 시작했다고 교만해 하지 않을 것이며, 주어진 과정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 수도회의 규칙과 로마에서 온 편지들을 신부님께 보내고 싶습니다. 무췌 주교님께서 들르셨을 때 신부님을 위해 카피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건대 누구를 통해서 보내야 할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그 서류들을 되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부님께서 서울에 오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신부님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쎬 주교님, 를뢰 신부님, 카드라 신부님, 모두 잘 도착하셨습니다.

신부님, 제 편지가 일관성이 없고 불충분한 점을 용서하십시오. 그래도 선량해 보이는 이 민족을 위해서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같이 일하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칭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확인하지만 제게는 그 기도가 매우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신부님께 충성스러운 선교사 성 신부 올림

### 3. 故 성재덕 신부님 추도문2)

성재덕(Pierre SINGER) 신부

1910-1992년

본명: 생제 피에르, 마리, 루이, 네스토(SINGER Pierre, Marie, Louis, Nestor)

1910년 9월 13일, 아라스(Arras) 교구의 빠 드 깔레의 에댕(Hesdin)에서 출생

1928년 9월 21일, 외방진교회 신학교에 입학

1935년 7월 7일, 사제서품을 받음과 동시에 서울 선교구로 발령 받음

1935년 9월 15일, 포교지로 출발

1992년 2월 26일, 서울에서 선종

성재덕 신부는 대가족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본당 신부는 후에 그의 가정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가정”으로 평판이 나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성 신부는 빠 드 깔레의 작은 마을 에댕에서 태어났다. 그때는 그 고장에서 작은 피혁 업체를 경영하던 아버지 네스토와 어머니 엘렌느 까르팡티에 여사가 하느님 앞에서 하나 됨을 서약한 지 6년째 되는 해였다. 성 신부는 그의 뒤로 태어나는 6명의 동생들을 보았는데 남동생 3명에 여동생이 3명이다. 형제들 가운데는 성 신부 자신 외에도 2명의 여동생이 수녀원에 입회하여 그중 한 명은 일본에 선교사로 나와 있었다. 과연 이 정도면 에댕의 노트르담 본당 신부의 칭찬이 충분히 증명되었으리라.

어린 소년 피에르는 금발의 곱슬머리에 아주 맑은 음색을 지녀서 그 목소리가 한뫼한 경우도 자주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어떤 식으로든 눈에 띄게 남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은 없었던 것 같다. 물론 장난을 좋아했던 장난꾸러기였으나 바보짓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다. 오히려 그 장난들은 진지한 감동으로 보상받았다. 실수를 했던 추억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엔 한 올의 미운 털도 박혀 있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따스한 미소를 번지게 했을 뿐이다. “난 미국으로 갈 테야. 그래서 백만장자가 되어서 돌아올게.” 이 터무니없는 촌극은 그날 저녁으로 끝이 났고 그 바람에 백만장자가 되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밝게 웃을 수 있는 시절만은 아니었다. 전선이 바로 30여km 앞에 있었고 시도 때도 없는 군인들의 이동과 포격 소리가 아니면 대포 소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려 왔다. 이때 놀이 친구였던 9살짜리 형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도장이 그 어린 피에르의 가슴에 각인되는데, 형은 시골의 어느 영국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내 형을 잃게 된다.

드디어 휴전이 이루어지고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되었다. 생활은 다시 조금씩 정상을 되찾았고 그에게는 중등 교육이 시작되어 1919년에 생-오메르에 있는 생 베르맹 중학교에 입학한다. 그는 학교에 들어가서 말 잘 듣는 학생이 되겠으며 체벌도 받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겠노라고 약속한다.

그가 1922년에 가족에게 쓴 편지에는 “엄마, 저는 늘 제가 한 약속을 명심하고 있으며 힘써 노력하고 있어요”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교장이 보내온 성적표에 의하면 그는 때때로 선을 넘을 정도의 자유로

운 상태를 나타내기도 했던 것 같다. 1928년 7월 25일자 외방전교회 등록 지원서와 함께 보내온 교장의 학생 평가서에는 “어떤 상황에서는 까다로운 성격을 보이기도 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늘 독실한 신앙심을 갖고 선교사에 뜻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의향이 소명에 부합한지 적합한 검토를 바랍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성 신부)는 자존심 속에 박혀진 가시를 뽑고 그 자신이 8월 31일에 게브리앙 주교에게 직접 지원서를 보내면서 “저는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해 온 입회의 여부를 사랑하는 저의 부모님의 배려와 주교님의 크신 자비로움에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라고 적어 보냈다. 지극한 마음은 즉시 결실을 맺었으니 그의 공식적인 입회 허락이 9월 5일로 결정되었다.

그가 사제가 되고자 했던 바람은 아주 어릴 적부터 시작되어 어린아이의 놀이는 늘 미사놀이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바람을 믿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자신의 고집에는 변함이 없었고 본당의 젊은 보좌 신부로부터 용기를 얻었으니, 그 보좌 신부는 그에게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다. 그러나 신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그의 부모는 그가 집으로 되돌려보내지나 않을까 늘 염려했다. 신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 그의 누이 테레즈가 일본으로 파견되자 그는 떠나는 누이에게 찬사의 글을 보내며 충고도 함께 적었다가 즉시 자신의 이러한 버릇을 시정했다. “너에게 그러한 말을 하다니 나는 거의 죄의식까지 느끼게 된다. 나는 아직도 내가 창조주인 양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습관에 집착하고 있으니, 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도 말이다...” 그는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2년 만에 학업을 중단하고 덩케르크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1932년 10월에 제대하여 돌아왔다. 그때 그의 모습은 조금 더 성숙해 있었다.

1933년 7월 2일에 삭발례를 받은 그는 같은 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누어 부제품을 받고 이듬해 역시 7월과 12월에 나누어 사제서품을 받은 후 1935년 7월에 사제로서 임명된다. 그는 아무런 큰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진로를 밟았다. 생 베르맹 학교 교장의 일침이 그의 진로에 큰 보약으로 작용하였고 그의 노력은 성공의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그는 사제서품을 받은 당일 저녁에 서울을 파견지로 발령받았다.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고 9월 15일에 출발 예식을 치른 후 드디어 20일에 마르세유 항에서 앞으로 40여 일간의 긴 항해를 하게 될 선박에 올랐다. 그는 가족들을 위해 이 여행일지를 상세히 기록하여 1935년 12월 23일 자로 “새해 인사 편지”를 대신하여 한 묶음의 사진들을 동봉하여 보내왔다.

그가 서울에 도착한 날짜는 1935년 11월 1일이다. 그는 그때부터 서울 주교관에서 한글 기초 단계를 익히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대성당의 미사 집전에 참여하면서 창미사로 튀드박3)의 스승들을 기렸고 특히 성토요일에는 엑쉴테(Exultet: 기뻐하고 용약하라)를 완전히 거행했다. 그가 도착한 지 불과 몇 달 만인 1936년 5월에 합덕의 필립 페랭 신부 곁으로 보내진 것을 보면 그가 창(唱) 만큼이나 한국어를 거의 완벽하게 다루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곳에서 그는 그의 어학실력을 다듬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 큰 교우촌의 온갖 일들을 시중들며 사도직으로서의 첫 걸음마를 익혔다. 본당 생활을 신속히 익힌 그는 이듬해 1937년 1월에 이미 청년 성가대를 결성할 만큼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의 성가대는 명동 대성당의 성가대에 비해 결코 양보하지 않을 정도였다. 1938년 6월에 한국인 신부가 맡고 있는 제물포(현재의 인천) 본당의 보좌 신부로 임지를 옮겨 12개의 공소를 맡아 관리하였다. 1939년 8월에 서울에 있는 백동(현 혜화동) 본당 사제로 임명되었고 다시 며칠 후 9월 4일에 군대 소집령을 받아 그 달 11일에 천진으로 떠났다. 임지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묵텐에서 프랑스 영사관으로부터 취소 명령을 받아 그해 말에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성 분도 본당을 되찾은 그는 1940년 4월 30일자로 다시 이동하게 되어 있어서 백동 본당은 불과 몇 개월의 임지였다. 그러나 받은 교시에 대한 이러저러한 착오로 말미암아 그의 징집령은 지연되어 6월 2일에야 비로소 서울을 떠나 상해로 출발하여 그곳에서 9월까지 있다가 진료를 받고 10월 1일에 다시 서울 본당으로 돌아온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아 여러 차례 검진을 받았는데 그가 따라야 했던 여러 처방제들 가운데 하나가 다행히 희망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드디어 생활은

안정되어 가는 듯했고 1941년 4월에 여러 명의 성인 영세자를 배출하는 기쁨을 맞는다.

그러나 상황은 곧 악화되어 1942년 11월부터 일본 정권은 선교사들을 총독부 감시하에 두고 사제관 내에서 한국인들과의 접촉을 금지시켰다. 이때는 선교사 모두에게 생활 여건이 어려운 시기였으므로 선교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해결할 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바로 이 무렵 성 신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가수녀원을 세웠는데, 1947년부터 성 신부는 수녀원이 자신의 날개로 날 수 있도록 놓아주어, 이후 수녀원은 독자적인 움직임으로 발전해 나갔다.

1948년 6월에 한국의 국제 교류가 정상화되므로 성 신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프랑스 본국으로 휴가를 얻어 떠났다. 그는 미군 수송 선박에 올랐으므로 그의 귀향 길은 자연히 동쪽으로 돌아갔는데, 유럽에서의 편안한 휴가를 마치고 1949년 3월 21일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전통적으로 취하는 수에즈 운하를 통하여 왔으니 그는 세계 일주를 마친 셈이었다.

그 사이에 한국 내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즉 1948년 9월부터 외방전교회는 서울 교구를 완전히 한국인 사제에게 양도하라는 로마로부터의 결정이 있었고 이제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대전에 새 포교지를 창설할 임무를 맡고 있었다. 성 신부는 서울에 도착한 즉시 그의 옛 본당과 작별해야 했고 5월 29일에 대전으로 내려가 6월 1일자로 논산으로 새 임지를 맡아가게 되었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은 남침을 감행하였고 성 신부는 7월 15일까지 그곳을 지키다가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부산으로 피신하라는 지시를 받고 떠났다. 사실 관할 교구는 아주 작은 지역이었음에도 금강을 기준으로 두 개의 행정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특히 금강 유역은 공산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아주 민감한 지역으로 교전이 불가피했었다. 선교사 중 몇 명은 미처 피신하지 못하여 그곳에서 순교하였다. 성 신부는 제일 먼저 대전으로 돌아와 10월 17일에 논산 본당으로 들어갔으나 적군의 채공격이 시작되어 다시 피신해야 했다. 12월 25일에 다시 임지로 돌아왔으나 적의 공격으로 임지를 고수할 수 없었다. 1951년 2월에 그의 성당이 전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기 동안에도 그는 한가하게 머물지 않았고 부산 주변의 북한군 포로 수용소에서 사제직을 수행하였다.

1951년 3월 15일에 드디어 대전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는 16일에 논산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정착하였다. 5월에 벌써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것은 연속되는 전란의 상황이 많은 영혼들을 은총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만든 결과이며 또한 역경의 시기가 산출한 무시 못할 결과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가톨릭이 무엇인가를 자각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인지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교회는 지극히 자연적인 도약의 움직임이 보였고 그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성령 강림 대축일에는 논산 거리에서 성체 거동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 행사는 2천 명이 넘는 관중의 호기심을 끌었다. 또한 경찰 서장의 요청으로 성 신부는 경찰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강론을 하기도 하였다.

1952년 2월에 성 신부는 부교구장(vice-supérieur régional)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3년 임기를 1955년과 1958년 두 차례에 걸쳐 갱신하였다. 그가 동료 신부들로부터 완전한 신임을 받았음은 물론이었다. 그는 부교구장의 활동뿐만 아니라 1952년 6월에 중고등학교 일에도 뛰어들어 한국 성인 김대건(안드레아)의 이름을 빌려와 학교 이름을 대건이라고 붙였다. 성 신부의 활동에는 분명 그의 수호 성인의 보호가 있었던 듯 예비자들이 대거 몰려와 등록하였고 그 해의 성인 영세자 수는 173명을 기록하여 최고의 숫자로 기록되었으며 1953년에 106명, 1954년에 138명을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성당은 너무 비좁아졌고 그는 자리를 늘려보기도 하였으나 낮미사 때에 몰려오는 인파를 다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리하여 젊은 장 올리비에 신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미사를 분담했다.

그의 사제관은 전쟁 중에 터키 군과 미국 군의 잇따른 파오로 인한 수난으로 손상되어 불행히도 사용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손해보상과 복구를 요청하였으나 책임자들 측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학교는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어 즉시 24명의 교사 채용과 6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입학하였다. 이듬해 성 신부는 어린이 놀이터를 마련함으로써 단숨에 40여 명의 어린이들을 수확하였다. 물론 이 모든 일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걱정거리들이 아닐 수 없었는데, 성 신부에게는 그만큼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 있는 일들이었다. 이것은 수많은 가정에 천주교를 깊숙이 전교하는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법이었고 또 하나는, 그가 말하기를 주저하는 이유이지만 “톱니바퀴 장치 속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고된 일을 하게끔 강요하는 흔하지 않은 방법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것이 유익하다” 라고 주교는 평가했다.

고된 일이 성 신부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사이에 사제관을 재건하여 1955년 부활 축일에 완공을 보지 않았던가! 또한 그의 선임자인 줄리앙 공베르 신부가 그토록 꿈꾸었던 계획인 노인들을 위한 거처가 드디어 공사에 착수하여 1956년 10월에 완공을 보게 되었다. 그 사이에 성인 영세자의 수는 1955년에 115명에서 1956년에는 13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꾸준히 성장하는 교우촌으로서 비중이 더욱더 커갔다. 또한 최세구(로베르) 신부와 장 시에라장 신부가 도와주었던 성과에 힘입어 그는 학교 사업에 더욱 힘을 기울일 수가 있었다. 그로 말미암아 학교는 좀더 확장시켜야 했고 또한 한동안 잃었던 그의 본당을 봉헌한 루르드의 성모님 동굴을 건립하기도 하였다. 1957년 1월에 성 신부는 그가 창설한 성가회 수녀들의 연례 피정을 맡아 강론하였다. 그 해의 성인 영세자 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여 323명에 이르렀고 논산은 3,000명이 넘는 교우와 28곳의 공소에 분포되어 있는 예비자 300명과 함께 비교적 중요한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한편, 충원 인력으로 그에게 긴요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이는 장 블랑 신부 한 명뿐이었다. 그 해 6월 8일에 전 대구 대목 교황 대리 주교였던 제르맹 무쎈 주교의 사망은 모든 선교사들에게뿐만 아니라 성 신부에게는 그의 직속 장상이었던 만큼 상실감이 특히 각별했다. 무쎈 주교는 1900년부터 한국에 몸담고 있으면서 한국인의 정권과 일본인 그리고 미국인의 정권하에서 차례로 박해와 전쟁 그리고 평화를 가로지르는 파란 많은 이 나라의 역사를 함께 살아왔다.

그때에 전혀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으니, 성 신부의 학교 내에 혁명이 내습한 것이었다. 1958년 내내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정치적 음모와 학생들의 파업, 경찰의 개입 등으로 학업 자체에 큰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이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교사진을 해고해야만 했다. 모두들의 생각처럼 재출발과 질서를 복원하는 것은 창설자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그 모든 일을 태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의 사도직을 높은 차원에서 지켜나갔다. 그의 관할 구역에 3개 공소를 추가하고 당시에 들어선 군부대 바로 옆에 대성당을 건립하였고, 그의 본당 구역 내에 60,000명의 군인들을 수용하는 그 부대로 말미암아 군인 가족들을 비롯하여 100,000명이 넘는 주민이 증가되었다. 이 부가된 부담으로 5년 전부터 연기해오던 결정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으니 너무 커져버린 그의 본당을 분할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것은 그가 그의 일을 전가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의 관할 구역을 좀더 축소시킴으로써 보다 큰 정성으로 교우들을 돌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천에 따라 새로운 경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교회에 더 많은 신입 교우들을 영입할 수 있으리라는 그의 생각 때문이었다. 그의 결정은 1959년에 마산 교구의 설정과 함께 실현되어 그의 본당 교우의 1/4에 해당하는 약 1,000명의 교우가 분리되어 나갔고 나머지 18개의 공소를 짊어진 피에르 로페페 신부의 유능한 도움으로 관리해 나갔다. 5월에 새 성당 건물들이 착공되었고, 개종에 대한 열의 또한 그에 못지 않았으나 물론 전년도 기록에는 미치지 못한 채 192명을 수확했다. 그리고 8, 9월 성가회의 수녀 피정을 맡아 지도함으로써 그 해를 기쁘게 마감하였다.

어느덧 1960년이 되었고, 그 해는 성 신부가 사제서품을 받고 주님의 종으로 봉사한 지 25년 째 되는 해였다. 그는 123명이나 더 불어난 그의 양떼와 함께 논산에서 그의 사제 서품 25주년 은경축을 치렀다. 이제 뒤를 돌아보고 그 세월 속에서 이루어 놓은 일들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순간이 온 것이었다. 신부는 불만족스러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암울한 나날들 속에서 드러나는 그의 주요 업적들만 적어 목록을 만들어 보자. 그의 능력으로 창설된 수녀회는 발전과 확장의 기쁨을 주었고 그가 건

립한 중고등학교는 한창 꽃을 피우고 있었다. 물론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레지오 마리에(마리아의 군단)를 비롯하여 3개의 ‘쁘레시디움’ 그리고 모든 교구를 통틀어 처음으로 도입한 ‘꾸리아’ 등의 신앙 활동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가 세운 건물만 해도 여럿 되었는데, 그중에 학교와 본당, 사제 그리고 막 완공을 앞둔 새 성당 건물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일에 앞서 부교구장으로서의 직무가 선행되었음은 물론인데, 그는 거의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모범적인 솜씨를 발휘하며 이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학교의 틀을 재정비할 것을 기획하였다. 사실 지역 내의 학교는(대건 중고등학교) 그 동안 이미 확장을 해왔음에도 900명의 학생이 30명의 교사들에게서 수업을 받기에는 터무니없이 비좁은 상태였다. 그리하여 이 학교 건물은 장차 여자 중고등학교로 쓰이게 되어 샬트르 성바오로수녀원에서 “해성”이라는 이름을 붙여 개교하게 되었다. 기존의 남자 중고등학교는 신축 교사로 이전되는데, 1961년 초에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옛 건물은 그 해 10월에 문을 닫게 되고 이때에 그의 새 성당 축성식이 아드리앵 라리보 주교의 강복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성 신부에게 절정의 시기가 되었고 그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잠시 휴식을 취해도 마땅했다. 그 기간 동안 대리 임무는 로페페 신부가 맡기로 하고 1962년 2월 6일로 출국 날짜가 결정되었다. 드디어 성 신부는 그 해 연말에 귀국할 예정으로 한국을 떠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예기치 못했던 일을 마련해 놓으셨으니, 그가 고국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즉 그에게서 신장 결핵이 발견되리라고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그는 당장에 또랑(Thorenc)에 있는 성직자 요양소로 옮겨 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그로서는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드디어 1964년에 해방의 아침을 맞았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그토록 그리워하던 한국으로 즉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일 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

4월 7일에 배에 오른 그는 5월 말에야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의 건강으로는 더 이상 논산 본당의 막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으므로 논산 본당은 젊은 신부에게 맡겨졌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새 임지는 주민 30,000명에 영세자가 500명에 불과한 그야말로 본당으로서의 벽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6월에 홍산 본당으로 정식 발령을 받고 가보니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할 일이 많았다. 그는 젊은이처럼 흥분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제는 충분한 경험도 있었고 그 지역 사회에 관해, 또 언어를 새롭게 배워야 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니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었고 곧장 본 업무로 뛰어들 수 있었으니 성가회 수녀들의 도움을 확보하여 4년 만에 홍산은 번듯한 본당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는 그 지역의 준중심지쯤 되는 도시들로 주민들의 집단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자 200명에 교우 700명으로 끌어올린 것은 가히 놀라운 성과였다. 그 해 연말에 성가회의 연례 피정 지도 신부로 초대받아 이를 쾌히 받아들여 서울로 올라가 성가회 수녀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이 수녀회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에 합류하였다. 수녀원에 있는 동안 신부는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는 피로와 기력이 쇠약해져 걱정하고 있었다. 이때의 체류 기간은 그의 일생을 두고 어느 정도의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는데, 성가회 수녀들은 그가 생각하지도 않은 일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1969년부터 성가회에서는 당시 막 추기경에 오른 김수환 스테파노 대주교에게 성 신부를 성가회 영성 지도 신부로서 청원서를 제출해 놓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 작업은 성 신부가 속해 있는 대전 교구 주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단시간에 결정될 일은 아니었다.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끌었지만 결국 1970년 1월에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성 신부는 서울의 성가회로 돌아오는 기쁨을 맞이하였다.

그의 선교사의 삶에 또 다른 장이 시작된 것이었다. 엄격한 사목 신부로서의 그의 역할뿐만 아니라 수련 수녀들과 지원자들에게 교리와 영성 수업을 맡아 가르치고 그들이 전공 수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례와 성경에 관한 입문을 준비시켰다. 그는 수녀원에서의 생활을 대단히 만족해 했다. 그는 그곳에서 값진 경험들을 쌓았으며 간접적인 방법이었으나 적극적으로 한국 교회의 발전과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참

여하기에 무척 행복했다. 그는 그의 옛 노트들을 다시 보았고 그가 만든 한국어 성가집을 재출간하였다. 이 성가집은 그가 고국 프랑스에서 돌아와 홍산에 있으면서 1967년에 출간한 책인데, 열심한 교우들이 전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긴하게 도와 준 책이었다. 또한 예전에 논산에 재임할 때 창미사와 대화미사를 선택하여 따를 수 있도록 작은 미사책을 만들 계획이었다. 이를 이때 실현하려고 했으나 이 작업은 전반적인 재수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전례 양식이 어느 정도 변경되는 시점에 있었으므로 당분간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이는 끝내 실현되지 못하였다.

1985년은 그가 사제서품을 받은 지 50년째 되는 해였다. 9월 13일을 그의 금경축을 축하하기 위해 공식일로 정했다. 그러나 그의 서품 기념일이 가까워서 외방전교회 총장 신부로부터 받은 축하 인사에 그는 그가 아끼는 수녀회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답례 인사를 하였다. 그의 일생에서 가장 큰 일이기도 하며 이제 그가 생각할 것은 성가회뿐이었다. 그는 답례 인사에 이렇게 썼다. “한국에는 40여 개의 수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모원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녀들에게 ‘여러분 집에는 예비자가 있습니까?’ 하고 묻지요. 그러면 저마다 환상적인 숫자를 들어 답하는데, 우리 같은 옛날 사람들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의 믿음이 늘 성장하기를 끊임없이 염려하는 마음을 전하며 겸손과 감사의 언어로써 답례 인사를 맺었다. “저희에게 이 기쁨을 안겨주시는 하느님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성가회는 실로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여 그 당시에 350명의 수녀와 30명의 지원자가 있었다. 수녀원에 몸담고 있는 그 시기에 성 신부는 긴 투병 생활에 들어갔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녀들은 교대로 신부를 간호하고 신부 곁에서 밤샘을 하였다. 성 신부는 바로 그 수녀원에서 82세의 한생을 마감하고 주님께 그의 영혼을 돌렸다. 그는 임종 전에 가족에게 작별의 편지를 쓰면서, “나의 신앙은 어린 시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얻은 바로 그 신앙입니다. 내가 이룬 그 모든 일들은 정말이지 미흡하며 지극히 작은 일들이나, 한 불쌍한 인간이 달리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는 많은 과오와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때문에 하느님께 용서를 청합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자비만을 청할 뿐입니다. 나는 신중하려고 노력했으며 사제의 삶을 사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라고 적으면서 그의 부친이 자녀들에게 남겼던 유언을 이제 그의 차례가 되어 그의 가족들에게 그대로 유언으로 전했다. “서로 서로 도우세요. 일치만이 힘과 행복의 비결입니다. 서로 서로 사랑하세요. 가족의 기쁨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머무르세요. 선행을 쌓으세요.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일입니다! 교회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시간을 바치고 힘을 바치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얻은 진리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또 전해주어야 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군인과 같습니다. 방어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격도 잘 해야 합니다.”

#### 4. 파리외방전교회 본부에 소장된 잡지와 문서에서 성 신부님과 관련된 글4)

##### 1) 불땡(bulltin: 파리외방전교회에서 간행한 잡지)

1935년 여름(654쪽)

올 가을 끝머리에 우리는 새 동료, 아라스(Arras) 교구 사제인 생제 신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발령받은 친애하는 이 사제는 아름다운 포교지 서울로 발령받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고 적어 보냈습니다. 그의 기쁨은 또한 우리의 기쁨이니 그가 무사히 도착하기만을 빌 뿐입니다.

1935년 11월 6일(869쪽)

모든 성인 성녀들의 도우심으로 지난 11월 1일에 생제 신부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울에 도착하였습

니다. 그러나 선박여행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태풍을 만났으니 배 멀미로 고생 꽤나 했나 봅니다. 우리의 새 동료 신부는 이제 그런 고생은 안 해도 될 것입니다. 한국에 있으면 선박 여행의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 ..... )

어쨌든 새로 부임한 생제 신부는 도착 즉시 코요 신부로부터 환영받았고 선교구의 막내로서 모든 특혜와 권리를 받았습니다. 코요 신부는 폐 치료를 받느라 6주째 주교관에 머물고 계시는데 다행히 별 위중한 증세는 아니지만 몇 달 휴식을 취하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요 신부께서는 생제 신부를 동반자로 삼아 서로 상부상조의 좋은 기회가 되었으니 새로 온 젊은 (생제) 신부에게는 경험을 쌓고 한국어를 배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1935년 11월 6일(872쪽)

10월 21일, 두 명의 새 사제가 긴 선박 여행 끝에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그중에 생제 신부는 이튿날 즉시 서울로 향해 떠났으며 ...

1936년(116쪽)

생제 신부는 잘 지내고 있으며, 처음 온 신부들이 다 그렇듯이 그 역시 한국어가 쉽지 않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의 차례가 되어 대성당에서 주일 대미사를 드릴 때에는 무척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하였다고 합니다.

1936년 5월 6일(435쪽)

대성당에서 세례식이 있기 전에 생제 신부는 액셀테를 완벽하게 불러서 워드박의 성가 실력을 한껏 자랑했습니다.

( ..... )

1936년 5월 6일(436쪽)

생제 신부는 주교관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온갖 봉사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랭 신부의 보좌 신부로 발령받아 많은 교우들을 두고 있는 그의 본당에서 열성으로 그 동안 쌓은 경험들을 토대로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1937년 1월 7일

페랭 신부의 보좌인 생제 신부는 벌써 청년 성가대를 조직하였는데 그 실력이 명동 대성당의 성가대에 못지 않습니다.

1938년(458쪽)

피정 후 주교님은 현지인 사제 몇 명을 비롯한 생제 신부, 프로망투 신부에게 새 임지를 발령 내셨습니다. 2년째 페랭 신부의 보좌로 일해왔던 생제 신부는 제물포의 큰 성당으로 발령받아 임 바오로 신부와 함께 본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1939년 8월 1일(634쪽)

생제 신부는 서울의 백동 성당의 주임 신부로 발령받았으며...

1939년 10월 1일(782쪽)

지난 9월 4일에 서울 주재 프랑스 영사관에서 주교관으로 몰리나르, 폴랭, 바로, 생제, 프로망투, 알레 신부들 앞으로 동원 소집장을 보냈습니다. 천진으로 소집된 우리의 6명의 사제들은 신속하게 그들의 임지를 정리하고 9월 11일 16시 25분 기차 편으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텐에 도착하여 그곳의 프랑스 영사관에 그들의 도착을 신고하자 영사관에서는 아마도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프랑스 대

사관에서 내려온 지시로는 “중국에 체류하는 프랑스인들은 동원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현재의 거주지에 그대로 남아 있으라” 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동료 사제들은 즉시로 되돌아와 그들의 본연의 임지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선교국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업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지시가 다시는 내려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1940년(404쪽)

프랑스 영사는 주교관을 통해 생제, 프러망투 신부 앞으로 동원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꼴랭, 바로 신부들은 아직 보류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부디 우리의 동료 신부들이 오랜 동안 임지를 비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940년 6월 2일(477쪽)

생제 신부와 프로망투 신부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은 후 오늘 오후 고베를 거쳐 상해로 출발했습니다.

1940년, 고베에서(480쪽)

서울의 생제 신부와 프로망투 신부가 동원령을 받고 상해로 가기 위해 이곳의 기차역을 경유한다고 하기에 이곳의 두 신부가 인사라도 전하려고 기차역으로 나왔습니다.

1940년 7월 1일(545쪽)

생제 신부와 프로망투 신부는 휴전을 제의했던 당일에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건강이 썩 좋지 못한 생제 신부는 아직 검사 중에 있으며 매일 군의관실로 출석한답니다. 당분간 두 신부는 제리(Gerey) 신부 집에 머물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1940년 10월 1일(741쪽)

동원령을 받고 지난 6월에 상해로 떠났던 생제 신부와 프로망투 신부가 드디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두 신부는 경리부에 머물렀습니다. 생제 신부는 건강이 좋지 못하여 여러 의사들의 손을 거쳐야 했는데 그때마다 다른 진단이 나왔고 급기야는 스프루5)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를 그리 놀라게 하는 병은 아니었습니다. 안심한 생제 신부는 처방에 따른 치료를 받으며 다시 백동 성당의 주임으로 돌아왔습니다.

1941년(402쪽)

1839년에 순교한 어린 유 베드로를 생제 신부는 피에르(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1949년(105쪽)

73세의 앙투안느 (큰) 공베르 신부는 여전히 활동적이며 창설자로서의 오랜 경험으로 성가회라는 젊은 수녀원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성가회는 현재 정규 휴가를 받아 프랑스에 가 있는 38세의 생제 신부가 몇 해 전에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Petites Soeurs des pauvres)’ 를 모델로 하여 창설한 회입니다.

1949년(372쪽)

생제 신부는 지금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1949년 6월, 대전에서(572쪽)

작년 9월에 정규 휴가를 맞아 를뢰 신부와 함께 미군 수송편으로 프랑스로 떠났던 생제 신부가 휴가를 마치고 먼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에즈 운하를 거쳐 홍콩을 돌아 세계 일주를 하고 온 셈입니다.( …… )

생제 신부는 서울에서의 일들을 해결한 즉시로 5월 29일에 대전으로 내려갔는데 라리보 주교는 그에게 논산으로 발령을 내셨습니다. 성령 강림일이 임박해 있기에 생제 신부는 곧장 새 임지로 내려갔습니다.(…… )

연로한 김 베드로 신부는 예전에 줄리앙 공베르 신부가 지은 넓은 사제관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며 생제 신부를 도와 중앙에 분포한 수많은 교우들을 돌볼 것입니다. 생제 신부는 원기 충천하고 열의에 가득 차서 돌아왔습니다.

1950년(555쪽)

그리고 논산의 생제 신부가 왔고 그는 자전거를 타고 전주로 떠났습니다. 그 전날 그는 서쪽으로 7km 떨어진 강경으로 베르몽 신부를 찾아갔었습니다. 베르몽 신부는 심한 말라리아에 걸려 자리에 누워지고 있습니다. 베르몽 신부는 생제 신부에게 자신은 좋으신 하느님께 맡기고 걱정 말고 떠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생제 신부는 그의 병세의 위중함을 보고 그에게 노자성체와 종부성사를 주고 남은 성체를 모두 자신이 모셨습니다. 그 이후로 받은 소식으로는 교우들이 베르몽 신부를 산 속의 어느 교우촌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1950년(674-683쪽)

(번역 불가능)

1950년(711쪽)

부산에서 - 생제 신부는 비온느(Byrne) 주교의 비서인 부뜨(Booth) 신부의 지프차를 타고 10월 5일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그의 기사는 차를 훔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1950년(717쪽)

전날에 도착한 생제 신부는 본당으로 내려가고 이미 거기(대전 주교관)에 없었습니다.

1950년 12월 27일(155쪽)

중공군의 기세가 좀 꺾이고 위협이 가시자 시잘레 신부와 생제 신부는 성탄 전에 그들의 본당으로 돌아갔습니다.(…… ) 생제 신부는 200명이 넘는 고해자들에게 성사를 주었습니다.

1951년 3월 1일, 부산에서(230쪽)

부산에서는 여러 곳의 군병원에서 교회의 이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가회와 샬트르회의 수녀들이 부지런히 간호하고 조용히 꾸준하게 그들의 일을 하며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고 있으며, 그 보답으로 많은 세례자들이 나오고 여러 명의 한국인 사제들이 군병원의 사목을 보고 있습니다. 메리놀회의 크레그 신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10,000여 명의 한국인들을 포함한 150,000명의 한국인 포로들을 대상으로 정신 교육 및 종교 교육의 사목을 맡았습니다. 생제 신부와 평양 교구의 한국인 사제 2명이 거기에 합세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가르침을 받고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을 때의 세례'를 받을 수 있었으며 그들 중에 길 잃은 양들이, 다행히 그 숫자는 극히 미미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여 긴 세월 동안 잊었던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951년 3월 29일(297쪽)

보두앵, 프와요, 시잘레, 조지, 생제 그리고 프로망투 신부들은 3월 15일에 대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본당의 집 두 채를, 한 채는 미군 C·I·O가 그리고 다른 한 채는 경찰들이 차지하고 있기에 신부들은 한국인 집 방 한 칸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베르몽, 시잘레, 생제, 프로망투 신부들은 그들의 임지로 돌아갔습니다.

1951년 3월 29일(298쪽)

지난 달 보고서에 의하면 논산에 주둔해 있던 터키군이 부주의로 생체 신부의 아름다운 사제관에 화재를 냈다고 합니다. 생체 신부는 그의 물품들을 교우집에 숨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교우들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해 놓고 혹시 빨갱이들이 그들의 집에서 유럽인의 물건을 찾아내게 되면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신부의 물품들을 부엌 마루 밑이나 천장 속에 감추어 놓았답니다. 그 결과 집이 불에 타는 바람에 결국 모든 것이 한 줌 재로 변해버렸답니다.

1951년 3월 29일(487쪽)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이하여 논산과 합덕에서 거행되었던 두 곳의 성체 거동은 (교회의) 위력을 과시한 행사로 주목할 만합니다. 논산의 생체 신부는 교회는 지하교회(카타콤바)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내의 한복판에서 성체 거동을 하겠노라고 경찰의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기꺼이 승낙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들에게 종교 강의를 해줄 것을 부탁했답니다. 물론 신부는 즉석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웃 본당의 교우들을 비롯한 2,500명의 열심한 신자들이 성체 거동 행렬에 참가했습니다.

1951년(752쪽)

모든 가구들을 손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덕) 본당은 본당 살림을 다시 시작했고 성가회 수녀들이 고아원을 맡아 4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1951년 11월(9쪽)

생체 신부는 논산으로 돌아와 (공산당 앞에서 목숨을 바치며) 믿음을 증거한 조관호(스테파노)의 장례를 교우들과 함께 장엄하게 치러 주었습니다.

1952년(564쪽)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이하여 논산과 합덕에서 성체 거동이 있었습니다. 주교님께서 첫 번째로 강론을 하셨고 그 다음에 부주교님께서 하셨습니다. 논산에서는 생체 신부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5,000명 정도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전혀 기대에 못 미친 3,000정도만 오자 신부는 좀 실망한 듯합니다. 생체 신부는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더러는 모내기 때문에, 더러는 먹을 것을 가져올 수 없어서, 또 더러는 여기까지 올 육체적 힘이 없기 때문에 많이 오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성체 행렬은 시내 거리 거리로 이어지며 아름답게 이루어졌고 마침 날씨까지 아주 좋아서 더욱 행사를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1953년(99쪽)

생체 신부는 그의 불그스레한 턱수염 때문에 무서운 인상을 주나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예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현재 60,000명의 신병들이 있는 논산 훈련소의 군 검열관인데 모두들 이 엄격한 검열관 앞에서는 마치 재판장 앞에서처럼 떴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어지겠습니까? 이 검열관이 신부 앞에서 교리 문답 시험을 치르는 동안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어 떨더라는 것입니다!

생체 신부의 고등학교는 교장을 새로 임명한 후로 전보다 나아졌는데 다만 최근에 불행한 일을 하나 겪었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밤중에 도둑이 들어 옆에 있는 대건 유치원의 유리를 80장이나 훔쳐갔다고 합니다. 비상 소집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유리창마다 지워지지 않게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각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길에 나가서 흰 석회석을 주워와서 유리 한 장 한 장마다 마름모꼴로 “대” 자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대”는 “크다”라는 뜻으로 “대건”의 첫 자이며 “대건”은 학교의 주보성인이신 한국 김대건 복자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후로 도난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1953년(143쪽)

프로비당스(Providence) 학교와 대건 학교의 차이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가톨릭 학교는 현저하게 차이점을 보입니다. 프로비당스 학교는 여러 방면

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저는 후(Hu)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노고와 그 대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선교사들이 보여준 훌륭한 성과이며 그들은 모든 찬사와 치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프로비당스 학교는 학교규칙이나 운영임원의 측면에서 전적으로 가톨릭 학교입니다. 반면에 이곳(대건 학교)은 이름만 가톨릭 학교일 뿐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다른 일반 학교와 같습니다.

프로비당스 학교는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지으려 한다면 그는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 과연 그만큼 돈이 자기에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겠느냐?” 라는 스승의 말씀에 따라 성직자들의 만장일치된 동의하에 매우 견고하고 점진적인 계획에 따라 창설되었으나, 대건 학교는 건물도, 가구도, 선생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만들어졌으며 만장일치의 동의도 없었고 성직자 측의 배려도 아주 요원한 상태였습니다. 프로비당스 학교는 어느 정도 가톨릭적인 분위기의 보호 아래, 또 비록 가톨릭 법은 아니지만 견고한 법에 의해 출발부터 좋았고 최소한의 자유와 신뢰를 보장받았으나, 대건 학교는 100% 비신자인 지역에서 교우들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주위 분위기로나 비신자들의 몰이해로 방해를 받았으며, 우리와는 정반대인 법규와 학교 관습들로 인해 우리에게는 거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프로비당스 학교 역시 엄청난 재정난과 인력난, 전쟁 등의 애로를 겪은 줄 압니다만, 그러나 이곳은 “나는 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그만큼 더 큰 사람입니다” 라는 격언 대로입니다.

프로비당스 학교는 그 운영 임원진이 성직자들이나, 대건 학교는 교사의 자질 문제나 법적인 간섭 문제로 모두 평신도 혹은 비신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학생의 대부분이(95%) 가톨릭 신자가 아니므로 이교도적이고 국수주의적인 분위기를 띠게 합니다. “창설자”는 눈에 띄지 않는 감독자의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프로비당스 학교는 그 입지가 튼튼해 보이지만, 대건 학교는 비록 나라 안에 평화를 되찾았다 할지라도 한국 정부가 정부를 되찾은 기쁨에 취해 쉽사리 승낙했던 학교 승인을 법적으로 재검토하자고 하거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아직 그 진로를 모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이나 재정난, 인력 문제, 정부 문제를 봐서라도 우리의 입지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저 낙담이나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라리보 주교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논산의 사정은 무척 열악하므로 결실을 맺기까지는 여러 해 고초를 겪고 인내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당신을 도와줄 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주교님 덕분입니다. 주교님께서 학교를 위해서라면 안 하신 일이 없습니다!

#### 대건 학교의 옛 모습과 현재 모습

1949년 6월 1일에 제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저의 “가톨릭” 학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a. 교사진: 교장, 교감, 회계 담당, 그리고 3명의 교사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외교인이었으며, 3명의 교우 교사 중 1명의 젊은 교사만 열심히었고 나머지 2명은 그저 물렁물렁한 교우였습니다. 역사 선생은 노골적으로 교회를 비판했고, 체육 선생이라는 아주 막된 젊은이는 우리 학교 학생들과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패싸움을 조종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선생은 심심하면 한 번 학교에 나오는 식으로 출근하여 제가 보기에 별로 자격이 없어 보이며, 그들이 나쁜 표양을 보이는 것도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b. 학생: 학생 수는 300명입니다. 그중 몇 명은 아주 모범 소년이나, 불행히도 불량 소년들이 많습니다. 불량 학생들은 교우 학생들이나 신자들 그리고 장래 행렬의 성당 진입을 방해하기도 하고 교문을 막기도 합니다. 또한 결혼한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교사들을 비방합니다. 교사 사택을 침입하는 일도 있습니다.



c. 학교 건물: 전에 있던 두 채의 학교 건물에 두 개의 교실을 새로 지었는데, 너무나 약한 기둥 위에 무거운 지붕을 올려 교실이 피사의 사탑처럼 전체적으로 기울어졌고 견고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d. 재정 상태: 금고는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매달 학비를 규칙적으로 내지 못 하나 그렇다고 그 이유로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돈은 없는데 지출은 상당합니다. “창설자”가 빈 금고를 채우겠지,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음악반 학생들을 위해서 유니폼은 있어야 하고, 또 축구반 학생들을 위해서도 특별한 유니폼이 있어야 하고(다른 학교 보기에 “체면” 문제이므로) 등등….

1953년(471쪽)

생제 신부는 김 주교의 끊임없는 요청을 받고 전주 사제들 피정을 이끌어 주러 갈 것입니다. 피정 지도 신부(생제 신부)가 강의 준비하는 것을 보셨어야만 합니다.

1953년(190쪽)

대전 - 교세 통계표

생제 신부는 올해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올해 모두 403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내 생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성인 영세자가 134명이고 어린이 영세자가 165명이며 저의 두 본당에서 중부성사를 받은 성인은 39명, 어린아이는 65명이 됩니다. 아마도 한국 내에서는 저보다 더 많은 결실을 얻은 선교사가 있을지는 몰라도,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전체를 들어서 이만큼 수확을 거둔 선교사는 없을 것입니다(인도차이나의 경우라면 또 모릅니다). 선교사들의 꿈인 한국이며, 만세입니다!”

1953년(573쪽)

(순교 선교사들의 장례에 대하여)

특히 논산에서 임지 창설자이며 성당과 사제관 건립자인 줄리앙 공베르 신부를 위하여 생제 신부가 장엄 미사를 드렸습니다. 공베르 형제 신부의 “선박”이며 죽마고우인 무쎬 주교와 라리보 주교가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생제 신부는 고인의 영적 아들인 박 바오로 신부와 군 사목 신부인 조 신부와 함께 창으로 대미사를 드렸습니다. 부도지사와 부시장이 그들의 상관을 대신하여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여 성당을 꽉 메우고는 오랜 세월 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본당 신부에 대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피정: 전주에서 18명의 사제와 김 바르톨로메오 주교가 생제 신부가 지도한 피정에 참가했습니다. 5명의 사제와 한국 군사목 신부들, 그리고 교수 1명이 불참했습니다. 피정 지도 신부는 겸손하게 피정의 성과에 대해서는 깊은 침묵을 지키면서도 현재 이 도시의 5,000명이나 되는 열심한 신자수의 증가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알려왔습니다.

1953년(986쪽)

생제 신부는 성 베드로의 그물에 잡힌 대어들을 알리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대어들이란 다름 아닌 부지사 부인과 그의 3명의 자녀들이며 대전 학교의 2명의 학생들입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예비자들을 배출하는 데 비해 선교사 학교치고는 너무나 빈약한 숫자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4학급에 각각 1시간씩 1주일에 여러 시간을 교리 시간으로 배당하였으니 앞으로 수확량이 많아지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1954년(467쪽)

대전 교세통계표 - 중부성사자의 수를 제외한 성인 영세자 수만을 말씀드리면,(…) 논산의 생제 신부는 106명이며(…)

1954년(672쪽)

부활절 - 회심의 움직임은 꾸준히 계속되어 성토요일에 생제 신부 본당의 성인 영세자 수는 80명이며 (...)

1954년(778쪽)

교황 대사 퀴란 주교 순회 방문 - 교황 대사가 6월에 한국 모든 교구를 순회, 방문했습니다. 6월 3일에 대사는 대전을 방문했고 5일에 전주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리보 주교가 퀴란 주교를 논산으로 모셔오면 김 주교가 생제 신부 집에서 그를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대사가 곧 도착할 거라는 소문만 들은 상태에... 토요일에 생제 신부가 면도를 하려는데 김 주교가 보좌 신부와 경리부 신부 그리고 이웃 본당인 한 대동 주임 신부를 동반하고 지프차를 타고 와서 “퀴란 주교님이 도착했습니까?” 하고 물으니, 생제 신부는 “그건 금시초문인데요?” 하자, “무슨 말씀이요! 라리보 주교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던 말이요? 라리보 주교께서 어제 우리에게 전보를 보내서 오늘 10시에 신부 집에서 퀴란 주교님을 영접하라고 알려왔는데요!” 이렇게 말을 나누는 사이에 지프차 한 대가 도착하면서 라리보 주교와 퀴란 주교가 내렸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눈 후 라리보 주교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신부에게 공연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눈발으로 나가 일하고 있는 교우들을 당장에 불러모으기란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데 다행히 바로 앞에 800명이나 되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비상 소집을 알리고 순식간에 전교생이 운동장으로 나와 연단 앞에 열을 맞추었습니다. 퀴란 주교가 연단 위로 올라가 학생들의 인사를 받고 간단히 훈화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정치 문제들은 아직 여러분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니 여러분은 공부에만 전념하세요. 평화롭게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은 복이 많은 겁니다. 나는 북쪽에서 중고등학교라곤 하나도 못 봤어요.” 퀴란 주교는 교사들과 따로 대화의 시간을 나누고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그 사이에 교장은 전주 길에 환영 인파를 준비하여 퀴란 주교는 팡파레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구경꾼들의 시선을 받으며 행렬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사제관 건축 - 논산 소식을 알리는 기회에 새 사제관 건축에 대해서 몇 마디 전하고자 합니다. 생제 신부는 3월에 콘크리트 공사를 마치고 요즘엔 시멘트 벽돌을 만드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벽돌이 8,000장인데 현재 5,000장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터키군들의 부주의로 불에 탔던 옛 사제관 보수 비용이 약속한 대로 나오지 않아 이 작업이 지체될 것 같습니다. 생제 신부는 벌써 몇 해째 이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과 부정적 대답을 반복해서 받아 왔는데, 한 미국인 담당자가 신부에게 희망적인 대답을 하면 다른 미국인은 숨통을 막아놓는 말을 하는 등, 이런 식으로 끌어오다 급기야 마지막 답변은 “터키인들이 한 짓이니 앙카라에 가서 알아보라!” 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서울 주재 프랑스 새 대사인 드페르가 벌써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군 측에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951년 1월에 미군들이 학교 책상과 의자를 뺄감으로 사용하였고 교실 창문도 찢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터키군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1954년(891쪽)

논산 - 7월 5일에 한국은 김대건 안드레아 복자 축일을 기념하였습니다. 김대건 복자는 한국 천주교회 후보 성인이시며 이곳 대건 학교의 후보성인이시기도 합니다. 생제 신부는 축일을 맞이하여 라리보 주교를 모시고 810명의 학생들에게 훈화를 청하였으며 교사 1명을 비롯하여 11명의 학생과 몇 명의 젊은이를 포함한 모두 21명에게 견진성사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교의 방문은 보다 현실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학교 증축을 위해 포교 성성에서 전해온 2,000달러 상당의 원화를 생제 신부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에 서명을 하였고, 4개의 교실이 신축될 것인데 다층 건물로 전체 목재를 사용하되 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겉에 흙을 바르기로 했습니다. 반면 사제관은 시멘트 벽돌로 짓기로 했습니다. 벽돌은 다 만들어졌으나 신경전으로 인해 공사에 여전히 차질을 가져옵니다. 미군들이 자신들의 점령 기간 동안 부주의로 태웠던 손상 비용을 보상하고

있지 않으니 말입니다!

1954년(1005쪽)

논산의 생제 신부는 교실 4개를 신축하는 학교 증축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사제관 건축만 남았는데 아직 손해 배상 비용은 받지 못했으나 그런 대로 근심을 덜게 되었습니다. 한 한국인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일까지 사제관을 완공시키기로 했는데 극심한 더위와 잦은 비로 인하여 완공이 늦추어져서 12월 1일에야 새 집들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955년(34쪽)

르메르 총장 주교의 대전 교구 순방 -(...) 이어서 꼬르데쓰 신부의 옛 임지였던 당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곳의 성당 역시 마을이 아래로 보이는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당은 일제 시대의 학교 건물이었던 벽돌 건물 성당입니다. 그곳에 합덕 본당 부설 고아원이 있는데 크고 아름다운 한국식 건물 안에서 성가회 수녀들이 40여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1955년(142쪽)

새 발령자 도착 - 4명의 새 발령자들과 그들을 인솔한 생제 신부는 선박 편으로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티켓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미국 화물선(인디언 곰 호)에 자리가 한정되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어도 세 자리밖에 얻지 못하였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 생제 신부는 노엘 신부만 우선 비행기편으로 데려왔고, 노엘 신부가 배편으로 도착하는 동료 신부들을 마중하여 인도하였습니다. 새로 온 사제들을 환영하며 그들이 오랫동안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생제 신부가 새로 발령받은 사제들의 길잡이로 일본까지 갔던 것은 도쿄의 생 모르 수녀원에 있는 생제 신부의 누이가 생제 신부의 방문을 간절히 원하여서 총장 주교님께 부탁을 드린 까닭입니다.

1955년(239쪽)

성탄 축일 - 올해 생제 신부 본당의 성인 영세자 수는 138명이며,(...)

1955년(633쪽)

논산 - 부활 주간 화요일에 생제 신부는 그의 새 사제관으로 입주했습니다. 그는 튼튼한 새 집에 드디어 정착하게 되어 매우 기뻐했으며 그동안 겪었던 수고와 근심을 일순간 잊었습니다. 옛 사제관이 그곳에 머물렀던 터키군의 부주의로 불타는 바람에 신부는 터키군이 속해 있던 미8군으로부터 배상을 받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쪽으로부터 한번은 긍정적인 답변을 그 다음 번엔 부정적인 답변을 받는 등, 이런 식으로 3년을 끌어오다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공사를 맡은 업자가 계약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하여 9월 1일에 완공되기로 했던 사제관이 실베스테르 성인 축일에 맞춰 완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집 짓는 자는 꿀탕을 먹는다” 라는 속담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 큰 소릴 쳐놓고 얼마 안 가서 나가떨어지면 그만인 것입니다!

1955년(635쪽)

생제 신부 또한 큰 사제관을 지었으므로(이에 대한 소식은 위에서 언급했음) 시에라장(Sieradzan) 신부를 그의 곁으로 보내 제제구(Jezegou) 신부를 동반하도록 했습니다.

1955년(772쪽)

논산에서의 성체 거동은 더욱 장관이었습니다. 생제 신부는 행렬에 참석한 신자와 비신자 수를 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60,000명의 신병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소의 길이 한 시간 동안이나 통제될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광경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을 것이며 어느 사회단체나 종교단체도 행렬에 그만큼의 인원을 동원시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 9명의 사제들이 참석했는

데, 생제 신부를 비롯하여 그의 두 새 사제인 제제구 신부와 시에라장 신부, 대전에서 주교 대리로 달려 온 뒤풍 신부, 이웃의 베르몽 신부, 교구 북동지구에서 내려온 프로망투 신부, 금사리의 김 타대오 신부 등 모두 우리 선교회 신부들과 그 외 나바위의 김 신부와 안태동의 송 신부 그리고 리리(Riri) 대표단 1명 등이 이웃 전주 교구를 대표하여 참석했습니다.

1955년(896쪽)

어느 교사의 무신론 - 논산 초등학교 5학년을 맡고 있는 한 교사가 수업시간에 하느님(그는 프로테스탄트 용어를 써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답니다. 신자인 학생들이 생제 신부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신부는 다음 주일에 어린이 미사 강론에서 나이 어린 성인들, 아녜스 성녀와 브냥 성인, 유 베드로 복자와 공산 정권하에 있는 중국의 어린이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신부는 어린이들에게 결론을 내리며 “만일 어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하느님은(신부는 ‘천주’라고 말하며)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자인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하느님은 계시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신부는 그렇다고 말하며 그러한 모독을 듣고도 침묵한다는 것은 비겁한 행위이며 하느님께 욕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사는 애국심이 없는 사람으로 비난받아 마땅한데 왜냐하면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라고 하지 않느냐고, 그러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가 만세!” 라고 했습니다.

1955년(1078쪽)

논산 - 논산은 마리아의 해를 맞이하여 성모상을 세우지 못한 본당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국인 대령이 마침 논산을 지나가다 성모상 건립 기부금으로 50,000환을 생제 신부에게 내놓았습니다. 타지방 사람의 이러한 성의 앞에서 논산 교우들은 체면을 잃은지라 체면을 다시 세우려고 교구 내 어떤 성당의 성모상보다 더 좋은 성모상을 세우겠다고 대구의 성모상처럼 (크기는 좀 작지만) 루르드 동굴의 성모상과 같은 것을 세우기 위해 500,000환(약 250,000프랑)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성모상은 성당 건립자이며 1950년 11월 초에 공산군의 총살로 순교하신 줄리앙 공베르 신부를 기념하여 세워질 것입니다.

생제 신부는 UN연합군으로부터 한국 재건을 위해 양로원 건축비 2,000달러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가 이미 받아들인 무의탁 노인 6명이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로원 건축은 내년 봄에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신부는 사제관 근처 야산 위에 건물을 세워 학교를 증축할 생각이었습니다. 땅을 고르도록 부대에서 불도저를 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불도저를 얻지 못하였으니 학교 증축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부의 근심도 좀 덜은 셈입니다. 10월 15일에 그의 학생들은 산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학생들에게 가파른 절벽 위로는 올라가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렸건만 이러한 금지는 어떤 학생들에게엔 염소를 유혹하는 향긋한 독초 같은 효과를 내는 법이어서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건너뛰며 놀다가 한 학생이 다리를 헛디더 허공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언제나 금지된 과일이 문제입니다.

11월은 가을 공소방문이 시작됩니다. 생제 신부는 제제구 신부와 시에라장 신부가 각각 6개의 공소를 방문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956년(159쪽)

논산에서는 생제 신부가 루르드 동굴의 성모상 건립을 신속하게 시작하였습니다. 성모상은 대구의 성모상보다 크기는 작으나 모양은 흡사하며 성모상 위에 “하늘과 땅의 여왕” 이라고 새겨 넣었으며 또한 “착한 목자는 그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라는 문구와 함께 기념비를 세워 성당 건립자이며 공산군에 의해 순교하신 줄리앙 공베르 신부를 기념하였습니다.

라리보 주교는 성모 무염 시대 축일에 동굴과 성모상을 강복했으며 코요 신부가 즉흥적인 강론을 했습니다. 코요 신부는 공베르 신부와 함께 포로로 끌려간 5명의 프랑스 신부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로서 그때의 순교 현장을 생생하게 증언하였는데 땅이 얼어붙었기에 자갈 더미에 묻혀야 했던 철저한 고독 속에서 죽어간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사에 참석한 이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교는 모두 110명에게 견진을 주었는데 그중 30명은 전날에 영세를 받은 신입교우들이었습니다. 그중에는 중국여자도 한 명 있고, 이젠 너무 늙어 승려 생활을 그만두고 생제 신부의 양로원에 들어와 있는 84세의 비구니와 대건학교 학생 15명이 있습니다. 생제 신부는 성탄절 때 10여 명에게 세례를 더 베풀 예정입니다.

1956년(263쪽)

교세통계표 - 논산의 생제 신부는 115명의 영세자(...)

영성체자 수는 33,123명이며 고해성사자 수는 12,900명입니다. 마리아의 해인 작년에 비하면 약간 감소된 숫자이지만 전교의 움직임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여전히 진전되는 상태입니다.

1956년(455쪽)

예산 본당은 올 봄부터 4곳의 교우촌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중 삼교는 읍에서 10km 떨어져 기차역과 마을이 있는 교우촌인데 15년 전만 해도 이곳엔 교우촌이 없었습니다. 현재의 공소회장이 안면도에서 이사오면서 교리도 많이 배웠고 열심히 그의 처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8명의 자녀 가운데 2명이 신학교에 들어갔고 딸 하나는 성가회 수녀원에 입회하였습니다.

( ..... )

1956년(457쪽)

논산 본당의 생제 신부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올 봄부터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당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1956년(551쪽)

부활절 - ( ..... ) 올해의 월계관은 71명의 영세자를 낸 생제 신부에게 돌아갔습니다.

1956년(776쪽)

주님 축일 - ( ..... ) 논산의 생제 신부는 올해 성체 행렬을 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축일이 첫 주일에 걸리는 바람에, 이날은 인근 부대에서 매일 한 번씩 일반인에게 부대를 공개하는 날이라 수 천명에 달하는 인파가 버스, 지프, 트럭 등을 이용하여 몰려오므로 도로를 꽉 메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렬을 위해 1시간씩 도로를 통제해 달라고 경찰에게 부탁하겠습니까? 그러나 신부는 그의 계획대로 밀고 나갔고 행렬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했느냐구요? 그건 아직도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필자가 아는 거라곤 다만, 행렬은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을 이루었다는 것뿐입니다. 행렬이 있던 뒤에 오후에는 전례대로 배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1956년(885쪽)

임지 변동 - 생제 신부 본당에 있던 시에라장 신부는 노엘 신부가 있었던 예산 본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1956년(990쪽)

(무췌 주교의 80회 생일 축하 연회에서) 생제 신부는 부지부장의 자격으로 동료들을 대표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1956년(1067쪽)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라리보 주교는 논산, 금사리, 장항, 구암 그리고 강경 본당들을 순방하였습니다.

논산에서는 양로원과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생제 신부의 신축 교사를 강복하였습니다. 생제 신부는 그동안 끊겼던 교사 신축 지원 물자를 UNKRA(한·미연합재건사)로부터 시멘트와 목재 등의 미제 자재들을 받았고 교황청 포교성으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드디어 받아서 목재 건물 외벽에 흙을 발라 견고한 전통 양식의 교사를 신축하였습니다. 벽돌 두 겹에 벽돌 반 장 두께의 시멘트를 바른 벽은 다분히 견고함의 한계를 넘어 마치 수세기에 맞서 영구 보존할 목적으로 지은 듯합니다. 다층으로 된 이 아름다운 건물은 남향을 바라보며 산허리에 심어진 나무처럼 보입니다. 신축 교사는 창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6개의 큰 교실로 되어 있어 6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계도 완성판의 1/4에 지나지 않는답니다. 아직도 할 일이 태산같이 남았는데 성당이 너무 비좁아 꾸준히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 400명이 앉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바실리카식 대성당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비자들이 끊임없이 와서 문을 두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비자들은 다행히도 본당 구역 내 주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신도안 주민들이 예비자가 되겠다고 “위협” 하고 있습니다.

1957년(254쪽)

1월 초에 생제 신부는 그가 창설한 성가회 수녀들에게 피정을 지도하고자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신부는 수녀들에게 천상의 보물을 얻게 하기 위해 새로운 열정에 불을 당겨주는 데는 성공했으나 지상의 보물을 완전히 포기하는 법은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예로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밤중에 수녀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수녀들은 즉시 비상종을 쳐서 수녀원 전체가 전투태세를 갖추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수녀들은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도둑이 도망을 못 가도록 길을 막고 포위해서 복도에 있던 의자며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서 도둑을 때렸다고 합니다. 거의 반죽음이 되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도둑을 경찰이 와서 데려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과 다음날 아침 묵상 시간 내내 용감한 수녀들의 영혼은 죄책감에 시달려서 지도 신부에게 “도둑을 때린 것이 죄가 됩니까?”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1957년(540쪽)

사순시기 공소방문 - 생제 신부는 현재 26개 공소를 두어서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3월이면 27개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는 불량 신부를 보좌 신부로 두어서 아직은 눈에 덮인 도로와 산길을 그에게 맡길 수 있고, 둘이서 하는 일이니 일도 두 배로 빨리 진척되기 때문입니다.

1957년(627쪽)

베르몽 신부는 금강 너머 지역의 3곳의 큰 읍 주민들의 개종으로 인해 벌써 400명이 넘는 예비자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개종의 움직임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는 언변이 좋은 이웃 생제 신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1957년(629쪽)

폴로뉴(Cologne)의 프랭(Frings) 추기경은 한국을 방문하여 성가회를 방문하였습니다.

( ..... )

피정 후 라리보 주교는 장면씨 집에 초대되었는데, 이때 그의 부인은 생제 신부도 초대하였습니다. 생제 신부는 예전에 서울의 백동 성당 주임 신부로 있을 때 그 가족들의 본당 신부였기 때문입니다.

1957년(631쪽)

논산의 생제 신부는 갈매울 교우촌을 위해 큰 성당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는 신도안에도 성당 하나를 건축할 계획인데, 그곳에 50명의 신입교우와 수많은 예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모일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분간은 전교회장 한 명을 그곳으로 파견하여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부는 미래의 성전 건축부지로 군부대의 못 쓰는 넓은 땅을 싼값으로 매입하였습니다.

1957년(752쪽)

무췌 주교의 장례 미사에서 생제 신부는 파리의방전교회를 대표하여 강론을 하였습니다.

1957년(755쪽)

무췌 주교의 장례미사에서 생제 신부는 한국 부지부장으로서 동료 사제들을 대표하여 고인에게 마지막 예의를 표했습니다.

1958년(171쪽)

1957년 교세통계표 - 생제 신부는 필자에게 성탄 인사와 함께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신부님 본당은 영세자가 너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영세자가 너무 많아) 정말이지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거절할 방법도 없고 손쉽게 영적 피임을 해야 될 판입니다.” 생제 신부는 올해 성인 영세자 수가 300명이 넘으며, 필자는 400명이 넘고 제제구 신부는 600명 가량 됩니다.

1958년(1081쪽)

대구, 9월 8일 - 생 빨 수녀원 피정 지도를 위해 논산에서 대구에 온 생제 신부는 피정 후 급히 포항과 송정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루 반밖에 여유가 없었으므로 그곳 방문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는 부지부장이므로 관할의 동료 신부들의 정황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1958년(249쪽)

1월 21일 - 논산의 생제 신부는 성인 영세자가 323명이며, 공주의 파이에 신부는 35명이고( …… )

1958년(450쪽)

(3월 19일에 서울 대성당에서 6명의 새로운 사제가 신품을 받았습니다. 그날 서품식을 위해) 생제 신부는 김 바오로의 서품식을 위해 참가했는데, 김 바오로는 어느 순교자 복자의 증손자이며 생제 신부가 백동 본당 신부로 있을 때 신학교로 보냈던 사람입니다.

( …… )

1958년(451쪽)

생제 신부는 라리보 주교의 힘을 얻어 부대 주위로 형성되는 신흥 도시의 주민들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목으로 발령된 새 사제들은 많은 교우 군인들을 돌보면서 아울러 새 본당의 기초를 닦을 것입니다.

1958년(538쪽)

봄 공소 방문과 부활 축일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 ) 논산의 생제 신부는 그의 성과에 대해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웃 베르몽 신부의 말에 의하면 생제 신부는 200 내지 300명의 성인 영세자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1958년(745쪽)

(모라(Mora) 신부의 대전 교구 순방 중) 논산을 방문하여 생제 신부의 대전 중고등학교 건물과 800명의 학생을 만나고

( …… )

생제 신부는 내부에 기둥을 심지 않고 20미터 폭의 큰 성당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땅 고르는 작업은 이미 거의 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기초 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1958년(841쪽)

(6월에 새 지부장, 알레(Haller) 신부의 대전 교구 순방) - 6월 21일에 논산의 부지부장 생제 신부를 방문하고,( ..... )

1958년(1054쪽)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라리보 주교는 대전 교구를 순방하셨습니다 ...) 생제 신부는 논산 부대에 인접한 새 공소, 마산에 2층 건물을 막 완공하셨습니다. 1층은 사제관으로 2층은 임시 성당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곳의 교우 수가 1,000명을 넘을 경우 본당으로 승격되고 새로운 본당 신부를 맞아 생제 신부의 30여 공소 중 몇 곳을 떠맡아 생제 신부의 일을 덜어줄 것입니다.

1959년(66쪽)

(코요 신부의 50주년 금경축 축하연에서) 생제 신부는 코요 신부가 걸어온 지난날의 행적을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시를 지어 우렁찬 목소리로 낭독하셨습니다.

( ..... )

생제 신부는 부대 근처의 마산에 새 성전 건립의 완공을 보는 기쁨을 얻었는데, 이 성당은 새 본당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주교는 서 도미니코 신부를 새 본당 신부로 임명하여 근처의 10군데 공소를 함께 맡겼습니다. 따라서 생제 신부에게는 이제 20곳의 공소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제 신부는 분명히 10년도 채 못 되어서 다시 30곳의 공소를 만들 것이며 그러면 또다시 분할해야 할 것입니다.

1959년(257쪽)

교세통계표 - 논산의 생제 신부는 혼자서 1,200명의 고해를 들었고 예비자들의 교리 문답을 치렀습니다. 그는 성탄절에 47명의 성인 영세자를 내어 올 한 해 총 395명의 성인 영세자가 나왔는데, 400명을 못 채워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1959년(530쪽)

생제 신부의 학교는 불행지에서 그리 빛나지 못했었는데, 학교는 그에게 걱정거리가 되었던 만큼 보상도 따랐습니다. 3월 학년말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모두 졸업장을 취득했습니다(한국에서는 모두에게 졸업장을 줍니다). 그러나 더욱 주목할 만한 일은 대학 합격률이 평균 50%인데 반해 그의 학생 25명이 전원 대학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건학교 졸업생 한 명이 대전에서는 수석이며 한국 전체에서는 3등을 하는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 ..... )

지금은 전쟁 공백시기의 여파로 지방 학교의 신입생 진학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더욱이 모든 학교가 학생들을 끌어들이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비싼 입학금(학교 명성에 따라 100,000환부터 40,000환까지 이릅니다)과 매달 기성회비로 생존해 나가므로 입학금이 없거나 저조하면 그만큼 교사 월급을 비롯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생제 신부의 이웃 학교인 농업 국립학교가 입학금을 내리는 바람에 신부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선 입학금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중등부에 225명이, 고등부에 110명이 새로 입학하여 중등부엔 총 465명, 고등부엔 33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것도 학생들이 매달 기성회비를 제대로 납부하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1959년(724쪽)

마르탱 신부는 논산의 생제 신부 곁을 떠나, 서산의 올리비에 신부에게로 이동함으로써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언어를 익히는 과정에 있는 그에게는 벌써 한국말에 능통한 올리비에 신부 곁이 훌륭한 배움터가 될 것입니다.



1959년(858쪽)

(8월 성모 승천 축일 후 교세 통계) - 구티에레(Gutierrez) 신부가 논산에 와서 혼자 사목일을 하는 생제 신부를 도왔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 전 날에 논산의 생제 신부는 28명에게 영세를 주었으며...

1959년(859쪽)

논산의 생제 신부는 8월 14일과 15일 이틀 저녁 시간에 영사기를 돌렸습니다. 대건학교 교리교사인 김태대오가 나레이션을 작성하여 녹음기에 녹음을 해 넣었습니다. 로마와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에 관한 필름을 2편 돌렸고, 컬러로 된 그림 동화 3편을 돌렸습니다. 대사가 몇 번 음악보다 앞서 나와 마치 연극을 보는 듯했습니다만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동작이 없었을 뿐 마치 유성 영화를 보는 듯했습니다. 첫날 저녁에는 예비자 교리반에서 영사기를 돌렸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자리가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은 운동장에서 돌렸는데 그때 역시 운동장이 비좁을 정도였습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기와가 깨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호응을 얻는 것을 보고 생제 신부는 “모든 공소에다 이것을 보여주어야겠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계획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생제 신부는 그가 창설한 성가회 수녀원 피정을 위해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성가회는 진정한 희생 정신과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녀원 건물은 10배나 늘려야 할 정도로 좁은 상태입니다. 수녀들은 도서실과 강의실 책상 위 그리고 책상 밑에서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이라 입회를 원하는 60명의 지원자 가운데 8명만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 강(Caen)에 페스트가 돌 무렵 페스트 환자들이 시내에서 따로 격리되어 있을 때, 성 요한 외드(St. Jean EUDES)께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영적 지도를 해줄 때에도 수도원의 면담실이며 공동침실, 도서실 등이 모두 침실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때는 성가회에 비하면 훨씬 넓은 편이었습니다.

1959년(964쪽)

우리의 구티에레(Gutierrez), 로페페(Lop렛?), 두 “학생” 신부들은 뒤퐁(Dupont) 신부로부터 성실히 배웠습니다. 로페페 신부는 논산의 생제 신부에게, 구티에레 신부는 천안의 코요 신부에게 갈 것입니다.

1959년(968쪽)

대구의 들랑드(Deslandes) 신부 본당에 9월 14일 - 생제 신부는 피정 지도 신부로 8일 전부터 와 있었습니다.

1960년(170쪽)

올해 젊은 신부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본당 신부들을 도왔습니다. 논산의 생제 신부는 자동차도 없이 자전거로, 그의 보좌인 로페페 신부는 오토바이로 사목활동을 했습니다.

1960년(454쪽)

2월 16일에 라리보 주교는 논산을 방문하여 생제 신부의 새 성전 초석을 축성하였습니다. 신부는 이미 튼튼한 기초공사를 해놓고 거기에 성당을 세우고 있습니다.

( ..... )

논산의 생제 신부는 교사를 증축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벽만 세워놓고 지붕도 일부분만 해놓은 상태라 1/3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내고, 1/3은 반만 되어 있는 상태이며 1/3은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계획의 반밖에 미치지 않은 것입니다.

1960년(632쪽)

7월 7일에 생제 신부의 사제서품 25주년 은경축을 기념했습니다. 이날 많은 동료 신부들이 논산에 참석했지만, 장마철이라 길이 끊기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한 동료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부지부장으로 서, 지부장 알레 신부가 현재 부재중인 관계로 지부장 역할도 대행하고 있는 생제 신부를 축하해 주었

습니다. 그의 이웃인 베르몽 신부는 강론 때 생제 신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신부는 형제가 많고(아들이 셋에 딸이 여섯입니다)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며 누이 두 명은 수녀원에 입회하였는데 그중 하나는 도쿄에 있는 생 모르 성모회(Dames de St - Maur)에 있습니다

생제 신부는, 1950년 빨갱이들 손에 순교하신 우리의 12명의 순교자 가운데 한 분이신 합덕의 페랭 신부의 보좌 신부로서 사목직을 시작하였습니다. 생제 신부에게 사도직의 청빈함을 심어 준 이도 바로 페랭 신부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내 집에는 포도주도 없고 고기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드시고 싶으면 신부님의 돈으로 사서 드세요” 이것이 본당 신부의 환영사였습니다. 페랭 신부는 보좌 신부를 공소순방 때 동행시켜 예비자 교육, 교리 교육 등 모든 사목활동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경험은 생제 신부가 서울의 백동 성당 같은 큰 본당 주임사제로 일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이제는 당신께서 젊은 보좌 신부들을 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부의 곁을 거쳐간 보좌 신부는 13명에 이릅니다(이는 주교님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다는 증거이며 신부의 성격이 까다롭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백동 본당 시절 생제 신부의 신자들 가운데 고위 관료층도 여럿 있었는데, 예를 들어 장면(요한)은 국무총리였으며 후에 부통령이 되어서도 생제 신부와 각별한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생제 신부는 가난하고 작은 이들도 외면하지 않아서 그들의 집을 덜어 주고자 성가수녀회를 창설했고 이 성가회는 오늘날 번창하고 있습니다. 1948년에 대전 지역이 파리의방전교회에 맡겨졌을 때 생제 신부는 논산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중고등학교를 굳건하게 성장시켰습니다. 1950년에 빨갱이들이 학교 건물 반을 파괴했으며 51년 1월에는 터키군들이 부주의로 사제관을 태웠습니다. 그로부터 석달 후 생제 신부는 다시 학교를 세우고(900명의 학생) 증축했으며, 사제관을 새로 지었고 아직 미완성 상태이지만 두 번째 학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사이에 유치원을 창설하여 100명이 넘는 원아들이 샬트르 성 바오로회 수녀들의 모성적 보호 아래서 뛰어 놀고 있으며, 또한 여러 채의 집을 지어 버려진 무의탁 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교우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초창기의 1,800명에 비해 현재 3,800명에 이릅니다) 현재 큰 성당을 건축하고 있으나 이제 기초공사만 마친 상태입니다. 평소에 칭찬에 인색한 라리보 주교도 “진정으로 생제 신부야말로 좋은 목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1960년(932쪽)

“본당 신부들은 자기 본당에만 박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글귀를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베르몽 신부와 생제 신부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연로하신 베르몽 신부는 열심한 본당 교우들을 이끌고 이 지역의 후보이신 루르드 성모님의 축일을 기념하기 위해 논산으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생제 신부는 그에게 예의를 갖추어 맞이했고 강경에서 온 100여 명의 교우들을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성심 앞으로 인도하여 성모 승천 대축일 후 8일째의 날을 맞아 성모님께 봉헌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베르몽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는 동안 논산 본당 성가대가 성가를 불렀습니다. 모두들 경건하게 성체를 모셨고 성체 강복으로써 순례를 마쳤습니다. 이는 가까운 이웃 본당들에게 권장할 만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강경의 경찰서장이 베르몽 신부를 찾아와 청했습니다. “우리 직원 경찰들이 도무지 아는 것도 없고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도 부족합니다. 천주교와 프로테스탄트의 차이점을 알기를 원하며 종교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얻고 싶습니다. 신부님께서 한 달 동안 매주 한 번씩 저희 경찰서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다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베르몽 신부가 이에 “서장님의 생각은 옳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 늙었고 귀가 어두워서 질문 내용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형편이니 이웃 논산의 생제 신부께서 서장님의 청을 기꺼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월 8일 목요일에 생제 신부는 학교 교감을 동반하여 강경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거기에는 70여 명의 경찰들과 프로테스탄트 목사 몇 명을 비롯한 일반인 12명 정도가 와 있었습니다. 생제 신부와 교감은 각각 30분씩 강의를 맡았고 후에 생제 신부는 따로 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호교론을 펼치며 브라만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 주요 종교들을 비교하여 강론을 하였습니다. 유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므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교감이 프로테스탄트에 관해 강의했고 생제 신부는 교황에 관해 설명하면서 교황은 우리 주님께서 유일한 진리인 성교회를 맡기신 베드로 성인의 후계자임을 강의했습니다. 강의는

성공적이었고 경찰들은 주의 깊게 들으면서 가끔 동의를 표하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1961년(221쪽)

1월 20일 - 성탄 대축일 고해성사자 수는 논산의 경우 1,300명이고( …… )

성탄 대축일 영세자 수는 예년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19명으로, 1년 총 영세자 수는 123명입니다.

1961년(570쪽)

논산의 생제 신부 본당에 도착했을 때 무엇보다 건축공사가 주요 화제였습니다. 께기네(Queguiner) 신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제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제 신부의 손에 이끌려 골조를 올리기 시작한 성당과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한식으로 지은 교사 측면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양로원도 둘러 보았습니다.

1961년(924쪽)

지난 10월 11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은 또한 논산 본당의 경축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라리보 주교는 생제 신부가 루르드 성모님께 봉헌하며 지은 새 성전을 장엄하게 축성하였습니다. 그 전날 주교는 2시간 반에 걸친 축성식을 통해 맑게 빛나는 화강암 제대 세 개를 축성하였습니다. 중앙 제대는 그 단순함과 크기로 주목할 만합니다. 길이가 거의 3미터나 되는 한 덩어리의 돌이 8개의 기둥 위로 놓여 있는데 각각의 기둥들은 예술적으로 정교하게 조각되어서 양끝에 4개씩 한데 모아져 받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동으로 된 소박한 감실과 양쪽에 3개씩 놓여진 촛대가 성당 내부의 장식입니다. 제대는 지극히 세련되어 보인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콘스탄티노플 후의 성체를 모시지 않던 초대 교회 때의 제대처럼 골동품 분위기도 풍기는가 봅니다. 고고학에 심취한 젊은이들 마음에는 흠족하지만 간결하고 장식이 일체 없는 양식을 감상할 줄 모르는 대부분의 옛 교우들 마음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교육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할까요!

중앙 제대는 성당 중앙으로부터 화강암 계단 세 개를 올린 높이에 놓여졌습니다. 생제 신부는 이 계단 세 개를 놓는 데 수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애당초 그에게 초록빛이 나는 얇은 화강암 판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제대판으로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 크기에 맞춰 자를 때마다 세 번씩이나 번번이 조각 나는 바람에 결국 인근 채석장에서 제대판으로 쓸 화강암을 사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강난 세 조각은 계단에 사용했습니다. 건축에서 나머지 자재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기술이지요.

양측 성가대석 바닥에 놓여진 소제대는 1m 60cm의 크기에 단순하고 조출한 모양의 돌 제대입니다.

양측 성가대석에는 빨간 벽돌로 세 개의 사제석을 만들었는데 중앙석은 주교석으로 더 넓고 높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라리보 주교와 청주교구의 한 주교가 와서 주교 집전 미사 때에 그 자리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가대석 뒤쪽으로 제의실과 또 하나의 커다란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16m 넓이에 아무것도 없으므로 생제 신부는 제대 뒤쪽으로 빨간 벽돌로 쌓아 올려 경계를 지어 따뜻한 네모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쪽으로 지붕에 닿게 색유리를 끼워 넣었는데, 색유리는 마싸비엘 바위에서 벨라렛다 성녀에게 발현하신 성모님을 그린 것입니다. 이 유리는 그르노블의 색유리 작가가 프랑스에 있는 신부의 본당을 통해 생제 신부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 …… )

이제 어느 동료 사제의 말대로 “모국 바실리카”를 축성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교구의 거의 모든 사제들이 참석하였고 서울에서 4명의 사제가 내려와 한(Han) 주교는 그의 교구 사제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명의 주교와 45명의 사제가 참석하였습니다. 축성이 끝난 후 주교 집전 장엄미사가 있었는데 로페페 보좌 신부의 지도 아래 한 달간 연습한 성가대의 성가와 보좌 신부가 부른 맑고 섬세한 그레고리안 미사곡으로 미사는 한결 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교우가 성체를 모셨으며 두 사제가 주교의 손을 도와주었습니다.

미사 후 공식적인 축하연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악단이 북을 치며 축하연을 시작하였습니다. 아가지아니 양(Agagianian) 추기경의 축하 전보를 시작으로 한국 모든 교구에서 보내온 축전들을 읽었고 그중에는

특히 이날 마침 교황대사의 공식 방문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이웃 안동 지역의 동료 사제들의 축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교회장을 비롯해 도지사, 라리보 주교, 한 주교, 생제 신부 등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한국 풍습에 따라 꽃다발과 선물 증정식이 있는 후 생제 신부는 공로자들에게 상장과 상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베들레헴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동안 마을의 새 교우 여인에게는 아무 상도 돌아가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100,000환을 기부금으로 내놓으며 “신부님, 이 봉헌금으로 성당 문을 다 십시오. 대신 주님께서 저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고 하며 익명으로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성서에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자선을 행할 때는 나팔을 불지 않도록 해라” 하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일은 한국에선 드문 일입니다.

## 2) 에코스(ECHOS: 파리외방전교회에서 간행한 잡지)

### 에코스 2 N.7, 1968년

대전을 떠나 기차와 버스로 몇 시간을 가면 홍산 생제 신부(58세)의 본당에 이릅니다. 수녀원을 창설했고 논산 본당에서 여러 해를 활동했던 생제 신부는 현재 작은 본당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의 열성으로 예비자들이 몰려와 신부는 많은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전례, 교리문답 교육 등을 새롭게 만들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 에코스 2 N.14, 1968년

현재 사도직을 행하는 선교사 가운데 세 번째로 연로한 생제 신부는 최근에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성가회에서 드디어 창설자를 기억하고 그에게 연례 피정 지도를 의뢰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복 더위에 22회의 강론을 했습니다.

그의 본당인 홍산은 650명의 교우가 있는 본당에서 200명의 예비자가 나오는 주목할 만한 곳입니다.

### 에코스 2 N.46, 1970년

생제 신부 역시 대전을 떠났습니다. 그는 1945년에서 48년 사이에 서울에 성가회 수녀원을 창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수녀회의 책임자 자리를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지혜롭게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1969년에 홍산 본당 주임시절 수녀들은 그를 곁에 모시고 싶다고 알려왔습니다. 1970년 1월에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녀회의 지도 신부로서 생제 신부는 수녀들의 영적 고해신부이며 지도 신부였을 뿐만 아니라 성서를 가르치는 교수였으니, 그는 당연히 수녀들에게 성서 교육의 중요함을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초보자이면서 수녀들에게 시청각 교육 방법과 악기연주를 시도하게 하여 다수의 수녀들이 지금은 기타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생제 신부는 3년 전 10,000권을 발행하여 시중에 내놓았던 성가집을 재출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00권을 발간할 예정이며 그렇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수의 사람들이 전례에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생제 신부는 이미 수년 전에 성가와 계응으로 구성된 소미사책을 출간하여 큰 성과를 얻음으로써 한국 교회에 대단히 큰 봉사를 하였던 사실을 기억합니까?

### 에코스 2, N.51

서울의 성가회 지도 신부로 있는 생제 신부가 보내온 편지입니다.

“우선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문제라서 처음에는 무력감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질문했을 때 수녀들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시골서 젊은이들이 처음 서울에 올라오면 본당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그들이 당면하는 시급한 문제는 거처와 일자리를 찾는 것인데, 그들은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기에 무척 어렵다는 점이며
- 본당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도움을 청하면 귀찮게 구걸하는 사람 취급을 받을까 봐 본당에 나가길 꺼린다는 것이고

- 성당에서 너무 돈타령을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도 이 같은 점을 지적하기도 하며
- 결론적으로 서울로 올라오는 젊은이들은 대체적으로 믿음이 약하고 생활이 불안정하며 미래의 삶에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고향을 떠나기 전에 그들을 만나서 붙잡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들에게 직면할 애로사항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최소한 서울의 친척이나 친구 집에 보름간 머물면서 상황을 살펴보도록 충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는 도시 측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1. 본당 수를 늘려야 합니다. 어쨌든 본당은 도시 유입자들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본당은 아직 중류층이며 교우 공동체여야 하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 정신이 투철한 주임 신부가 있어야 합니다.
2. 좀더 인간적인 대우로 봉사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특히 이 점이 상처를 주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캠페인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3. 모든 이들을 다 접촉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 젊은이들 중 몇 명이라도 접촉하는 개별적인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활동은 이미 몇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살레시오회와 성가회 수녀들이 버스 차장들을 돌보고 있는데 차장들은 거의 시골에서 올라온 처녀들입니다. 수녀 한 명이 일 주일에 4시간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하여 가르치고 있으며, 또 한 명은 버스 역 근처 집에서 밤을 새우는 차장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A·F·I 수녀 한 명과 서울의 5명의 사제가 역시 봉사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봉사 활동에서 직면하는 모든 애로 사항들을 전담할 기관도 있어야 합니다.

에코스 2, N.139, 1980년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생제 신부는 국가공로기사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에코스 2, N.175, 1983년

생제 신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창설한 성가회 지도 신부로 부임한 지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성가회는 현재 350명의 수녀들이 있습니다. 매년 30여 명의 지원자들이 들어옵니다.

### 3) 에피파니(EPIPHANIE)

에피파니 1963년

M·E·P 성재덕 신부(한국 대전교구) 기고문

성인 대상 연말 참고

독창적 교육 방법

1962년 가을에 서울에서 예년과 다름없이 모든 교구를 대상으로 교리 경시대회를 개최하였다. 어린 아이, 학생, 교사,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 각층에서 2,400명의 지원자가 경시대회에 응모했다. 가톨릭 신자로서 이러한 유형의 필기 시험에 이토록 응시하는 현상을 전 세계를 통틀어 한국 외에 또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있을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곳, 한국에서는 이 참고가 전통이며 공식적인 것이다. 한국 교구 지침서는 어린아이와 성인들, 모든 열심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연례 참고할 것을 요구한다(한국 교구 교회법규 조항 제10조 의거한다).

이는 한국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19세기 초, 첫 선교사들은 개종한 선비(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의 한시 형식으로 장문의 사도신경(크레도)을 시조로 지어 놓았다(주: 내가 여러 번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시조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데만도 반시간은 족히 걸린다. 나의 본당 교우들 중에 몇몇은 아직도 그것을 암송하고 있는데, 이 시조는 “옛 시조”라 암송 중간에 중단할 수 없다).

그 후 피의 박해가 일어나고 서울의 교우들은 피신하여 버려진 부락에 숨어 살 수밖에 없었고 사제와 기도서들을 접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시조 암송이 그들의 신앙 양식이 되었고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종교의 평화 시기를 되찾았을 무렵, 즉 1880년경 포교가 자유롭게 전해질 무렵에도 포교의 수단으로 여전히 교우들의 암기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교우들은 사망에 흠어져 있고 선교사는 일 년에 겨우 한두 번 정도 교우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10가지의 교리문답을 실은 소교리 책을 꾸며서 교우들이 그 내용을 전부 암기하도록 하여다 같이 암송하고 자녀들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비록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초 입문서에 버금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최초의 교리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내었다. 즉 어린이와 예비자들의 입문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이와 계층을 떠나 모든 열심한 신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현장처럼 남게 되었다. 드디어 그들이 그들 언어로 된 성서를 갖추게 되고 주일 미사용 강론 모음집을 갖추게 되는 날이 왔다. 그래도 그들을 이방인들의 우화와 미신 속에서 보호해 준 것은 꾸준히 학습되고 암송되어온 바로 이 소박한 양식의 교리서이며, 이것은 그들을 믿음의 증거자로서 조명해주고 여러 세대에 걸쳐 가톨릭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선교사가 공소를 방문할 때면 일단 찰고를 마친 후에 성사를 주게 되었다. 이것이 연례 교리 찰고의 기원이며 의미이다. 즉 실천 강령(redditio symboli)으로서 세례를 받기 전 예비자들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은 모든 성인 교우들도 일 년에 한 번 다른 성사를 받기 전에 거쳐야 할 필수적인 것이다.

이 실천은 오늘날에도 규율로 남아 있다. 사제는 일 년에 두 번, 성탄 전과 사순시기 동안 공소를 순방한다. 공소 교우들에게 사제 방문은 하나의 사건이다. 전 교우가 손에서 일을 놓고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사제가 오는 길까지 마중 나온다. 그리고 사제를 둘러싸고 잔치를 벌이고 사제를 단 한 순간도 혼자 놔두지 않는다. 사제 방문은 찰고를 시작으로 하여 방문기간 내내 즐겁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이루어진다. 수계하는 교우수 비율이 80-90%에 이르므로 사제는 고해실과 강론대, 제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 고해를 보고 성체를 모실 교우들을 한 사람씩 찰고해야 한다. 어린 아이들은 사순시기 동안에, 그리고 성인들과 사순시기를 놓친 어린아이들은 대림절 기간에 찰고를 받는다(주: 현재 나의 공소에 흠어져 있는 교우수는 3,000명이며 2,000명에 가까운 교우들이 찰고를 받기 때문에 성탄 전에 찰고를 끝내기 위해서는 모든 성인의 날부터 찰고를 시작하여야 한다).

찰고 내용은 기도문과 교리를 포함한다. 그렇다고 교리서에 있는 320개의 문답을 모두가 외워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 노인들이나 특별히 머리가 우둔한 사람들은 76개 문항을 찰고 받는다. 첫영성체를 한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들은 15문항을 찰고 받는다. 12세 이상의 아이들과 성인들은 150개의 주요 문항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찰고는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우들은 모두 마을의 한 장소에 모여 사제를 중심으로 둘러앉는다. 아이들은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어른들의 답변을 듣고, 아빠 엄마들은 감동 어린 어조로 자신만만하게 주님의 기도문과 애금 사항들을 외운다. 사제는 그의 “교우 영적 노트”에 시험 점수를 적어 두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교리 교육 성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독창적인 교육 방식인 것이다. 본당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찰고는 아직도 어디서나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인 사제들은 점차 교대하는 방식으로나마 이것을 꾸준히 지속시키고 있으며, 우리(파리의방전교회) 뒤에 온 아일랜드, 독일, 미국인 사제들은 종종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이를 수행한다. 한편 우리는 점점 더 가속화되어 변화하는 사회를 살아감으로써 전통적인 사도직을 재고해야 할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암기식의 교리 공부 또한 재고의 여지를 모면할 수 없는 형편인데,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그것에 대한 비평의 소리가 높아지고 새로운 적응을 목적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옛 선배들의 방법을 물려받아 충분히 동의하고 또 그 방법에 참여하는 필자이지만, 이러한 방법은 숙고해 볼 만한 과제이며 사목자들 간의 관점을 서로 교환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필자는 25년의 경험으로 미루어 그동안 한국 천주교회에서 매년 실행해왔던 찰고에 내포된 사도적 힘을 제시하면서 논쟁을 열어보고자 한다.

## 신앙을 우선으로 함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 이렇게 심어진 교육 방식은 연례 찰고야말로 무엇보다도 교우들이 신앙과 신앙생활의 열심한 정도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한국 교우들이 열심히 성사생활을 하는 비율은 그 어떤 오래된 그리스도교 국가에서도 아직 거의 보기 힘든 비율을 보여준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열심한 성사생활이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지 못할 때, 얼마나 그 방법의 참된 의미에서 어긋나며 벗어나는가를 교회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예로 아놀드 교수는 유럽 후기 중세 때 일어난 전례주의와 형식주의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의 반발은 결국 포교와 교리 교육의 쇠퇴로 인해 당연하게 설명되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주: 말씀의 봉사자; Desclee 1957, p.19 ss).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한국의 초기 사도들의 지혜를 찬양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양떼들은 주로 글을 모르는 시골 주민들이었지만, 옛날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보여준 표징들과 구원의 몸짓들에 목말라 했듯이 그들의 교우들 역시 목자 곁으로 달려가곤 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스승의 본모기를 닮아 신앙 고백을 구원에 이르는 필수적인 성스러운 표징으로 삼았다.

교우들이 진리와는 무관한 전통 종교가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사회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천주교에 대한 종교 지식을 고착화한다는 것은 큰 근심거리였고 아직도 그러하다. 불교를 보라. 불교 신도들이 많고 불교적 윤리가 얼마만큼 퍼져 있어도 수도승말고 그 교리에 정통한 이가 몇이나 되는가? ... 그러기에 그저 호기심으로 교우들의 찰고에 참여했던 외교인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도 바로 이것(교리)이다. 그들끼리는 고작 비료 얘기, 수확 얘기 또는 물건값이나 구경거리들이 대화 내용의 전부였기에, 교우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심각하게 묻고 질문하는 광경을 보고는 어리둥절해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신들의 삶이 전적으로 물질적인 삶을 섬광처럼 잠깐 동안이나마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회심의 첫 은총이 주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정기 찰고를 통해서 이전의 선교사들은, 사제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의 대리자이며 진리의 스승이라는 점을 열심한 신자들에게 주입시켰다. 마을에서 벌이는 찰고 현장은 예수를 새 계명의 박사로서 제시하는 복음서의 장면들을 상기시킨다. 즉 그분께서 우리에게 일임하신 첫 선교사명인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는 장면이다. 예수의 사도들은 크레도(신앙고백)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예수를 잘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 크레도는 점점 더 확신에 차고 근거가 있어야 한다. 우리 교우들이 아직도 열린 신앙고백 장소로 서슴없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바로 우리 선조들이 이 사명을 잘 완수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물론 은밀히 고백하기를 원하는 몇몇 니고데모 유형도 있지만 그 외 대부분의 교우는 기꺼이 전 교우들 앞에서 신부의 질문에 응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우들은 말 그대로 교회 앞에 진정한 순명을 보여준다. 즉 그들의 영혼이 단순하고 옹골으며, 구원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자 갈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겸손의 자세는 굴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사제는 처벌자나 오만한 재판관이 아니다. 사제는 재치와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고해실 안에서처럼 초성적인 임무를 완수할 뿐이다.

앞서 찰고를 세례 전례의 실천 강령(redditio symboli)에 비교하면서 필자는 무모하게 교회 전례 역사 전문가들의 영역을 침범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양식은 성인 세례자들에게 이 전통적인 교리 방법을 단호하게 널리 확장해온 것 같다.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사제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단계들을 분석하면서,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전 단계에 분명히 중지

부를 찍으면서도 또한 전 단계에서 심화된 의무사항들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영세로 회심을 준비하는 예비자들을 위해 교리 교육이 있듯이, 이미 세례를 받은 이들 역시 끊임없이 회심해야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 보다 심화된 교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교회는 일 년에 한번 사순절 전날에 영세자들에게 신앙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연례 찰고 역시 이러한 맥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열심한 신자들을 영원한 예비자의 상태로 놓아두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들을 육적으로 어린아이들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물과 말씀으로 거듭난 교회와 하느님의 자녀들로 보여주는 것이다.

## 글자와 영(靈)

논고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논쟁의 요지가 되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신앙 문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실천 방법인데, 이 논고에서는 암기식 교리 교육이 관건인 것이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즉 기본 텍스트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모두가 동의한다. 혹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가능성들을 다시 재고해야 할 것인데, 표현 양식의 필요성은 긴급한 문제이다. 유럽의 가톨릭 신자들이 이제는 그들의 교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그들이 교리를 배운 이후로 교리는 얼마나 여러 번 수정되었는지!—종종 유감스러운 각별한 상황들로 인해 기인되는 것이다. 폐기나 예뻐엔느 질송과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도 자신들의 그리스도 사상이 어린 시절에 배운 교리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그러니 열심한 신자가 전 국민의 2%에 불과하고, 사제가 아직 희박한 한국과 같은 선교국에서는 신앙은 정의되고 형식적인 표현, 전례상의 크레도를 좀 더 발전시킨 표현,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기본서의 질(質)이 문제가 된다. 사실 우리의 교리 요약서는 완벽한 것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무한하신 하느님의 생각을 요약할 수 있단 말인가. 현재의 교리서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혹자는 현재의 교리서가 너무 개념적이며 스콜라적이라고 한다. 특히 도시의 젊은이들 눈에는 언어가 진부하다. 이 문제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라 시간이 갈수록 주교들의 세심한 배려를 가중시킬 뿐이다. 이 문제는 다시 새 교리서가 구상되고 있는 유럽에 비해 한국에서는 더욱 까다롭게 제기된다. 유럽에서는 상황이 유동적이며 변화에 적응이 쉬운 반면, 한국에서는 반세기 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입문서가 아직도 남녀 노소 모든 교우들의 기억과 영성에 생생히 남아 있다(주: 110문항의 질의 문답을 실은 첫 교리문답서가 3배 더 발전된 입문서로 바뀐 것만도 상당한 진보이다).

말하자면 교리 양식이 그들의 기억 속에 주입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제기된다. 즉 기억 속에 주입시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그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텍스트를 암기하며 공부한다는 것이 어찌면 진부함을 풍기는 “원시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선배들은 보다 건강한 생각들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기억력을 하느님의 선물로 존중했으며 교회 안에서 신앙의 좋은 도구로 찬양했다. 그런데 오늘날 몇몇의 예비자들이나 영세자들이 입문서를 글자 그대로 학습하는 것에 반감을 드러내며 문제가 되는 것은(도시인 층에서 그렇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더욱 그런 현상을 보인다), 다만 현대인의 병리학적 초기 증세를 드러내는 것이라, 그들 자신일 뿐 대다수의 선량한 교우들에게는 교리문답을 암기하는 것이 속담을 외우는 것만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실상,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찰고(교리 시험)가 우리로 하여금 교리서의 글자 자체에 매어놓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바로 거기에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교우들은 그저 개념적인 지식에만 그치고, 사제는 문항 수는 많고 시간은 없어 교우들의 기계적인 답변에 만족한다면, 이는 찰고로써 건성으로 빈번하게 성사를 받는 공허한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상황에 이른다면 그것은 우리의 선교 전통에 등을 돌리는 격이 된다. 우리 선배들이 한 번이라도 종교 교육을 입으로만 중얼거리는데 그친 적이 있었던가?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영성을 전해 심어놓으려고 했다. 관례집 또한 고양된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교리 시험”은 단어뿐만 아니라 해석하는 것에 그 취지를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참고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사례는 교우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사례들을 요구하고 때때로 반론도 듣는다. 그러면서 사례는 참석자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답변을 전개시킨다. 참석자들 역시 수동적이지만은 않아서 여러 질문이 터져 나오고 구체적인 사례들이 언급된다. 그리하여 참고 현장은 자유토론으로 변하며 공동 고해의 충분한 준비 작업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한다. 우리 교우들의 종교 지식에 대한 가치성을 따져 본다면 내가 확인하건대 그 대차대조표의 결과는 긍정적이다. 그들의 심리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하고 거의 변함없는 시골 생활 범주에 박혀 있는 만큼 그들의 신앙 측면도 교리서 원칙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표현 수단의 빈곤함이 신앙을 심화시키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어릴 때에 배운 기도문을 50년간 되풀이해서 암송하지만, 그것은 매 주간 같은 시편을 암송하는 수도자들과 같은 방법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실로 살면서 점점 더 풍요로워지는 울림을 단어에 실으며 암송했던 그들의 옛 순교자들의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여전히 그렇게 지속될 것인가?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불변하는 사회가 아니다. 학교가 늘어날 것이며 근로 상황이나 가정 생활이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신앙은 연례 참고로는 감당 못할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는 종교 교육을 수용하기 위해선 이전의 방법을 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들, 즉 거기에 담겨 있는 풍요로운 영성을 발전시키면서 새것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 참고는 교리서를 한 번 더 훑어보는 기회가 됨으로써 신앙을 키우는 데 이바지한다. 교리서는 진정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분명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교리서는 더욱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성서를 통해 더욱 살찌워서 더욱 조심스럽게 굶주린 영혼에 수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 참고는 문구 지식을 통해서 신념의 올바름과 심화 정도를 측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교 식의 경쟁을 벌인다거나 쓸데없는 얘기를 털어놓는 것을 경계한다. 종교적 분위기에서 기도로 시작하여 이제 곧 받을 성사를 준비하는 자세로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들, 즉 허영이나 경쟁심 혹은 가문의 체면 같은 것들을 배제하여 거기에 참석해 있는 다른 이들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참고는 더욱 ‘신앙고백’으로 돌려지는 것이다.

- 참고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성찰하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교우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성찰은 일회적이고 돌발적이며 단편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들이나 특히 그들의 자녀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살기 어려워지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속으로 끌려감에 따라 그들이 교리서에서 준비된 답을 찾기로 점점 더 회박해질 것이다. 그들은 다만 가톨릭 활동 안에서 복음의 조명을 받아 자신들의 삶과 그들 부류의 삶의 모든 면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심화된 성숙 없이는 신앙은 존속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 방법을 갑자기 단절시키는 대가를 치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잠재적 성질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으로 다듬어진 영혼은 언제나 빛이신 그분께 더욱 자신의 삶을 순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 상호 교화 작용

또한 참고는 신앙 안에서 교우들의 유대를 긴밀히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진정한 상호 교화 작용을 거기서 볼 수 있다. 참고의 특성 중 하나가 공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해서 “가족적 분위기” 안에서 치러진다는 것이다. 즉 부자나 가난한 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공동체 전원이 교회 안에서처럼 사제를 중심으로 그 주위로 모인다.

내가 보좌 신부로서 첫 경험을 쌓을 무렵 주임 신부였던 페랭 신부는 공소 마을에 도착하면 우선적으로 유명 인사부터 모든 이 앞에서 찬고를 받게 했다. 게다가 그들 쪽에서 먼저 이것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면 모든 교우들이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찬고를 받으러 나온다. 그 후에 내가 서울의 어느 본당을 맡았을 때 그 본당의 교우였던 미래의 국무총리 장 요한(장면)이 매년 여러 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찬고를 받으러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러한 예들은 교회사 안에서 학자들의 일화를 상기시키는데, 그중에서도 수사학자 마리우스 빅토리누스가 로마 군중 앞에서 신앙고백을 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주: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제8권 2장에서).

같은 유형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의 장면은 그리 구경거리가 되지 못하고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찬고가 전통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열심한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책임자의 자리에 있는 이들로써 형제들에게 교회에 순명하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한 노파에게 찬고를 면제해 주었던 적이 있다. “할머니 연세라면 찬고나 단식을 의무적으로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할머니는 조만간 하느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받으실 찬고 준비만 잘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노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물러갔는데 조금 후에 밖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기도 다른 사람들 못지 않게 교리를 다 외울 줄 아는데 신부님이 이젠 자기를 못 믿는다는 등... 그러더니 그 노파는 목청을 다해서 기도문을 줄줄이 외우는 것이었다. 나는 본의 아니게 그 노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이며 더 큰 잘못은 그 노인 역시 공동체 일원이라는 느낌을 상하게 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교우라 함은 단순히 주일 미사에 참석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교우는 곧 신자이며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모든 이들 앞에서 그 가르침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이다.

바로 거기에 가톨릭적 영혼의 한 모습이 엿보이는데, 그 영혼은 한국 교회의 전통에 의해 다듬어졌으며 너무나 익숙해진 우리에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보이는 모습이다. 그러한 영혼의 모습을 보존하고 기뻐하며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그(찬고) 가치성을 신중히 분석하여야 한다.

- 그리스도께서 진정 우리의 빛이라면, 우리가 우선은 우리 영혼을 그분께 맡김으로써 그분께 속하고, 구원의 은총을 앎으로써 그분께 진정 속한다면, 공동 교리 찬고는 신앙 안에서 일치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성사생활을 게을리 하는 냉담자들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반은 죽은 가지나 다름없다. 교만이나 나태로 혹은 다른 이유로 그리스도 교회에 순종의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벌써 파문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 교리 찬고는 신앙 안에서 일치를 강화시켜서 냉담자들 가운데 교회의 빛을 확산시켜준다. 이 취지는 초기 교우들 의식 속에 뚜렷이 박혀 있었다. 따라서 찬고의 사도적 의미를 재차 존중해야 한다. 예전에 게데옹이 그의 병사들에게 했듯이 사제는 이 찬고를 통해서 가장 용맹한 이들을 선별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구원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길 수 있을 것이다.

교리 찬고는 어린아이들과 성인들 사이의 간격을 좁혀줌으로써 서로를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점은 보다 면밀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점에 대하여 나는 여기서 두 가지 양상만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찬고가 부모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자녀들에게 종교 교육을 하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이며, 둘째는 그 결과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성인들의 공동체에 입문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첫 교리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선교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필수 조건이다. 광범위한 영역의 본당을 맡은 사제로서 도저히 젊은이들의 모임을 규칙적으로 가질 수 없고, 사제 역시 대부분의 시간을 공소 순방으로 보내기 때문에 사제관 근처의 젊은이들을 규칙적으로 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제는 가정 안에서의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제가 멀리 있다는 사실은 부모들에게 책임감을 일깨워 주고(멀리 떨어진 마을의 아이들이 교리를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 년에 두 번 사제가 찬고를 하러 온다는 기대감이 그들을 고무시켜 준다. 부

모들은 자녀들이 대답을 잘 하면 자랑스럽게 여긴다. 한 아버지가 기억나는데, 그는 아직 찰고 자격이 안 되는 다섯 살짜리 아이를 내게 데려왔다. 그리고 그 아이가 기도문을 잘 외우지 못하자 아버지는 그 아이가 나오자마자 단단히 벌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과 마주해서 질문하고 그 아이들이 벌써 기도문과 교리를 완벽하게 알고 답하는 것을 들을 때 기쁨에 넘쳤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지! 또 부모들은 얼마나 대견해 하고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어른들이 얼마나 감탄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아야 할 장면들이다. 나는 종종 이러한 분위기에 흠뻑 빠져서 아이들에게 더 길게 질문하는 때도 있다. 이렇듯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리를 주입시켜준 수고 덕분에 나는 느긋하게 그 안에 담긴 진리의 속뜻을 이야기 기해줌으로써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부모들 역시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제에게 찰고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교회의 구성원은 모두 같은 스승을 모시고 있으며, 부모의 선교 영성이야말로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는 충직한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어느 강론이 이보다 더 지극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 교리 공부는 문법이나 구구단처럼 전적으로 아이들만 배워야 하는 유치한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자기들도 어른들만큼이나 안다는 자부심은 어떤 비밀스러운 것에 그들 또한 참여한다는 깊은 인상을 심어 준다. 그리스도교에 입문한 그들은 교회를 통해 어른들의 사회 안으로도 입문하는 것이다. 아이들만의 심리 세계가 있다는 점은 나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 나이에 맞는 교리 교육을 수용해야 할 것이며, 교리 교사가 늘어나는 한도에서 이 점은 더욱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아이들을 성인들에게서 떼어놓는 것이 발전은 아니다. 이 문제는 “어린이 미사”를 통해서 오늘날 재발견되는데, 어린이 미사가 가끔 편리하고 유익하기도 하지만 이상적이지는 않다는 지적이 있다(주: 오르샹(Orchampt) 신부의 ‘교리서와 전례(Catechisme et liturgie)’를 보라).

진정 전례는 신앙 생활에 적용된다. 공동 찰고라는 한국 풍습은 구식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다른 방법들보다 더 진보적이며 복음에 더 가까이 다가간 방법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어른 아이 모두에게 말씀을 전파하며, 모두 어린이와 같이 되고 지혜와 은총 속에서 성장하여 그분의 모습을 닮으라고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예비자들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가끔 무지하고 완고한 “구교우들”이 이제 막 심각하게 신앙에 입문한 예비자들을 따로 떼어놓는 유감스러운 일들이 있다. 공동 찰고는 이러한 분리를 예방한다. 공동 찰고는 교우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증거하도록 이끌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새 형제들을 본당 밖의 생활에서는 물론 가장 은밀한 영적 공동체 안으로 맞아들이도록 이끌어 준다.

## 사제의 부성에

찰고가 얼마나 목자와 양떼들 간의 관계를 용이하게 해주는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젊은 사제는 처음엔 이 점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찰고는 그에게 회합의 번거로움, 서류 작성하는 일, 피로를 가중시키는 일로 짐스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기쁨과 용기를 주는 원천이 되는가를 곧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 말씀의 전달자로서 우리의 사명은 거기에서 그분의 발자취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길에서는 오로지 필요한 것만을 상기시키고 의혹을 내치고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는 기회들을 얼마든지 만나기 때문이다. 영혼들과의 규칙적이고 우정 어린 교류는 모든 편애와 감정의 치우침, 일시적인 근심에서 벗어나 오로지 구원의 진리 차원이라는 일종의 법제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개인적인 면담은 강론이나 단체로 하는 예비자 교리 교육보다 훨씬 더 개개인에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어 준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공동으로 진행되는 까닭에 사제는 고해실에서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폭넓은 지도를 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종교 교육을 게을리 하는 부모들에게 사회도덕적인 훈계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찰고를 통해 그들의 잘못이 모든 이들의 눈앞에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제는 교우들의 영적 성장이 저하되는지 고양되는지 볼 수 있어서 한 가정의, 혹은 한 마을의 열의 정

도를 측정할 수 있다. 사제는 오로지 진리 안에서 교우들을 성화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스승 예수의 대리자 자격으로 때때로 엄격한 자세를 취한다. 영적 차원에서 그의 권위는 모든 교권주의의 보호를 받는다.

교만을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느님께서서는 성과의 주인공은 오직 당신뿐임을 상기시켜 주시느라 내게 이따금 겸손의 기회를 주신다. 왜냐하면 찰고를 하다 보면 나는 기쁨에 들뜰 때가 있기 때문이다. 사제는 부유한 이들이나 권력 있는 이들과 마주할 때도 소박한 이들을 앞에 두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파견자 역할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는 말씀의 위력과 그들의 진보를 민감하게 실감하게 된다. 처음 방문했을 당시엔 교우수가 몇 안 되던 마을이 해가 갈수록 그 몇 명의 열심한 신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굳혀서 친척과 이웃에게 주님을 알리고 교회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율법학자들이 어린 예수의 답변을 듣고 감탄했듯이 나 역시 어린아이들이나 어머니들, 노동자들, 젊은이들... 모든 이들이 내가 받은 똑같은 한 성령에 불타 답변하는 것을 듣노라면 심오하고도 거룩한 기쁨을 얻는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찰고는 나에게 하느님의 무한하신 세계의 새 지평선을 열어주고 나로 하여금 그 영혼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찬양하게 한다.

주님, 저희 모두가 더욱더 한국 순교 복자들의 아름다운 신앙고백을 살고 항구하게 해주십시오!

에피파니 1964년(189쪽)

생제 신부는 특히 건강문제로 인한 영양상의 이유로 가족 품으로 떠났다가 6월 13일에 2년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회복되기는커녕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장시간 걷는 것도 금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신부는 6월 19일에 여산의 보드벙 신부를 방문했고 보드벙 신부는 그에게 작은 마을 홍산 본당을 일임했습니다. 그 본당은 8km 떨어진 곳, 금사리라는 마을에 위치하는데, 그 마을은 50여 년 전 줄리앙 공베르 신부에 의해 만들어진 구교우 마을이며, 제제구 신부가 거기에서 첫 사제직을 훌륭히 행하면서 홍산에 넓은 부지를 사두었다가 성당과 사제관을 어렵게 건축했습니다. 2층으로 된 사제관을 생제 신부는 아주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이하 원문 누락)

에피파니 1969년(190쪽)

복음화에 대한 설문조사6)

이러한 유형의 설문조사의 한계점

한국에서 보내온 설문 응답지에서, 선교사는 비록 자신이 선교사라고 “느낌”으로써 선교사인 것이 아니라 “선교사는 구원을 전파하라고 파견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실제적으로 응답하는 그 순간부터 실제적으로 선교사”라는 점을 명백하게 강조해 왔습니다.

(이하 생제 신부의 설문지에 대한 응답)

완벽하지 못함은 인간의 본질이다. 누구라고 감히 자신은 완벽하게 성체를 영하고 고해를 보고 기도한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렇듯 우리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가운데 그 누구도 완벽한 선교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완벽하게 움직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의 임무를 떤 이상은 선교사이며, 선교사의 삶은 우리 순교자들의 삶이 그러했듯이 모든 면에서 희생을 필요로 하는, 즉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완벽한 자비의 행위이다.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열렬히 원한다. 비록 도달하기엔 불가능한 이 이상을 위해 나는 모든 것을 버렸고, 하느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 내가 가 있음으로써 나름대로 이상을 완수하는 것이기에 나는 진정으로 선교사임을 느낀다.

선교의 임무로 으레 한 구역을 맡게 되는데, 그 구역엔 본당과 공소들이 있다.

## I. 공소

공소들은 이방인 환경 속에 들어 있다. 교회가 뭔지, 교회의 전례 양식이나 교리가 뭔지 또 교회의 구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야말로 수천 년 동안 “개관되지 않은” 불모지에 드물게 몇몇 교우가 살고 있는데, 그들은 겨우 일 년에 두 번밖에 사제를 보지 못하기에 이제 막 영세를 한 신입교우일 경우엔 외교인보다 더 나을 것이 없을 정도이다. 나는 공소를 방문할 때 특히 내가 선교사임을 느끼게 된다. 내가 대덕리 공소를 방문했을 때가 기억난다.

그 공소는 그 마을에 사는 젊은이 몇 명이 5km 떨어진 곳에 사는 교우들과 교류하면서 공소를 시작하기로 결심하여 만들어진 신생 교우촌이었다. 거기까지는 내 본당에서 25km 거리였으므로 버스를 타고 내려서 10km를 걸어 큰 재 하나를 넘어 가든지 아니면 자전거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서면 폭이 꽤 넓은 강 하나를 또 건너야 하는데 거기엔 다리도 없어서 장마철엔 완전히 고립되는 그야말로 “지구 끝에 위치한” 오지이다! 어느 한겨울 밤이었다. 촛불 하나를 밝혀두고 모든 집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모두는 방바닥에 빙 둘러앉아 있었는데 자리가 어찌나 비좁았던지 발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거기서 두 시간 동안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분이 무슨 일을 했으며,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했고... 그들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묻곤 했다... 아마 여러분은 “거기에 달과 별만 빠졌지 마치 낭만적인 소설의 한 장면 같다”고 말할 것이다. 좋을 대로 생각하시라! 그건 여러분이 덧붙여 넣어도 될 것이다... 여러분은 믿지 못하겠지만 나는 추위도 느끼지 못했다. 그랬다! 그날 밤 난 진정 내가 선교사임을 느꼈다... “내 사명은 그리스도의 보화인 이 아름다운 복음을 알리는 것”임을 나름대로 어떤 섬광처럼 깨닫게 되었다. 나는 내가 무언가 위대하고 아름답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활동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활동을 하고 있음을,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내 자리를 바꾸지는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마룻바닥에 누워 잠들기 전에, 나에게 이 소명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렸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수많은 이론가들과 학자들이 그들의 머리로만 적어놓아 사방에 뿌려놓은 잠동사니들보다 훨씬 더 “선교사다운” 일이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가장 위대하신 성인들은 학자가 아니었고 이곳과 같은 작은 마을에서 단순한 일들을 완수해냈지만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을 완수한 것이므로 그 일을 함으로써 그분들은 강생과 세상 구속사업에 동참하는 위대한 일들을 하신 것이다...

내가 대덕리, 이 작은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일이다.

## II. 본당

본당의 경우 교우들은 그 수가 훨씬 많고 더 배웠으며 물질적으로 훨씬 편안해서 도움도 많다. 사제직은 거의 그곳에서 행해지는데 그곳 역시 이교인들이 없지 않은지라 본당에서도 선교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 기쁨은 무형의 돌을 가지고 멋진 석조물을 만들어내는 조각가의 기쁨에 백 배는 더 할 것이다... 이 교인 한 명이 처음 찾아올 때는 종종 친구인 교우의 강압에 못 이겨 오지만, 편견으로 가득 차 경계하던 그가 조금씩 변화되며 다시 찾아오고 교리를 배우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엔 주님의 사도가 되고 그리고 신앙을 위해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볼 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선행의 기쁨이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아신다. 그것은 하느님 은총을 나누어주는 기쁨이며... 그것은 천지만물의 기쁨이다.

길가에서 죽어 가는 한 할머니를 거두었더니 몇 년 후에 그것이 모습을 갖춘 양로원이 되었다. 학생 몇을 가르치다 보니 몇 년이 지나 그것이 학교가 되고, 나중엔 여학생과 남학생을 분리해야 했기에 두 개의 학교가 되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지만 열심한 처녀 몇 명이 있어 주의 깊게 보다가 그들을 모아 놓으니, 몇 년이 지나 하느님의 축성과 그들의 노동 덕분에 몇 배로 늘어나 수도회가 되어 곳곳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다.

내가 선교사임을 느낄 때란, 교사들과 학생들과 농부들에게 토끼, 염소에게 먹이를 주는 법을 가르쳐 줄 때이며, 또는 따뜻한 봄날 교우들과 함께 뒷동산으로 소풍갈 때... 선교사임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제 나는 늙어가고 등은 굽어도 마음만은 여전히 젊기에 이렇게 말하고 또 말한다. “선교사의 삶, 만세!” 라고. 내가 요구하는 것은 다만 선교사에게 행동의 자유를 달라는 것이며, 회람장들을 돌려 공연히 선교사의 골치를 썩이지 말며, “그룹” 모임이랍시고 추진력과 책임감이란 찾아볼 수도 없는 모임만 여기저기서 갖고 거기서 아무런 실용적인 결론도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일로 선교사를 방해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영리한 사람은 한마디만 하면 안다!

피에르 생제(한국, 대전)

추신: 여러분에게 유감의 뜻을 표한 것은 아니니 이 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에피파니 1971년(193쪽)

서울(한국)의 생제 신부가 설문지에 응해 보내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뤼 드 박의 메아리, Echos de la rue du Bac> 지난 호 표지에서 개인 양성(formation personnelle)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의 생각을 적어 보내 달라고 하기에 여러분의 수고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표명하고자 몇 자 적어 보낸다. 한 늙은이의 의견에 지나지 않으므로 분명히 최상의 의견은 아닐지라도 신중함이 들어 있는 것이니 다른 이들의 의견도 함께 모아 여러분이 ‘결정’ 할 일이다.

1. 나는 <에피파니>가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기를 전적으로 바라는 바이다. 왜냐하면 내게 보탬이 되고 나의 시야를 넓혀주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사 문제라든가 새로운 생각들, 교회의 현 상황들을 배울 수 있고 아픔이 되는 논쟁거리에 적절한 해답을 주고 또 나를 내 가족 선교사들과 결속시켜 주는 무언가 읽을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가능한 모든 능력과 경험과 가능성들을 활용하여 계속해 나가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들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운다. 그것을 선별하고 요구하는 일은 여러분의 몫이다.

2. 지난해 요구했던 그런 종류의 설문조사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주제가 우리의 범주를 좀 벗어난 듯 했다. 우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선교사들이며, 개개인이 고유한 문제들과 함께 때로는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 개개인은 저마다의 개성이 있고 교육 정도도 다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거의 기적적인 것이다. 대부분 그런 것은 “각자의” 문제로 치부되며 관심거리가 되지 못한다. 게다가 우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날 기회도 거의 희박하고 그것말고도 저마다 할 얘깃거리들이 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부과하여 러시아 왕을 위해 희생시키듯이 한다면 지겨운 일이 되는 것이다.

3. 그렇다면 무슨 글을 써야 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지나친 지시나 계획이 아닌 그날 그날에 따라 선교사들에게 흥미를 줄 만한 주제로서 외교인의 글이라도 좋으니 선교사

들에게 배움이 되고 격려가 될만한 글이라야 한다. 그 글은 지나치게 학문적이지 않은 단순한 언어로써 쓰여져야 한다.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수준의 사람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말씀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루가 11,46). 우리를 처음부터 학자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학자로 양성시켜줄 것이며 두 발을 땅에 붙일 일이지 공중에 떠다니는 안 된다.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써보았다.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이 화를 내지 않기를 바라며, 어쨌든 나는 여러 방면에서 우리를 위해 애써주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 4) 파리의방전교회 문서(M·E·P)

##### M·E·P 1948년(11쪽)

앙뜨완느 공베르 신부는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차게 활동을 하시며, 그의 오랜 경력을 토대 삼아 젊은 성가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성가회는 현재 프랑스로 정규 휴가를 떠난 생제 신부가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Des Petites Soeurs des Pauvres)’를 모방하여 몇 년 전에 현지에 창립한 수도회입니다.

##### M·E·P 1952년(19쪽)

생제 신부의 중고등학교에는 학생이 600명, 교사가 24명 있습니다. 그 학교는 재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가정에 종교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신부에게 고되게 일을 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그것은 유익한 것”이라고 합니다.

##### M·E·P 1953년(18쪽)

논산의 생제 신부 역시 수고한 보람을 얻었습니다. 성인 영세자가 106명이며 종부성사자가 95명에, 한해 영성체자 수가 20,000명에 달하니 교우들의 열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걱정거리가 되었던 그의 학교는 매우 번창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적어 보내기를 “노하우도 생겼고 새로 부임한 교장의 영성 덕분에 학교는 명성을 얻어 현재 학생 수가 728명에 달합니다. 또한 현재 40명의 원아가 있는 유치원도 인가를 얻었습니다.”

신부는 그의 선임자인 줄리앙 공베르 신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양로원도 개설하여 수많은 불행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벌써부터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M·E·P 1954년(31쪽)

생제 신부는 중심부의 큰 본당인 논산에 있습니다. 그는 더불어 한창 번영 중에 있는 큰 학교의 책임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조만간 그의 본당을 분할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할 만합니다. 그래야 교우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고, 얼마 전부터 비신자들이 대거 교회로 나오는 유익한 바람을 타고 그가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논산 본당의 교우수는 2,371명이며 아주 많은 숫자의 예비자들이 있습니다. 올해 138명의 성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 M·E·P 1955년(19쪽)

논산의 생제 신부는 올해 115명의 영세자와 작년보다 훨씬 많은 33,000명이 넘는 영성체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제제구, 시에라장 보좌 신부가 2,500명의 교우들을 돌보는 생제 신부를 도와준 덕분에 그는 학교에 더욱 전념할 수 있었는데, 학교는 현재 학생수가 800명이 넘는 바람에 작년에 이어 또 확장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이 곳 본당의 창설자인 줄리앙 공베르 신부의 공덕을 기리고자 하는 교우들의 도움으로 생제 신부는 본당 후보이신 루르드 성모 동굴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 M·E·P 1956년(21쪽)

라리보 주교는 교구내 여러 본당을 순방하면서 논산을 방문하여 유치원과 양로원, 그리고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제 신부의 새 학교 건물을 강복해 주었습니다.

M·E·P 1957년(22쪽)

한국 부지부장인 생제 신부는 연말 보고서 첫 머리에 무쎄 주교의 선종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M·E·P 1957년(25쪽)

논산의 생제 신부는 블랑 신부의 도움으로 28개의 공소에 흩어져 있는 3,100명의 교우와 300명이 넘는 예비자들 그리고 그의 학교와 유치원 등의 적지 않은 사목활동을 하였습니다. 올해의 영세자수는 220명입니다.

M·E·P 1959년(37쪽)

논산 훈련장 근처에 마산 본당이 신설되어 생제 신부의 10개 공소와 900명의 교우들이 그리로 이전됨으로써 신부의 집을 털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도 18개의 공소와 3,000명이 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번영 중에 있는 그의 학교는 재정적으로 적잖은 걱정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새 성전, 루르드의 노트담 성당 건립 공사를 착수하였고, 크립트(지하 소성당)와 예비자 교리실은 벌써 완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지오 마리에>는 세 브레시디움, 꾸리아와 함께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에 내려온 젊은 사제 로페페 신부는 꾸준히 한국말을 공부하여 사목을 시작하였습니다.

M·E·P 1961년(13쪽)

김 바르톨로메오 주교의 후임자로 새로 청주에 부임한 한 주교는 현재 학생 900명과 교사 30명에 달하는 대건 학교의 신축 교사를 장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한국 첫 사제이며 한국 사목자들의 주보이신 복자 김 안드레아의 축일을 맞은 7월 5일에 예식을 치렀습니다. 10월 11일에 라리보 주교께서 생제 신부가 건립한 ‘루르드 성모님(Notre Dame de Lourdes)’ 성전을 장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날의 축성식에는 한 주교와 45명의 사제들이 참석했습니다. 로페페 보좌 신부는 성가를 지휘했으며 1,000명이 넘는 교우가 성체를 영했습니다. 이 성전 건립에 참여한 교우들 중에는 선한 여인도 한 명 있는데, 이제 막 가톨릭으로 개종한 이 여인이 어느 날 생제 신부에게 100,000환을 바치면서 “신부님, 이 봉헌금으로 성전 문을 만드십시오. 하느님께서 그 보상으로 저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시겠지요” 라고 하더랍니다. 생제 신부는 예전의 고등학교 교사(校舍)를 사용하여 “바다의 별(혜성)” 이라는 명칭하에 여자 고등학교를 창설하여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 경영을 일임하였습니다. 첫째 250명의 학생들이 등록하여 지난 2월부터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M·E·P 1967년(38쪽)

홍산의 생제 신부는 예전에 그가 창설한 성가회 수녀들의 협조를 얻어 예비자 수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M·E·P 1969년(40쪽)

1964년부터 홍산 본당 주임으로 있는 생제 신부는 그의 공소 수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자신은 체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골 주민이 대도시로 이주하고 있는 추세에 그의 열심한 신자들도 하나 둘 빠져나가고 있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열심한 신자들을 시골에 잡아두기 위해 그들을 도와 그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방법들을 찾아내는 데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M·E·P 1976년(76쪽)

여성 지위의 향상을 위해



35년간 여러 본당의 주임 신부를 거쳐 몇 해 전부터 나는 한국의 젊은 수녀원의 모원에서 지도 신부로 있다. “성가회”라는 이 수도회는 현재 220명의 수녀들과 40여 명의 수련수녀들이 있는 곳이다. 한국 가톨릭 교회가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여자 수도회가 37개이며 외국인 수녀 192명을 포함하여 총 수녀 수가 2,723명에 이른다. 37개의 여자 수도회 외에도 현재 “시험 단계”에 있으면서 아직 공식 허가를 받지 못한 곳이 5, 6군데가 있다. 곳곳마다 수련수녀들이 있기에 성소자들이 부족하지는 않다.

제2차 세계대전 종식기와 일제 통치 시기만 해도 한국 내의 여자 수도회는 4개에 불과했으며 모두 외국에서 들어 온 것이다.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는 1880년에 들어왔고 가르멜회가 1937년에 지금의 남한에 해당되는 지역에 들어왔으며, 베네딕도 수녀회와 메리놀 수녀회가 지금의 북한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들어왔다. 그러나 일제 통치 말기와 해방 후에 순전히 현지에서 창설된 수녀회가 여러 곳 있는데 성가회가 그중의 한 본보기다. 한편, 북한에 위치하고 있던 두 곳의 수녀회는 존속을 위해 불가피하게 남한으로 피신하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을 선호했던 대다수의 외국 수녀회도 이제 주권을 되찾은 한국 내에 창설을 시도하기로 결심하였다. 외국에서 들어 온 이 수녀회들의 경우 많은 곳에서 “한국화” 단계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서 외국인 수녀의 수가 적은 반면에 한국인 수녀의 수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 완전히 “한국화”된 곳도 여럿 있다. 대부분의 수녀회는 고등교육을 마친 지원자들만 받아들이고 있으며 심지어 대학을 마친 처녀들만 받는 곳도 몇 군데 있다. 전문 자격증 소지자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대신하는 특례도 있다.

가끔 수녀회에서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병원이나 학교를 운영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 이는 타당한 소리이다. 그러나 이 수녀회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일을 맡아 하고 있으며 또 그 일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번거로운 일임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을 위한 구제원, 고아원, 노동자 가정 돌보기, 탁아소 운영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성가회 모원에서는 수녀들이나 다른 사제들이 하는 강의 외에도 내가 수녀회 지도 신부로서 맡은 소임이 있는데, 영성과 성서, 전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영성지도는 내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하느님과 융합하는 여정”의 문제로 그 부분에 대한 나의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련수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서 강의에 대해서 말하자면, 수녀원에 들어오는 대다수의 처녀들이 성서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다. 그러기에 나는 아이들에게 해주듯이 “성사(聖史)”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줄 뿐이며, 심지어는 “벨라멧다의 방법”의 그림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대충 다듬어” 놓으면 대부분의 수련수녀들은 서울에 있는 국립 교리신학원에 가서 2년간 교의를 배운다. 내가 교의 강의도 하지만 감히 그것을 신학 강의라고는 부를 수 없을 것이다. 교회사를 가르칠 수 없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두 명의 수녀가 서울 대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예정인데, 현재 각 수녀회의 수녀들이 그곳에서 대신학생들과 자리를 나란히 하여 공부하고 있다. 수녀들의 전례 교육을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쏟고 있어서, 매주 주일미사와 “저녁기도(vepre)”를 가능한 한 가장 장엄하게 바치도록 하고 있다. 즉 모든 이가 다 참여하는 전례, 외부의 열심한 신자들을 끌어들이는 전례, 본당 미사보다 훨씬 느린 전례가 되어 장엄하게 바치는 것이다. 수녀들은 이러한 성무일도를 좋아하며 매주 주일미사는 잘 준비되어 치러진다.

일 년에 한 번 성소에 관심이 있는 처녀들의 모임이 있다. 매년 참석자 수는 50여 명에 이른다. 수녀회의 대부분의 수녀들은 본당에 나가 교리교사로 일한다. 그 수녀들은 필요하면 모원에 준비된 영사기나 슬라이드를 빌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의 주된 활동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그들은 이미 수련수녀 시절부터 선배 수녀들을 대동하여 가난한 이들을 방문하는 활동을 한다.

지도 신부로서 그리고 영성 지도자로서 “수도원 생활”은 지극히 흥미로운 것이어서 한 번은 경험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수녀들은 어쨌든 세례자들 중에서도 엘리트들이며 말씀의 전파자들이고 한국 교회

의 삶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언어에 미숙하여 그들에게 좀더 훌륭한 영성 교육과 교의 교육을 전해 주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피에르 생제7)

M·E·P 1982년(77쪽)

피에르 생제(73세), 대전 교구 선교사였으며, 1969년부터는 1942년에 그가 창설한 수녀회인 성가회 지도신부로 있다.

5. 전시일기8)

췌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몰리나르 신부가 왔다. 이야기를 나누고 카드놀이를 하다. 신부는 이를 교정 받으러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며 저녁 10시 반경에 역으로 나갔다.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11시 반경에 신부가 돌아와...(미판독)9) 문에서 나를 깨웠다. “기차가 끊겼어요! 싸움이 났다고 하던데요.” 처음 듣는 소식! 어찌된 영문일까? 2년 전 선거 때처럼 남쪽에서 싸움이 일어났나 보다.

6월 26일 월요일

휴교.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벌써 의정부에 와있다는 소식을 듣다.... 신문을 받아 보니 북한군이 개성, 의정부...(미판독)를 공격했다고 한다. 그것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경찰서에서 주민들을 소집하기에 나는 전교회장을 보냈더니 그가 다녀와서 이르는 말이, 비행기 공격에 대비해 취해야 할 금지사항들을 내렸다는데 실내등을 밝히지 말 것, 경보, 미사와 성당 종을 중단할 것 등등.... 베르몽 신부와 몰리나르 신부가 와 있다. 우린 상황이 어떻게 될까, 미군이 오지 않겠느냐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두고 봐야 할 일이다. 5대의 군용 기차가 지나갔다. 베르몽 신부는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병자 한 명을 방문하러 갔다(그는 예전에 공산당이었는데 교리문답을 배우고 세례를 요청했다).

6월 27일 화요일

기차가 다니지 않는다. 누군가...(미판독). 우리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병이 나서 그에게 한 달간 유급 휴가를 주어야 했다.

6월 28일 수요일

어제와 같은 상황. 오늘 서울에 올라가야하는데 당연히 갈 수가 없었다.

6월 29일 목요일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다는 소식과 남한의 중앙부가 서울의 다리 4개를 폭파시키고 떠났다는 소식을 듣다. 그들은 한강 이남으로 갔을 것이다. 오후엔 더 참을 수 없어서 베르몽 신부를 만나러 강경으로 갔다.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래도 밝은 소식을 듣다. 트루만 대통령이 미군의 도착을 알리다. 여러 대의 비행기가 편대를 이루어 지나가다. UN의 이름으로 미군이 올 것이다. 선박들이 해안을 지키며 모든 이륙군들을 서둘러 파견한다.

집으로 돌아와 성무일과를 바치고 저녁을 막 들려고 하는데 강원도의 아일랜드 신부 2명이 찾아왔다. 홍성의 토마스 넬리장(Tomas NELIJAN) 신부와 프란치스쿠스 간(Franciscus GAN) 신부. 그들은 지프에 트레일러를 달고 짐가방과 식복사이며 운전수의 식구들을 태우고 왔다. 그 사람들을 모두 먹이고 재워야 한다.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선착대가 도착. 북한군들이 강릉에서 대패하였다. 가여운 한국인들, 그

들은 정말 운이 없고 너무나 불행하다! 학교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트루만 대통령이 원자 폭탄을 사용하겠다고 했단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명 유언비어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에서도 똑같이 대응할 것이다. 디퓌, 캐롤 크래그 신부들이 비행기편으로 떠났다. 클리어리 신부는 대전에 있을 것이다….

6월 30일

미사 후 아침을 먹는데 몰리나르 신부가 물건 몇 가지를 찾으러 왔다. 온갖 유언비어들이 나돈다. 서울은 다시 수복되었고 2만 명의 북한군이 손을 들었다. 이쪽에서 공세를 취할 것이라고 라디오에서 전한다. 오후 1시경에 비행기 한 대가 아주 낮게 비행하며 한국민들에게 전하는 맥아더 장군의 말을 알렸다. 아일랜드 신부들은 아침 식사 후 익산과 전주를 거쳐 광주로 떠났다. 6시 라디오에서 남한군이 강릉과 문산(행주 북쪽)을 되찾았다고 알렸다. 현재 마포에서 교전. 북한군 탱크들이 꿈쩍없이 피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오후에 부여의 신학생, 손군이 왔다. 서울서 온 첫 사람이다. 기다리는 사람이 2명 더 있는데, 그들은 위험한 상황을 피하여 서울을 떠나 천안에 가 있다고 한다. 길에는 피난민들의 행렬이 마치 1940년의 프랑스와 같았다! 많은 신부들이 피신하여 서울 성당에는 단 한명의 신부도 남아 있지 않으나 성당 건물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한다. 지난 27일 오후엔 북한군이 탱크를 몰고 와 길에서 대포와 총을 난사하여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한다. 하느님, 저희의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요? 하느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일부터 피난민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

7월 1일 토요일

지난 밤부터 내리는 폭우가 온종일 계속 내렸다. 비가 교전을 멈추게 하려나… 했는데 구름 뒤로 비행기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오키나와에서 오는 비행기들일 것이다… 비가 피난민들을 맞을 준비를 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쌀을 사놓아야 한다… 다행히 며칠 전 은행에서 수십만 원을 찾아왔다. 오늘 가서 잔액을 마저 신청하니 거절한다. 돈이 부족하여 학교 공사가 모두 중단되었다. 월요일에 휴교를 해야 할 것 같다… 한강에서 여전히 교전이 벌어지고, 정부는 대전을 떠나 전주로 옮겨가면서 미군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고 한다. 오후에 신학생 윤 필립보가 건강한 모습으로 왔다. 그는 대전으로 피신해 있었다고.

7월 2일 일요일

성체조배. 6시 반, 7시 반 그리고 9시 반에 미사를 드리며 이 전쟁은 하느님이 내리신 벌이며, 죄인들을 위해 통회하여야 한다고 강론했다. 미사 도중에 멀리서 폭발이 있었는데(나는 폭음을 듣지는 못했다), 강경 쪽의 발전소가 폭발된 것이라고 한다. 전기가 끊기고 라디오도 나오지 않으니 주민들이 전하는 소식 외에는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가 없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서에서는 성당 종을 치지 말라고 한다.

하느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저의 죄를 속죄하며 저의 삶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제가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후에 사람들이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다. 강경 발전소 폭발은 잘못 전해진 소문.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며 짐을 덜려고 했던지 빈 기름통 3개를 떨어뜨리고 갔다. 다시 전기가 들어오다. 다시 희망과 기쁨이 찾아왔다. 내일, 강경으로 가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야겠다. 주일학교 공사와 성당 지붕 칠 공사가 오늘 마무리되었다.

7월 3일 월요일

강경에 갔다. R·A·S.10) 간밤에 남아 있던 2명의 신학생, 조 안토니오와 최 베드로가 왔다. 모두 별일 없이 건강한 모습이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큰 신부와 작은 신부는 같이 서울에 남아 있다. 코요 신부와 빌모 신부로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다.

7월 4일 화요일

서울에서 피난 온 한 가족이 찾아왔다. 피난길에서 노부모를 잃었다고 한다. 2시 반경에 화물 기차 한 대가 피난민들을 잔뜩 싣고 도착했다. 피난민들은 지붕도 없는 기차에서 썩약벌을 그대로 받고 있었으며 그중 몇 명은 나뭇가지를 꺾어 그늘을 만들었다. 어떻게 피난민들을 먹일 것인가? 아직까지 그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어쩌면 체면상 그럴 것이다. 내가 먼저 다가설 엄두가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먹을 것을 주기 시작해서 그 말이 퍼지게 되면 금세 동이 날 것이기 때문에! 대전의 항공기지 근처의 주민들에게 신속히 피신하라고 했단다.

7월 5일 수요일

김대건 안드레아 복자 첫 축일. 대미사. 평화를 위해 기도드리다. 트루만 대통령이 (북한군에게) 24시간 내로 떠나지 않으면 원자폭탄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 침묵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7월 6일 목요일

트루만 대통령의 최후 통첩에 대해 북쪽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다... 군인을 실은 차가 몇 대 지나가다... 부상병들이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수원에서 또 한 가족이 피난 왔다.

7월 7일 금요일

오후에 두 번의 대포소리.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 T·F·S에서 청주와 음성(충청북도)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 미군들은 뭘 하고 있는지...? 기분이 가라앉는다.

7월 8일 토요일

특기할 만한 것이 없다.

7월 9일 일요일

11시에 대신학교 총장인 정 마르코 신부가 7명의 신학생들을 데리고 서울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왔다.

7월 10일 월요일

신학생들은 아침을 먹은 후 예산으로 떠났다. 거기서 전주나 목포로 갈 것이다. 정 신부와 박 신부는 대전으로 떠났으며, 나는 강경으로 갔다. 베르몽 신부가 말라리아를 앓고 있다.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클리어리 신부와 또 다른 아일랜드 신부들이 목포로 가는 도중 여기에 와서 점심을 먹고 편지 몇 통을 가져다 놓았다. 정 신부와 박 신부가 다시 돌아왔다. 미군들이 탱크를 몰고 와서 성당 뒤편 학교에 진을 쳤다.

7월 11일 화요일

정 신부와 박 신부가 나바위로 떠났다. 오후에 비행기 몇 대가 빠르게 지나갔다... 무슨 일일까... 매일 저녁 피난민들이 들어온다.

7월 12일 수요일

천안을 되찾은 듯하다... 어제부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아무 소식도 접할 수가 없다. 천안 전투에서 예산이나 부여 쪽으로 퇴각군이 있었다 해도 그들을 물리쳤을 것이다. 이곳, 집에서는 아무런 포음도 듣지 못했다. 비참한 피난민들이 또 서울에서부터 걸어서 왔다.

7월 13일 목요일

시잘레 신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그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 나는 최후의 순간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다. 공주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미군이 있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며 내일 돌아가겠다고 한다.

7월 14일

아침에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아서 나는 제1순위의 물건들을 땅에 묻고 불필요한 종이들은 태웠다. 베르몽 신부를 보러 강경에 갔다. 사태의 심각성에 대비해 움직이지도 못하는 신부에게 중부성사를 권했더니 신부가 받아들였다. 나는 성당의 성체들을 모두 영했다.

신부는 나보고 하느님과 다른 영혼들을 위해 그를 돌보지 말고 떠나라고 명령했다. 집에 돌아오니 빨갱이들이 공주를 넘어왔다는 소식을 듣다. 수녀들은 산 속의 공소로 피신해 갔고 고해자들과 피난민 교우들 그리고 영세자들이 끊임없이 몰려왔다. 너무 난처하다. 나도 시간이 없는데. 저녁에 박장내가 바람처럼 나타나서 “고해성사를 주십시오” 라고 하기에 나는 떠나는 참이라고, 모두들 피신해야 한다고 하자 울었다. 교우들이 나보고 피신하라고 한다. 시잘레 신부도, 베르몽 신부도 나보고 피신하라고 한다. 나는 떠나지 않겠다는 김 신부에게 성당을 맡기고 2명의 신학생과 함께 7시에 길을 떠났다.

내가 잘 하는 것일까? 이걸 비겁한 것이 아닐까? 대모험이 시작되다. 논산에서 30리 상거에 있는 …(미판독) 공소로 갔다.

7월 15일

아침에 교우들이 고해성사를 요청했다…. 나는 길을 떠나 여산, 익산, 삼례리를 지나 진주에서 성당에 들어가 3시간을 쉬 다음 다시 여정을 계속하여 교구장의 충고대로 원평리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총 150리… 교우집에서 잠을 자다…. 성무일과를 바치지 않았다. 찌는 더위.

7월 16일 일요일

지치고 녹초가 된 채로 다시 길을 떠나 정읍으로 가다. 60리 길. 주일인데 미사도 성무일과도 드리지 못하다. 정오에 신부집으로 가서 잠을 자다.

7월 17일 월요일, 18일 화요일

이따금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이곳에 머물며 신부의 대접을 받았다. 대전에서 나쁜 소식이 들려오다. 도대체 미군들은 뭘 하고 있는지? 싸울 생각들이 없는 모양이다.

7월 19일, 수요일

전라남도 장성으로 떠나다. 3시경에 어마어마한 고개(갈재)에 도달하다. 아름다운 사제관에서 쉬다.

7월 20일, 목요일

광주로 길을 떠나다. 우리의 운명을 신부의 손에 맡기다. 신부가 나를 그의 지프로 부산으로 떠나게 했다. 아일랜드 신부 한 명과 광주 전교회장 그리고 그의 아들이 나와 함께 떠나다. 그러나…(미판독) 나는 조 안당과 대전 신학생 서 요셉과 헤어져야 했다. 나는 조 안당에게 내 모자와 20,000원을, 그리고 또 한 명에게도 그만큼을 주었다. 밤중에 순천에 도착하다. 근사한 사제관. 아주 깨끗한 성당.

7월 21일 금요일

미사 후 박장래를 비롯한 논산교우 몇 명을 만나다. 많은 피난민들. 부산으로 출발하다. 길에서 전주로 향하는 많은 군인들을 보다. 큰 고개를 넘어가는 길은 장관이었다. 그러나 돌투성이의 고개를 빗속에서 넘으니 길은 멀기만 했다. 진주에서 점심을 먹다. 저녁 7시 반에 부산에 도착하여 거기서 보드뱅, 샤보, 프와요, 시잘레 신부들을 만나다. 나쁜 소식, 대전이 점령되어 화염 속에 있다는….

7월 22일 토요일

비. 고리짜들과 가방이 쌓여있는 작은 방 한 칸에서의 공동 생활... 유쾌하지는 못하다. 특히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엔. 이런 생활이 부디 오래가지는 말았으면!

췌 1951년

3월 14일 수요일

11시경에 프로망투 신부와 트럭을 타고 부산을 떠나다. 김해 - 삼랑진 - 밀양 -

밀양 쪽 광역 부분이 기관총을 든 군 차량들에 의해 검문되고 있었다... 미군들... 부산에서 아주 가까운 곳인데! 삼랑에는 도로이며 동시에 철로로 쓰이는 재미있는 다리가 하나 있다. 청도를 막 지나니 길은 긴 터널로 이어진다. 저녁에 대구에서 겨우 2시간을 쉬고 최 주교님과 타케 신부, 튀카 신부들을 만난 후 다시 길을 떠났다. 밤중에 왜관을 지나면서 운전수가 산에서 공산당들을 보았노라고 하며 몹시 놀라다.

3월 15일 목요일

새벽 4시경에 대전 내 집에 도착하다. 미군들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방 하나도 내주려 하지 않는다. 수녀원으로 가다. 수녀원은 경찰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경찰들은 우리에게 불 가까이 가서 몸을 녹이라고 자리를 내주었다. 늦은 아침에 경찰 직무실에서 미사를 드리다... 도미니코 집을 얻다. 마리아에게 20,000원을 주다. 생활이 다시 시작되다. 아침나절 3번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미군들을 사제관에서 철수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다. 저녁 늦게 보드벵, 조지 신부들이 왔다. 프와요, 샤보, 베르몽 신부들은 본당에 머물다. 베르몽 신부는 도착하는 시잘레 신부와 신부의 짐들을 맞이하기 위해 역으로 사람을 보내도록 했다.

조지, 프로망투 신부들과 함께 도미니코 방에서 자다. 조지 신부는 10시가 넘도록 우리에게 이야기 보파리를 풀었다.

3월 16일 금요일

아침에 본당에서 미사. 시잘레 신부와 짐들이 도착했다. 자동차를 고치고 음식을 만들 자리가 없어서 자동차로 시잘레, 생제, 베르몽, 프로망투 신부들은 모두 짐과 함께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공주는 빨갱이들이 와 있었다는 점을 빼고는 아무것도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한 고아가 사랑에서 묵고 있었다. 논산의 내 집은 불에 타서 내 책들이며 가구들이 모두 불에 났다. 맵소사! 무슨 참상인가! 어떻게 살라구... 자동차로 베르몽 신부를 그의 집으로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오다. 저녁을 먹은 후 프로망투 신부와 나는 전교회장 집으로 가서 잤다.

3월 17일 토요일

많은 교우들이 와서 미사에 참석하며 기뻐했다. 프로망투 신부가 떠나다. 나는 수녀들의 집에서 머물기로 결정하다. 수녀들은 김 신부의 식복사방을 쓰기로 하고 식복사는 사랑으로 옮기다. 김 신부가 오면 그를 부여로 보낼 생각이다. 각자 이사를 시작하다.

내 집을 태운 장본인은 터키군들이다. 터키군들은 빨갱이들보다 더 나에게 손상을 입혔다.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를 보내며 땀감이 부족하자 그들은 내 집의 가구들이며 학교 책상들까지 닥치는 대로 모두 땀감으로 썼다. 거기에 피난민들까지 합세한 모양이다... 울타리도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남아 있는 거라고는 소파 2개, 책상 1개, 장롱 1개, 큰 탁자 1개와 작은 탁자 1개 그리고 다 찢어지고 때묻은 책 몇 권이 고작이다... 오후부터 저녁까지 고해성사를 주다...

3월 18일 일요일

7시 반에 첫 미사. 교우들이 성당을 가득 메우다. 9시 반에 두 번째 미사에서는 성당이 덜 찼다. 성지 축성. 교우들을 보다... 살림살이들을 옮기다... 식모를 구하는 중인데 사람 찾기가 어렵다.

3월 19일 월요일

5명의 일꾼을 채용했다. 목수 1명에게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수리를 하게 하였고 다른 2명에게는 불에

탄 집의 기왓장들과 돌들을 주어 모으고 아주 망가져 버린 성당 입구에 돌을 깔게 했다. 다른 두 사람은 ... (미판독) 이 일을 맡아준 전교회장에게 감사한다. 나에게 인사하러 찾아오는 방문객들 때문에 방해가 되고 일을 할 수가 없다. 기분이 우울하고 불평이 나오며 ... (미판독) 아무 의욕이 없다. 두 차례의 피난살이... 모든 것을 잃었고... 작은 집에서 살고... 하나부터 열까지 내 맘에 안 드는 장상 신부... 이제까지 해온 일들... 모든 수리 작업들... 쓸데없는 일이 되었다.

3월 20일 화요일

어제처럼 5명의 일꾼들. 부산에서 떠나오기 바로 전날 엄마로부터 받은 씨앗들을 심었다. 추운 날씨. 야채밭 도표는 이렇다.

그림: 야채밭

3월 21일 수요일

어제, 그저께처럼 5명의 일꾼. 목수가 문을 고쳤고 길포장을 끝내고 쌓아놓은 흙은 다 치웠다. 땅을 고르고 보리밭에 불을 놓다.

3월 22일 성목요일

몹시 추운 날씨. 바람. 아침 미사, 강론, 150명의 영성체자, 거금을 들인 야외 임시 제단. 성체 행렬 동안 제대의 감실을 임시 제단 위로 옮기다. 온종일 고해성사. 아침엔 빨갱이들이 점령할 당시 했던 혼인 하나를 수정해주었다. 추위로 배앓이를 얻었다. 무너져 내리게 생긴 헛간을 고치다... 여전히 우울한 감정... 떠난다는 소문... 오는 사람을 막지는 않는다... 고통과 시련의 필요성에 대해 좋은 생각으로 나 자신을 위로해 보지만 나 자신을 속이는 것 같다. 나는 하느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같다. 하느님,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저에게 평화와 겸손을 주십시오.

3월 23일 성금요일

고해성사 - 성금요일의 미사... 종 안에서 양탄자를 찾아내다.

3월 24일 성 토요일

부활 대성초가 없어서 일반양식으로 성수를 축성하다. 성인 성녀 호칭기도를 암송하게 하다. 미사를 드린다. 종일 고해성사를 주었다. 저마다 고해성사를 보려고 북새통을 이루는 바람에 오후부터는 죄만 고하게 하고 고백기도는 생략시킬 수밖에 없었다. 지난 주일부터 대략 800명에게 고해성사를 주다. 저녁에 교우들은 내 방에서 잠을 자고 나는 밤새 강론 준비를 하다.

3월 25일 부활 대축일

종일 비가 내리다. 수많은 영성체자들.

7시 - 첫 미사. 어린이 성가로 드린 어린이 미사. 500명의 영성체자. 9시 30분에 대미사를 드린다. 200명의 영성체자. 11시 반에 배급소에서 밥을 먹고 처음에 5명 그리고 2명, 또 2명에게 세례를 주었

오늘의 강론은 “기쁨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기쁨은 진리와 성자를 아는 데 있다. 그것은 성령 안에 실체로 계신 성부의 기쁨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 용약하십시오. 이는 사실이며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 이는 또한 영혼의 휴식이다.” 이러한 강론 내용이 무척 흥미진진했던지 어떤 이들은 입을 벌리고 들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아! 하며 감탄했다.

3월 26일 월요일

성가회 수녀 한 명을 기차역까지 차로 배웅해주고 강경에 가서 베르몽 신부를 보고 그리고 나바위에 가서 앓고 있는 김 신부를 방문한 뒤 다시 강경으로 돌아가 엄마가 보내주신 꽃씨를 심고 고해성사를 보고 책 몇 권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무렵, 내일 종부성사를 달라는 소식이 왔다.

### 3월 27일 화요일

아침 7시에 혼인 한 건이 있어 서약서를 작성한 후, 아침을 먹고 미사 가방을 챙겨 여산(논산에서 11km 떨어진)으로 종부성사를 주러 출발. 5일 전 빨갱이들이 그곳에 쳐들어와 8명을 죽이고 가옥 여러 채를 불살랐다. 진 루시아에게 종부성사를 주고 돌아오는 길에 목리의 전교회장이 역시 그의 노모에게 종부성사를 줄 것을 청했다.

12시 정각에 집으로 돌아와 이틀간 공소방문을 위해 은진으로 곧장 떠났다. 종부성사 2건으로 인해 출발이 늦어진 셈이다. 너무 불을 많이 때 더운 작은 공소방에서 고해성사를 주기 시작했다. 55명의 고해성사자. 30km를 걸어온 데다 방안이 너무 더운지라 간간이 즐기기도 했다.

### 3월 28일 수요일

7시에 미사. 성수 축성과 강론. 다소 망가뜨려 놓은 성당 안에 심지어 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기도 했으나 내가 성당의 주인임을 보여주기 위해 굳이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싶었다. 미사 후, 한 병자에게 병자성사를 주었고 4명의 어린이에게 추가 세례를 주었다.

점심식사 - 고해성사 - 저녁식사 - 고해성사

게릴라전이 있는지라 내가 타지의 공소로 이동하기보다는 교우들이 찾아오기를 원하여 많은 교우들이 타지에서 이곳으로 찾아왔다. 공산당들이 사제관에서 훔쳐간 내 책 2권을 찾아다 주었다.

저녁에 어린이 3명에게 또 세례를 주었다. 그리고 교우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고 몹시 피로한 채로 잠자리에 들었다.... 부활 주간 동안엔 성무일과가 짧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 3월 29일 목요일

어제처럼 소성당에서 7시 미사를 드렸고 강론을 했다. 그리고 교우들과 작별 인사를 했다. 부관구장이 없는 관계로 나는 성함에 성체 6개를 담아 인근지역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병자와 장애인 6명을 방문했다. 신체가 부자유한 한 노인에게 견진성사를 주고 성체를 모시게 했으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또 한 명의 맹인 노인에게도 견진과 성체를 주었다. 그리고 어제 방문했던 노인을 찾아가 성체를 베풀고 종부성사와 전대사를 베풀고 냉담 중에 있는 12살짜리 소녀를 방문하여 첫 고해성사를 보게 하고 첫영성체를 모시게 해주고는 그곳에서 4, 5km 떨어진 곳의 한 노인을 방문했는데, 그 노인은 허리가 직각으로 굽은 채 걸어야 하므로 성당에 나오질 못했다. 그 노인에게 견진성사와 성체를 베풀고 전날에 해산한 그의 며느리에게도 견진과 성체를 베풀었다. 그리고 기회를 이용하여 새로 태어난 신생아에게 세례를 주었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12시 30분에 논산으로 돌아왔는데 날씨가 추운데다가 바람이 불고 소나기가 쏟아졌다. 그래서 한 곳의 종부성사를 내일로 미루기로 걱정했는데 오후에 그 집에서 사람을 보내 그 집에서 나를 원치 않는다고 전갈을 보냈다.... 잘됐지, 나도 안 갈 것이다!

### 3월 30일 금요일

밤새 얼어붙는 추위가 있더니 아침 10시경부터는 기가 막히게 화창한 날씨로 변했다. 감자를 심고 엄마가 보내주신 꽃씨를 심었다.

그림: 화단

저녁에 박 미카엘이 찾아와 중공군 60만 명이 전선으로 내려와 후퇴하고 있던 10만 명과 합류했으니 얼마 안 되는 유엔군이 도합 70만 중공군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하느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 3월 31일 토요일

오늘 백리향과 사리엣(sariette)을 심고 딸기를 모종했다.

### 4월 1일 일요일



미사. 토마 성인의 죄와 회개에 대해 강론. 어린이들, 젊은이들과 성체 강복 후 길을 닦고 청소를 좀 하게 했다.

4월 2일 월요일

아침에 현 마르코와 이 방지가, 이 시몬과 박 바르베, 두 쌍의 혼인식이 있었다. 이 시몬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여 혼인식 때 답변을 해야 하는데 약간의 차질을 빚었으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잘 답변했으며 배우자 역시 더 훌륭하게 해주었다. 점심식사 후 20km 떨어진 곳으로 공소방문을 했다. 신학생 2명이 함께 가 주었다. 오늘 돌분리 마을에서 56명의 고해자와 교우 자녀들의 세례가 있었다. 아이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교리교육이 거의 불가능했다. 저녁기도 후에 나는 다른 집으로 숨어 피신하여 잠을 자야 했다. 공산당들을 염려하여 6명의 교우가 내 옆방에서 나를 지켜주었다.

4월 3일 성 요셉 축일

미사 후 성가를 부르게 되었다. 하마리로 떠나 56명에게 성체와 고해성사를 주고 9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한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교리를 모두 배우지는 못했으나 빨갱이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갔다. 작년에 처음 그 식구들을 보았는데 지난달 8일에 할아버지 장례를 치렀다고!

4월 4일 수요일

장마루 공소방문을 위해 12km 걷다. 25명에게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베풀고 전교회장이 없는 가운데 4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겨우 3명이 와서 세례식을 구경했다.

4월 5일 목요일

10시 반에 이곳, 논산으로 돌아오다. 내가 집을 비운 사이 회장이 울타리의 일부를 손을 보아놓았다.

4월 6일 금요일

강경의 베르몽 신부 집에 가서 반나절을 보내고 돌아와 다알리아 몇 그루를 심었다.

4월 7일 토요일

엄마가 보내주신 콩을 심었다.

a - 작은 흰 콩 b - 붉은 콩 c - 굵은 흰 콩

그림: 콩밭

4월 8일 일요일

아침 미사 때 소유권에 관해 강론을 하여 공산주의자들에게 일침을 놓았다. 오후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신 몰리나르 신부의 본당으로 출발했다. 신부의 공소들을 전부 방문하여 부활 판공 성사들을 주어야 한다. 온통 자갈길이고 험한 길이라서 오후 5시나 되어서야 신부의 본당에 닿았다.

4월 9일 월요일

보름간의 공소방문이 시작된다 생각하니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었다. 결국 잠자리에서 일어나... 미사를 마치자마자 가방을 꾸려 고니암으로 떠나다. 순교하신 몰리나르 신부를 많이 도왔던 김 야고보가 나와 동행했다. 시간이 꽤나 촉박한 상태로 60명에게 고해성사를 주었는데 신입교우가 많은지라 몰리나르 신부는 그곳에 성 요셉 성당을 짓기를 원했으므로 결국 유언으로 나에게 그것을 물려주었던만 이 전쟁통에 어떻게 성당을 지을 수 있을지 방법이 없다.

4월 10일(화요일), 11일(수요일)

미사 후 산 속에 위치한 한 교우촌을 방문하기 위해 대양으로 출발했다. 정오경에나 그곳에 도착하여

50, 60명에게 고해성사를 주었고 한 나병환자를 위해 그의 방으로 직접 들어가 고해성사를 주었다.... 대양은 구교우촌이라 상고리 교우들이 이곳으로 오기로 되어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 겨우 4, 5명의 교우만 왔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는 교우들이 모두 당일엔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들을 머물러야 했다. ... (미판독)

4월 12일 목요일

고칠리를 향해 출발. 박해 시대에 산으로 피신해 간 아주 오래된 교우촌인데 이제는 겨우 네 다섯 가구만 남아 있다. 너무나 가파른 산을 올라야 했으므로 자전거를 들고 따라올 사람을 하나 구할 수밖에 없었다.

4월 13일 금요일

미사 후에 임종을 맞는 한 노인에게 성체를 모셔갔는데 종을 울리며 교우들이 일렬 행렬을 이루어 뒤를 따라와 무척이나 인상적인 성체 거동이 되었다. 점심 식사 후 도화담을 향해 떠나 도화담 교우들뿐만 아니라 웅기촌인 무수리 교우들도 만나야 했다. 너무나 시간이 촉박한 채로 오전에 105명에게 고해성사를 주었고 오후에 9명의 세례와 교리문답이 있는 후 약간의 휴식 겸 담소 시간을 갖고 나는 목주기도를 바친 후, 밤 11시가 되어 녹초가 되어 잠에 들었다.

4월 14일 토요일

금지를 향해 출발. 도중에 어제 오지 못한 무수리의 병자 3명에게 성체를 주고 한 어린이에게 세례를 주었다. 금지는 작은 새 교우촌이다. 그곳의 전교회장을 사임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남편과 헤어진 한 여자와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회장으로 임명했다. 공산군이 쳐들어오자 몰리나르 신부는 그곳에서 8일간 숨어 지냈다.

4월 15일 일요일

꽤 먼 거리의 가덕리로 출발. 여기서도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고해자 70명. 권면과 함께 1건의 혼인성사가 있었는데 신랑은 69세... 그들은 40년을 함께 살았단다...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셈.

4월 16일 월요일

몽산읍의 교우들은 웅기장이들뿐이라 유감이다. 왜냐하면 웅기장이들은 종종 술을 마시고 쉽게 처를 바꾸어 나쁜 표양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4월 17일 화요일

고당리. 50명의 고해자. 그들은 선하고 착한 농민들이다.

4월 18일 수요일

물미와 방죽의 교우들이 금사리로 오기로 되어 있어서 미사 후 금사리로 들어가 한낮을 쉬고 20명에게 고해성사를 주었다.

4월 19일 목요일

아침에 부인네들에게 성사를 주고 오후엔 소녀들과 고해자들에게 양심 성찰을 받게 했다.

4월 20일 금요일

오늘은 남정네들에게 어제와 똑같은 일정을 치르게 했다. 정오 정시에 홍산에 중부성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나는 주님과 함께 험한 길을 걸어가서 중부성사와 노자성체를 주었더니 병자는 2시간 후에 입

중하였다. 성당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교리시험을 치르게 하고 좀 뒤늦은 고해성사를 받게 했다. 뽀뽀한 일과 중에서도 성무일도를 바칠 틈을 찾아야 한다.

4월 21일 토요일

아침에 3건의 혼인성사가 한꺼번에 있었다... 신랑들은 신부들 옆에 서기를 꺼리는 바람에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따로 모아놓을 수밖에...! 전교회장이 미리 그들에게 질문을 했던 터라 내가 또 할 필요는 없었다. 오후엔 미처 고해성사를 보지 못한 교우들에게 성사를 주느라 하루를 보냈다.

4월 22일 일요일

미사와 강론... 73세의 생일을 맞은 이 시몬 신부님 댁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 15명의 아이들에게 세례성사를 주었는데 무척이나 소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이들은 조용했다. 오후엔 모든 세례자들과 혼인성사자들을 그날 그날의 영적 일기에 적어 놓았다. 그리고 몇 명의 고해성사자. 몰리나르 신부의 옷가지와 가구들을 챙겨 달구지에 실었다.

4월 23일 월요일

미사 후 논산으로 출발. 정오나 되어 논산에 도착. 별일은 없고 다만 날씨가 너무 추운 탓에 야채들이 하나도 자라지 않았을 뿐.

4월 24일 화요일

강경에 가서 베르몽 신부를 만나고 휴식을 취했다. 새로 얻은 식복사가 오늘부터 일을 시작했다. 저녁에 라디오에서 들리는 소식이 아주 불길하다. 중공군이 엄청난 인명 손실을 입어가면서도 전선을 넘어왔다는... 유엔군이 후퇴한다는... 하느님, 또 피난을 가야합니까!

4월 25일 수요일

고향 생각에... 야채 밭에서 조금 일을 한 뒤에 쉬었다.

4월 26일 목요일

공주의 시잘레 신부가 나를 찾아왔다. 그에게 이곳을 안내해 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새로 온 식복사에게 유럽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4월 27일 금요일

드디어 폭우가 쏟아진다. 모든 게 가물었던 차에 때맞추어 내린 비... 시잘레 신부가 떠나다.

4월 28일 토요일

강론 준비. 비는 계속 내리고... 고해성사를 주다.

4월 29일 일요일

미사에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 많은 고해자들. 계약에 관해 강론을 하고(그전에 주의사항들에 관해 길게 이야기를 했다), 특히 성모성월에 관해 강론을 했다. 오후에 아이들에게 교리 시험을 치르게 했다(일 년에 두 번 있는 것을 부활절 전에 치르지 못했었다).

젠장할! 혼인성사 신청자들의 상당수가 조당에 걸린다... 고등학교 학생인 나 마리아는 외교인 선생과 아이 하나를 가졌다! 이 안나는 이미 처가 돌이고 아이까지 하나 딸린 형사 부장과 혼인할 생각이며... 과부 흥 테레사는 어느 외교인과 함께 살고 있으며... 함 안드레아는 어느 외교인 여자와 함께 사는데 그 여자는 성사를 받기를 원하고 교리를 배웠으나 함 안드레아의 아들이 그녀의 돈 20만 원을 훔치는 바람에 그의 아들과 그녀는 서로 불복상태이다... 가지가지의 사례들... 또 다른 사례들도 있겠지.

4월 30일 월요일

남자아이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 아이들이 아는 것이 없었다. 전쟁통에 아이들은 배운 걸 모두 잊었다. 저녁에 평화를 지향하며 성모성월을 시작했다.

5월 1일 화요일

여자아이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했더니 여자아이들은 좀 아는 게 있었지만 전쟁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다. 엄마의 편지를 받고 90세 하고도 반년을 사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비록 긴 세월 동안 병고를 치르셨고 워낙 연세가 있으셨던 할머니시지만 이제 당신의 어머니를 잃으신 엄마에게는 커다란 아픔이 될 것이다.

5월 2일 수요일

하루 종일 고해성사.

5월 3일 목요일

...(미판독) 장이 서는 날... 교우들이 많이 왔으나 많은 교우들이 휴식을 취하지 않고 일을 하거나 학교에 간다. 오후에 강경에 가다.

5월 4일 금요일

아침에 지밭 공소를 방문하고 오후엔 들머리 공소를 방문하여 양심성찰을 하게 하다.

5월 5일 토요일

R·A·S

5월 6일 일요일

아침에 2대의 미사를 드렸는데 많은 신입 교우들이 참석했다. 대미사를 드리고 아침을 먹은 후 전교회장과 함께 나바위로 갔다. 그곳의 김 바오로 신부께서 오늘 은경축을 맞았다. 전주의 이 신부가 내가 지은 소책자 “합송미사”를 다시 인쇄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싶다. 군산의 박 베네딕토 신부를 만났다. 그는 베르나르 신부 그리고 전주의 김 보좌 신부와 함께 수많은 공덕을 쌓는 사람이다.... 유쾌한 하루... 교우들은 순수한 한국식으로 지극하게 그들의 목자를 축하해주었다.

5월 7일 월요일

아침에 은진미륵과 지밭의 두 병자를 방문하고(1명에게는 종부성사를 주었다), 돌아와 성무일도를 바친 후 관면과 함께 1건의 혼인성사를 준비했다. 그런데 신랑, 신부될 사람들이 오지 않아 나는 등화동 공소로 가서 아이들을 만났다. 공소가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늘 문제가 된다. 너무 가까우면 가까워서 성당엘 나오지 않고 너무 멀면 멀다고(5km) 주일 미사에 빠진다.... 열의가 부족한 탓이다. 저녁 7시나 되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신랑, 신부 될 사람들이 정오부터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증인들을 두고 제의실에서 그들에게 혼인성사를 주었다.

5월 8일 화요일

날씨가 화창하여 지난번에 심지 못한 작물들을 다시 심었다.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성령 강림 축일 준비. 고해성사.

5월 13일 성령 강림 대축일

두 차례의 미사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많은 비신자들과 신입교우들이 참석하다! 두 번째 미사

후에는 멀리서 온 교우들과 성체를 모시지 못한 이들에게 고해성사를 계속 주었다. 11시 반까지 성사를 주고 점심을 먹은 후 3명의 어린이에게 세례를 주었다.

5월 14일

강경에 다녀오다.

혹독한 시련을 겪은(그 시련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니지만) 교우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다져주고, 외교인들의 관심도 끌 겸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약도 올릴 겸 검사겸사로 지낸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모자라지만 올해는 성체 거동을 하기로 걱정했다. 저녁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 오래 전부터 기다리던 단비가 내렸다.

6월 15일

단비가 그치자 당근과 상추를 모종하여 옮겨 심고 배추, 순무, 무를 이러한 순서대로 심었다.

그림: 채소밭

6. 성재덕 신부님을 회고하며11)

김 돌로로사(종순) 수녀

성 신부님 말씀이 “너희들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일한다 해도 밥 먹는 사람 있는가 하면, 밥 못 먹는 사람 있어... 버려진 사람 중에도 더 버려진 사람을 찾아다니시오.” ... 일을 하다 보니까 성 신부님께서 나환자를 재우신 그 핵심을 알아들을 수 있다.

김 화밀리아(선례) 수녀

신부님께서서는 커다란 보자기로 쥐를 만들어서 재미있게 놀아주셨는데 그 쥐가 정말 팔딱팔딱 뛰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술쟁이 신부님이셨습니다.

유치원 끝날 시간 되면 집에서 데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기 싫어서, 신부님하고 더 놀고 싶어서 사제관 여기저기 숨었다가 붙잡혀서 갔던 기억이 나요.

영세 아버지 신부님께서 세우신 수도원에서 살게 되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 신부님과 맺어진 깊은 관계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당에 계단이 있었어요. 계단에 아이들을 쪽 앉혀놓고 무서운 그림이 그려진 불란서 케도를 걸어놓고 교리를 가르치셨어요. 교리보다도 다 끝난 뒤 우리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시는 게 더 좋았어요. 사제관이 완전히 개방돼 있었죠. 사제관에서 맛있는 사탕 같은 것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성 신부님께서 우리들을 굉장히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거절을 모르시는 신부님, 언제든지 가도 식사 하시다가도 그냥 당신 무릎 위에 앉혀놓고 식사하시고... 늘 우리하고 같이 놀아주시는 신부님,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교리를 하실 때 신부님은 지루하지 않게 하셨어요. 설명적으로 하신다거나... 그런 기억은 없고... 재미나게, 하여튼 시청각 교육을 많이 이용하셨어요. 그림 케도를 걸어 놓으시고... 마귀 이야기를 하실 때 신부님은 풍선 같은 걸 막 주무르시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섭다고, 신부님께 무섭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천당을 묘사하실 때는 아주 재미난 곳, 따뜻한 곳이라고 느껴지게 하셨어요. 그때 제 기억에는 신부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감히 우러러봐야 할 분인데 그런 신부님 옆에서 같이 놀고 수단 자락을 붙잡고 하니 나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선별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김 베아트릭스(정자) 수녀

논산에서 성당을 지으시는데 그때 시절이 너무 가난하니까 다 외국에 원조를 청하셨어요.

우체국 심부름을 제가 하루 걸러 한 번은 했을 거예요. 당신은 방에 불을 안 때셔서 병이 나셨어요. 사무실에 난로 하나만 때고 침방은 불을 못 때게 하셨어요. 성당 벽돌 하나 없어진다고... 너무 검소하게 사셨어요. 감자, 빵도 직접 구워서 잡수시고 사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과 신자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는 당신의 시간을 다 바치다시피 하셨어요. 오로지 사목뿐이셨지요.

가난하면서도 성체 거동은 매년 했어요. 시골이니까 농사를 지어야만 학생들이 학비를 가져오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 선생들 봉급을 줄 수가 없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때 잠 못 이루시면서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지시기도 하셨고... 오로지 양들을 위한 삶이었어요.

정말 그분은 사제로서 해야 할 것을 못하면, 남에게 해줘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 괴로워하시더라구요. 너무너무 철저하게 사셨어요. 규칙 하나도 어기시는 일이 없는 분이셨어요. 교회가 명하면, 교황님께서 원하면 하나도 어기지 않고... 열심으로 사셨어요.

그분은 성체성사에 대한 마음이 너무도 뜨거우셨어요. 다른 곳이나 서울 근교에서는 성체 거동을 못하는데 수녀원은 이렇게 넓으니까 수녀원에서라도 해야 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참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란서에서는 성체 거동 때 집집마다 깨끗한 보자기에 예쁜 꽃들을 단대요. 홀이불 하나 가져다가 이렇게 하여 만국기를 걸고는 저더러 거기다가 꽃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준비하는 기쁨이 크다며 옆에서 보시면서 아주 좋아하셨어요.

성가 수녀가 부자가 된다고, 병원이 자꾸 커지니까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무섭다... 내가 멋모르고 철없이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렇게 걱정하셔서 하느님한테 다 맡기시라고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신부님은 처음에 아주 가난하게, 작게, 이렇게 소비녀로서 살아갈 것을 원하셨는데 점점 수도회가 커지면서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우리 신부님은 아주 단순하세요. 단순. 그래서 수도원을 세우셨을 거예요. ‘아, 하느님이 정말 단순한 자를 선택하신다’ 싶었어요.

항상 가난한 사람! 신부님은 어디서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셨어요.

홍산에서도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신자들에게 가마니를 짜라, 가죽을 기르라고 가르치셨어요. 신부님이 신협을 시작하실 때 그것은 정말 밀알 하나를 심는 일이었죠. 하여튼 언제나 마음 쓰시는 건 가난한 사람, 언제나 가난한 사람 잊으면 안 된다,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은 나누라는 거죠.

수녀원으로 오신 뒤에도 수녀원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셨어요. 재봉틀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라고 하시고 재봉틀을 한 20대쯤 준비해서 나눠주시기도 하셨어요.

안나의 집 시작할 때도 주변 사람들에게 수녀들이 무엇을 하고 사는 사람들인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그래서 그 안나의 집을 시작한 거죠.

그때만 해도 우리 수녀원 담 밑으로 사람들이 움막 같은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녀원이 넓은 터를 가지고 있다고... 아이들이 들어와 뛰어 놀 수도 없는데 이렇게 살면 되나 걱정하셨어요.

유치원 아이들을 보면 신부님은 너무너무 예뻐서 잡아먹고 싶다고까지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침에 저기서부터 재재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창문을 열고 내다보셨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창문 밑에 다닥다닥 모여들어 신부님보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쥐 만들어 달라고... 신부님이 손수건으로 쥐를 만들어서 던지시면 아이들은 막 합성을 질렀어요. 아이들이 신부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따랐어요.

노래도 너무 좋아하시고 하여튼 천진난만하셨죠. 아주 단순하시고... 하루하루 생활이 정말 예수님을 보시는 듯 사시는 것 같아요.

수녀들의 영적 강론을 못 해주는 것을 가장 아쉬워하셨어요. 이것을 제일 힘들어 하셨어요.

최승룡(테오필로) 신부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린이들과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같이 놀고, 당신 방을 완전히 개방하시고, 같이 뛰시고... 어린이들을 정말 사랑하셨다고 기억합니다.

조기교육을 많이 시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당히 어린 나이에 견진 준비, 첫영성체 준비를 시키셨는데 제 경우에는 다섯 살 때에 견진을 했습니다... 노 주교님이 어떻게 이렇게 어린애를 견진을 주느냐고 하셨을 때 “견진 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라고 하셨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성가소비녀회가 너무 외적으로만 발전을 해나가고 창립정신에서 조금 빛나가지 않나 걱정을 하시던 생각이 납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 또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을 사목생활에서 계속 실천하셨고 말년에는 수녀원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시면서 수녀님들의 영성생활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많이 애를 쓰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실 때 당신이 성가소비녀회를 창립할 때의 정신과 달리 자꾸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고 신부님 방에서 놀았고 신부님과 함께 마당을 뛰어다녔어요. 그때 우리 나라에 놀이기구가 별로 없을 텐데, 목수를 시켜서 손수 놀이기구를 만들기도 하시고 불란서에서 놀이기구를 가져오기도 하셨고...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방이 항상 열려 있었으니까 노크라는 것을 한 적이 없고 언제든지 들어가서 놀이기구를 가지고 나와서 놀다가 갖다 놓고... 신부님도 나와서 우리와 같이 뛰며 놀아주시곤 하셨어요.

여름이 되면 복사단들만 따로 데리고 부산 공소에 가서 며칠을 지내셨는데 그것이 복사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체험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신학교에 가게 된 것이 그런 신부님의 특별한 배려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아주 온화한 모습이셨어요. 그게 타고난 거라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모습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였던 것이 참 놀랍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자면 얼굴 찌푸릴 때가 더 많은데 그런 모습을 전혀 뵈지 않았어요. ‘성 신부님’ 하면 모습부터가 상당히 온화한,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한 모습으로 미소를 지니고 사셨던 온화함이 제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장익(요한) 주교

아주 아주 따뜻한 분이시고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이시고 교우들 사목하는 데에만 온 마음을 다 쏟으신 분이세요. 그런 열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아이들한테 아주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살피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성 신부님 방을 자기 방처럼 막 드나들면서 그곳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주일이면 주일 미사 끝나고... 오후에 우리들 다 데리고 신부님 방에 가서 반나절을 노시는 거예요. 매 주일 와글와글 하는 애들을 다 데리고 가서 함께 노셨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 얼마나 애들에게 마음을 쓰셨을까... 사목생활 하면서 그게 여간한 정성과 애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임을 나중에야 깨달았죠.

성체 모시고 가실 때는 절대로 말도 못 걸게 했어요. 절대 침묵을 했습니다. 성체 모시고 가는데 지껄이는 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성 신부님의 신앙이시지요. 우리와 다르셨어요.

성 신부님 자신이 워낙 대가족이었지요. 동기가 열 셋인가... 그래서 동생들도 많았고 집안에 조카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끔 우리들한테 식구들, 조카들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건 내 조카들이고, 몇 째 동생이고...” 대가족이었어요. 그 애들이 보던 만화책을 배로 부쳐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은 우리들을 모두 앉혀놓고 만화책을 이렇게 들고 불어로 돼 있으니까 번역을 해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재미있으니까 맨날 앉아서 그 만화 들여다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만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거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친구에게도 나누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 아닌 애들도 많이 데리고 와서 놀았어요. 그중에 많이 영세를 했지요. 자주 성 신부님께 가다 보니까 좋아지고 점점 관심을 갖게 되니까 말이에요.

교리반도 신부님이 주로 하셨어요. 신부님이 아이들을 모아 놓고 어린이 교리를 가르치셨어요. 철저히 가르치셨어요.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다니셨어요. 어느 집에 아기 어머니가 앓고 있다든가 하면 찾아가시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서 보살피게 하셨어요.

어떤 나환자가 있었어요. 아주 병이 깊어서 코가 다 떨어진 그런 나환자예요. 그런 사람이 누더기를 입고 찾아와 죽는 것만이라도 사람같이 죽게 해 달라고 신부님께 청했나봐요. 성당에 신부택 건너편에 요만한 공간의 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다 신부님이 그 사람을 눕혀 놓고는... 아주 물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흉악했어요... 그런 사람을 날마다 가서 옷 갈아 입히고 씻기는 거예요. 당신 손으로. 그야말로 몸이 다 썩어나가는 사람인데... 우리들도 놀랐거든요. 그렇게 심한 환자를 신부님이 날마다 들어가서 간호를 해주시고 씻겨주시고 교리를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나환자 하면 근처에만 가도 옴는 줄 알았거든요. 무서웠거든요... 길에 지나가면 저만치 비켜 가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신부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아끼신 분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요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좀처럼 없을 겁니다.

신부님은 용심단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마다 늘 신학교 마당에 가서 노셨어요. 그땐 미처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그 속에 다 뜻이 있었던 거예요. ‘신부님이 맨날 신학교에 데리고 가서 노신 이유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신학교를 가까이 느끼고 사제성소에 대해서도 마음에 품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셨을 거다...’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용심단도 그런 일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게 복사하고 신학교 간 사람이 적지 않아요. 사제가 된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늘 권장하시는 게 가정에서의 기도, 식구들이 다 같이 하는 기도를 꼭 하라는 것이었어요. 많이 했구요. 주일미사는 될 수 있으면 가족이 같이 오도록 하셔서 우르르 다 같이 다녔지요. 으레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한번은 아주 걱정하면서 “큰일났다, 큰일났다, 우리 본당에 냉담자가 셋이나 있어” 아주 근심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냉담을 한다든가 잘못되면 목자로서 죄를 얻은 것으로 여기셨어요. 굉장히 책임



감을 느끼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자식 하나 잃어버리는 것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인상에 남아 있어요.

직접 대놓고 “너는 신학교 가라, 꼭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은 하지않으셨지만 그렇게 은연중에 오랫동안 성 신부님과 가까이 지내고 자라면서 알게 모르게 신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성 신부님이 아버지 신부님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성 신부님 같은 신부님이 우리 나라에 100명만 계셔도 이 나라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나의 집을 굳이 본원 마당에 지으라고 당신이 고집을 하셨다고. 그 이유가 첫 번째 창설 목적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눈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한시라도 정신을 잃지 않고 몸으로 봉사를 실천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눈앞에 늘 보고 살아야 총원의 정신이 바로 서게 된다고 하셨어요.

두봉(레나도) 주교

성 신부님을 알게 된 것이 꽤 오래 되었습니다.... 1955년... 그때의 성 신부님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착한 목자였다고 할까요? 단순하고 순진한 신부로 다른 사람들도 종종 놀렸지요.

농촌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학교를 설립하시고 어린이처럼 좋아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성체 거동을 매년 꼬박꼬박 논산에서 거행했는데 그때마다 성 신부님께서 준비를 잘 해주시고... 그때 대전교구에 모범신부라면 성 신부님과 방 신부님 두 분으로 모두들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모범이 되셨지요.

대전교구 레지오 마리아를 성 신부님이 제일 먼저 시작하셨고 전교를 하는 데 열을 내시는 신부님이었습니다.

성 신부님은 성체 거동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어딜 가시든지 성체거동을 많이 하셨는데 성체에 대해서 별난 신심을 가지셨던 것보다 신앙대회였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전교가 될 수 있고 신자들에게도 신앙을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지요. 전교를 하고 싶은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셨다는 것은 사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려야 되겠다는 선교사로서의 근본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참 열심히하신 분이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미사책을 처음 만드셨어요. 그 당시, 앞서가는 신부님이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본당에서 아이들이 어른들과 똑같이 미사를 했었지요. 아이들이 심심했을 것입니다. 자기들한테 맞는 성가가 없어... 성 신부님이 작사, 작곡하셨는데 그것이 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젊은 신부로서 한국에 왔거든요. 저도 스물다섯 살이었습시다. 그때 파리외방전교회 선배들이 많지 않았습시다. 대다수가 6·25 때 납치당하고, 순교하시고 그래서 몇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선배들을 보면서 사목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 신부님이 논산에 있었는데 우리의 눈에 늘 모범적으로 사목하시는 선배로 보였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시는 참 착한 목자다, 순수한 목자라고 느꼈습시다. 성 신부님은 정말 모범 신부였습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순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지 못할 것 같고 우리는 그만큼 순진하지 못했다는 엉뚱한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단순하셔서 “아휴, 참 이런 사람도 있

다. 대단한 사람이다” 싶었어요. 따라갈 생각을 못했지요. 따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세심중이라고 할까... 자기 자신을 큰 죄인으로 보고 걱정하는 분이셨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성 신부님이 “큰일났다. 남들이 나를 나쁜 신부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여자들 가운데 사는데 신부가 그럴 수 있느냐” 고 하셨어요. 그만큼 단순한 신부님이셨어요. 성 신부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 순진한 분이셨기 때문에 주님의 좋은 도구가 되었지요.

성 신부님이 레지오 마리아를 논산에서 시작하셨는데 저는 그때 대전 대흥동에서 보좌 신부로 있으면서 레지오 마리아를 통해서 전교가 많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레지오 마리아 만들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그건 어느 모로 보면 성 신부님의 도움이라고 할까요, 제가 레지오 마리아를 처음 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성 신부님이 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받아들였고, 대흥동 본당에서 레지오 마리아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본당에서도 레지오 마리아를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지요.

신학교가 순교자처럼 살아야겠다는 분위기였어요. 매일 순교자 기념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목숨을 내놓겠다는 그런 마음을 지녔었어요. 한국에 가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에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선교를 떠나왔습니다.

정말 순교할 각오를 하면서 오셨을 겁니다. 그 당시 신학교 분위기가 선교를 중요시하는 때였고... 그때 파리외방전교회를 “순교전문대학” 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순교를 할 것을 각오하면서 대학에 다녔다는 말이지요.

윤사균(바오로), 박종례(막달레나)12)

신부님은 흰 고무신을 잘 신으셨어요. 무조건 흰 고무신에 수단을 입으셨는데 주례할 때도 한국 고무신을 꼭 신으셨어요. 인자하시기는 한없이 인자하셨어요.

신자를 만들어서 혼배를 하게 해야겠다는 그 마음뿐이셨지요. 문답책을 사 가지고 와서 일 주일씩 가르치게 하고 일 주일 후에 신부님한테 가서 참고를 하고 난 뒤에 혼배를 하도록 하셨어요. 성 신부님 앞에서 문답을 잘 외우면 수고했다고 좋아하시며 “아, 머리 좋아, 머리 좋아” 하고 칭찬하셨어요. 그렇게 혼배를 했어요.

신용협동조합을 만드시면서 “어려운 사람들, 돈이 급한 사람들을 우리가 모아서 그 사람 주었다가 스스로 갚게 하고, 또 집을 사려면 목돈을 주고 차츰 조금씩 갚게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러면 전교도 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하시며 시작을 하셨지요.

가마니틀과 새끼틀을 사주셔서 가마니 짜서 이익을 내었고, 닭도 길러보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김용태(베네딕도) 신부

주일학교 미사에서 강론하시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 가르쳐주셨던 기억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고해소에서 자상하게 들어주시고 때로는 위로해주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사를 마치고 나오니까 레지오 기도문을 몇몇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어느 날 모이라고 해서 레지오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임원구성을 해서 그 다음주부터 레지오가 시작됐습니다. 냉담하고 있는 친구들을 찾아오라고, 친구들 중에 친한 친구가 하느님을 모르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선교의 일환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추운 겨울, 당신 혼자 계실 때는 아마 난로를 피우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들어가면 그때 불을 피워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놀다 갈 수 있도록 항상 배려해 주셨습니다.

성당 기초공사 하실 때 주춧돌에다가 역사적 증거를 남기겠다고 하시면서 머릿돌 안에 그 당시에 사용했던 화폐, 동전, 이런 것을 다 넣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당의 역사를 기록해서 인장을 찍고, 그 안에 다 넣어서 보존할 거라고 하셨어요. 역사적인 사료로 남기시려는 것 같았어요. 이 성전 지을 때의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거기다 담는 것도 되고, 몇 백 년 후에 이 성전을 새로 지을 때 이 돈을 그때 꺼내볼 수 있을 거라고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제가 사제가 된 이후에 찾아볼 때마다 더 많은 시간을 어린이들에게 배려할 줄 아는 사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이제 와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분의 뜻을 알아듣게 됐어요. 청소년 사목에 대한 영성적인 그 부분이 지금 사제의 삶을 살고 있는 저에게도 암암리에 심어져서 그분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려고 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일지 몰라 고민 중이었습니다. 새벽미사 끝나고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사제가 된다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여쭙어봤을 때에 신부님은 웃으시면서 “신학교 가면 좋은 사제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이 한마디 말씀에 큰 힘을 얻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됐고 사제가 됐죠.

사제가 된 이후에도 아버지 신부님이시니까 가끔 찾아가 인사드리면서 신부님의 삶이 정말 가난하고 순명하고 또 당신 나름대로의 사제의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가난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시는 신부님의 삶을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사목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본 결과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수녀님을 우리 본당에 모셔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신부님을 찾아가 성가수녀회 수녀님들이 파견되어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성 신부님은 오늘은 여기에서 자고 내일 미사하고 강론한 다음에 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 인제 다 됐다’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총장 수녀님을 만나서 얘기 들으라고 하시고는 신부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자리를 떠나셨어요. 총장 수녀님한테 여쭙본 결과 수녀님 수가 부족하여 파견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아버지 신부님이 옆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신부님이 이런 문제는 수녀원에서 알아서 해결 일이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힘도 없고 권한도 없으니까 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를 위로해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돌이켜보면 수녀님들의 고유한 일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으시는, 그런 것을 엄격히 지키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신부님은 사제로서의 삶 안에서 특별히 성모 신심이 두터우셨던 분으로 여겨지구요. 가난한 삶을 몸소 사신 분, 항상 기도하시는 분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아버지 모습으로 사제의 길을 걸으셨던 것 같습니다.

수단도 다 떨어진 걸 입으시고 공소에 다니실 때 택시를 타실 수도 있지만 항상 자전거로 다니셨어요. 그 비포장 도로를 자전거로 다니신 거지요.

아들 신부한테 성사를 보시겠다고 했을 때 저는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꼭 성사 지금 보시겠어요?” 하고 여쭙면 꼭 성사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성사를 이렇게 보셨고...

당신 삶을, 정말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한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논산 부창동 성당 운동장에서 많이 놀았는데... 하루는 루르드 성모님 발현하신 성모 동굴을 여기에 모

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설계를 하고 성모 동굴 만드는데 재료가 한국에 없으니까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루르드 성모 동굴상을 마련하셨죠. 그리고 그 앞에서 전 신자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고 또 특별히 성모님께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당신이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깊으셨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그렇게 지도하고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에게도 성모님께 대한 특별한 신심을 불러일으켜 주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첫 사제가 됐을 때 신부님이 아들사제라고 하시며 첫 미사 때 사용하라고 성작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신부님이 쓰시던 성작이었습니다.

성 신부님은 성작을 꺼내 들어올리며 “성작입니다. 사제가 되면 미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작입니다” 하셨습니다. 이 성작을 아버지 신부인 베드로 신부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사제로서 미사에 주례사제가 되었음을 저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미사 성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저에게 일깨워준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피가 담겨지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성작이기 때문에 더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부님이 사용하셨던 성작을 아들신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기쁘고 한 사제로서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신부님이 몸소 이 선물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충구(마르코) 신부

새벽 미사가 끝나면 당신 사제관에서 교리를 하셨어요. 많아야 7, 8명 정도였지요. 당신이 직접 교리를 해주셨는데 구약성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난 뒤에 꼭 ‘만보’ 라는 환등기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셨어요. 내 일생에 가장 교리를 잘 들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신학공부를 하고 철학을 했어도 성 신부님이 자상하게 설명해 준 구약성서의 얘기가 지금의 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사랑하셨다는 것이 잊혀지지 않아요. 굉장히 사랑해 주셨고 그때 교리반에 다니던 아이들 가운데 두 명이 신부가 됐어요. 소중하게 아이들을 준비시켜주신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사제관을 찾아갔어요. 제 발로요. 용감하게 문을 두드렸더니 신부님이 “어, 웬일인가” 하시며 반갑게 맞으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신부님, 저 신학교 갈래요” 했더니 성 신부님이 내 머리를 싸안으시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꼭 껴안으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6·25가 났을 때 큰 형님이 강경의 교도소로 가게 됐어요. 군인문제 때문에... 누구하나 의지할 곳 없게 됐을 때 어머니가 성 신부님을 찾아가셨어요. 성 신부님은 친히 자전거를 타고 강경까지 가서서 즉시 얘기해주시고 보증을 서주셔서 형을 빼내 왔어요.

성 신부님은 제가 신학교 갈 때 입학금 같은 것을 다 해주셨고, 학교에서 성 신부님한테 편지를 쓰면 꼭 답장을 해주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성 신부님의 그런 면은 아버지 같은 마음이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 뭐라 할까, 가난하게 사는 모습, 가난을 사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며 자랐지요. 아마 그런 성 신부님에 대한 기억이 내가 사제생활 하는 데 큰 힘이 되고 밑받침이 된 것 같아요.

성 신부님은 아버지 같은 마음, 자상한 마음을 항상 보여주셨고 그 영향을 제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위안 갖고 사제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복사들, 그리고 특히 성당 가까이 지내는 아이들을 캠프, 공소 같은 곳에 데리고 가서서 아이들과 함께

뛰시며 심판도 봐 주시고 같이 놀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부님을 많이 따랐어요. 우리 눈높이로 생활하시니까 신부님께 다가가기 쉬웠던 것 같아요. 항상 인자한 모습이셨어요. 우리는 신부님을 뒤따라 가며 “오헤 오헤 베드로 무서움을 타지 마라”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요.

아들처럼, 친아들 이상으로 항상 감싸주시고 그것이 제가 생활하는 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저를 항상 “아들아” 하고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왜 자꾸 아이들만 사제관을 들쭉시게 하나” 고 말하며 아이들에게 “니들 좀 가거라” 고 했지만 신부님은 “어린이들 천사예요. 내 친구들이예요” 하시며 은근히 나무라셨지요.

토요일만 되면 항상 친히 성모의 밤을 하셨죠. 어느 땐 매일 저녁 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지닌 성체 신심이나 성모님께 대한 신심은 아마도 성 신부님이 어릴 때부터 길러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바탕이 돼 있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렸을 때부터 바로 그런 기본적인 신심의 밑바탕에 깔린 분위기가 성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내 영성처럼 와 닿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성 신부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제 삶에 큰 위안이 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 신부님 가장 가까이에서 익혀진 이런 것들이 저의 지금까지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렸지요.

성 신부님이 걱정스러워하셨던 것은 성가회 창설 당시의 그 정신을 총장들이 잘 계승해야 되는데 조금은 그 정신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새로 된 사람들이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갈 총장들이 돼야 하는데 하시며 걱정을 하시는 성 신부님을 뵈었어요.

이것이 성 신부님 유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떠나기 전일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성체를 들고 계시는 여기에 라틴말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적혀 있어요. 당신이 논산을 떠나시기 전일 거예요. 제가 잠깐 가서 떠나실 성 신부님 앞에서 눈물 흘리니까 잘 간직하라고 하시며 주셨어요.

겸손하라는 것, 소비녀처럼, 그리고 당신이 해오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가장 제 마음에 오래 남는 말씀이에요.

송갑의(사도 요한) 신부

청소년들에 대한 사랑이 아주 많으셨지요. 사제관을 개방시켜 놓고 항상 거기서 서양장기관 같은 것을 가지고 놀게 해주셨어요. 사제관에 애들이 항상 들끓었고 늘 만원사레였지요.

저는 첫영성체 교리를 성 신부님께 직접 배웠어요. 지금은 수녀님이 가르치고, 일반 회장님이 가르치지만 그때는 당신이 직접 가르쳤어요. 본당에 수녀님이 계셨는데도 당신이 직접 첫영성체 교리를 가르쳤어요. 무릎 꿇고 모두 앉으면 교리를 가르쳐주신 뒤에 환등 하나를 꼭 보여주시곤 하셨지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만보! 만보 환등이지요. 어렸을 때 무엇을 알아요? 만보 보는 재미로 교리반에 열심히 가곤 했지요.

어른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줬지만 아이들한테 대한 사랑은 그 누구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하셨지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풍부히 불어넣어 주니까 아이들이 성 신부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느끼고 그 안에서 생활하였지요. 학교 갔다오면 집에 가방을 두고 곧장 성당의 사제관에 가서 놀곤 했지요.

성 신부님은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직접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셨지요. 미사 드릴 때 성 신부님이 주신 성작을 보며 항상 기억을 하죠. ‘이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나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성 신부님은 실제 행동으로 많은 것을 보여준 분이예요.

성 신부님에게서 인자한 아버지를 많이 느꼈죠. 우리가 보기에는 참 잘못했는데도 너그럽게 “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더 죄송했지요. 실수를 하고 알았으면 이 다음에 고치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아버님께서 편찮으실 적에 일 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영성체를 하실 수 있도록 직접 오셨어요. 20-30분을 걸어서 오셨어요.

당신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더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최대한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어린이들한테는 당신 방을 완전히 개방했어요. 서양장기뿐만 아니라 장난감이 가지각색으로 풍부했지요. 당시에는 지금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없었지요. 그런 시절에 신부님 방에는 놀이기구가 풍부했어요. 그 많은 애들이 각자 갖고 놀 수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놀고 간 후에는 당신이 장난감을 정리하셨죠. 아이들 뒤치닥거리를 하신 것이지요. 귀찮아하지도 않으셨고 당신이 바깥에 불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셔도 우리들을 당신 방에서 놀도록 그냥 두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어린이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지요. 대단한 것이었죠.

성 신부님은 살아 있는 성인이셨어요. 살아 있는 성인!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분은 살아 계신 성인이시다라고요.

유유철(프란치스코)13)

외국인 신부님이 오셔서 한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심을 가졌어요. 일기장이라든가 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인간적인 고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사목활동을 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더라구요. “아, 신부님은 참 인간다움 속에서 뭔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특히 대건 학교가 오늘날까지 있게 된 데에는 신부님이 음으로 양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도움을 주신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자(안나)14)

신부님께서 아이들을 예뻐하셔서 신부님 방이 완전히 아이들 방이었어요. 저는 신부님이 과자를 주시면 동생 것, 제 것 다 챙겨 먹곤 했지요.

그때는 한 가정에 아이들이 여럿이잖아요. 만이가 동생들을 줄줄이 손 붙잡고 신부님 방에 왔지요. 신부님께서 형제가 많으셔서 그러신지 우리한테 형제가 몇이냐고 물어보시며 잘 챙기셨어요. 누가 성당에 안 왔다 하면 반드시 데려오게 하셨어요.

시내 갔다 오시다가 제가 길에서 친구들과하고 놀고 있으면 그냥 자전거 세워놓고 번쩍 한 번씩 안아 주시곤 하셨지요.

김재영(로렌조)15)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오셔서 성사 주시고 교우들의 생활을 보살피 주셨어요. 신부님한테 세례를 받았고 신부님은 이곳 성광원을 조그만한 공소로 만들었어요.

성 신부님에게 저희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도와 주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신부님께 가서 사정하고 도움을 받았지요. 그 양반한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원래 이곳 성광원의 기초를 성 신부님이 이룩하셨지요. 신부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오셨고 세례를 주셨고 미사를 드리셨어요.

김갑선(요한)16)

성 신부님께서 레지오 단원들에게 “우리는 성모님의 군대다. 전교를 위한 성모님의 군대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부님을 성인 신부님으로 생각했어요. 레지오 단원들은 신부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며 신부님을 존경했어요.

지금도 신부님 얼굴이 항상 눈에 선해요.

유호식(아우구스티노) 신부

그분은 아이들은 무조건 좋아하셨지요.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아이들이 귀를 잡고 코를 잡아도 그냥 내버려 두셨고 방에 들어가면 장난감이란 장난감은 모두 다 내놓고 계셨지요.

여름에는 아침미사가 끝나면 성 신부님이 아이들을 데리시고 10리쯤 되는 곳에 있는 냇가로 가셨는데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신부님을 따라갔지요. 냇가에 가서 목욕하고 또 신부님이 주시는 사탕을 하나씩 받아 먹고 이것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일할 때-나 놀 때나 항-상 즐기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손에 손을 마주잡고 노래 부르-자” 이런 노래를 많이 했지요.

영세재신식을 한다고 하시며 교리와 노래를 가르치시고 아침마다 미사가 끝나면 무성 환등을 보여주셨는데 신부님이 앵~ 위잉~ 하는 비행기 소리를 직접 내셨지요. 옛날의 번사 같았지요.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했는지 몰라요. 불란서 말로 ‘탱탱’ 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신기해 했지요. 한국 것도 신기한데 외국의 것을 보니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이것을 보는 재미로 성당에 안 빠지고 매일 새벽 미사에 가서 교리를 들곤 했지요. 신부님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으셨고 순박하셨어요. 당신 방에 애들이 항상 바글바글했고 아이들 사목에 아주 모범적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성 신부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해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성 신부님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어요. 성 신부님 같은 아버지 신부님을 따라가려면 발벗고 쫓아가도 어렵도 없지요.

논산과 홍산 지역에서 당시 음으로 양으로 그분 혜택받지 않은 신자들은 드물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성 신부님은 신자들을 도우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지요.

저는 그렇게 못하지요. 성 신부님처럼 못하는구나를 절실히 느껴요. 저는 천성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 양반은 어떻게 그렇게 애들을 사랑했나 하고 감탄이 돼요.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일 거예요. 더럽고 냄새가 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좋다고 하시며 당신 방에 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성 신부님의 성덕이지요.

나는 항상 성 신부님이 성인이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지요. 성 신부님은 특별한 분

이니까요.

윤종수(세례자 요한) 신부

가끔 서울에 오시는 길에 소신학교에 들르셨어요. 다른 본당 신부님들은 잘 안 오셨는데 성 신부님은 큰 사탕 봉지를 갖고 오셨어요. 서울 오시면 꼭 학교에 찾아와 우리를 보셨어요.

신부님 방이 애들 놀이터였어요.

서울에 오셔서 제 서품식에 참여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며 제일 먼저 첫 사제 강복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며 눈이 내리는데도 거기에 그냥 무릎 꿇고 강복을 받으셨어요.

이분은 절대로 언성을 높인다든지 무엇을 던진다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이 레오날드(완영) 前 총장수녀

‘강생의 정신’이라는 것을 쉽게 풀어서 ‘내리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셨다... 인간을 위해서...’ 그 내리는 정신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오심을 따르는 소비녀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며 가난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신부님을 뵈러 갈 때마다, 어떤 행사를 하고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가난에 대해서 귀뜸을 해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깨우쳐 주시고, 그런 면에서 식별을 하도록 하셨어요.

생활 속에서 참 겸손하게 사셨어요. 당신 자신이 사시는 모습을 우리 안에서도 보시고 싶으셨던 것도 사실이에요.

제일 부러워했던 것이 신부님의 믿음이에요. 신부님의 그 신앙! 신부님과 대화하다 보면 어떤 때는 착각을 일으켜요. 한참 동안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부님이 ‘이건, 아버지가 주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아버지라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 살아 계신 아버지인 것처럼 그렇게 친밀감 있고 그냥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지요.

어떤 특수한 고통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분을 만났을 때 “아, 나 오늘 예수님 만났다” 하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선교! 선교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셨어요. 신부님은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선교를 위해서 소비녀들이 가난한 사람이나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나 신자 아닌 분들이 소비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을 눈으로 봄으로써 신자들도 똑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이 커가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수녀원 주변 사람들, 이 마을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면 그들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깨우침을 줄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것이 복음화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선교가 될 것이고, 예비자가 생길 것이라는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선교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나라에,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것이



당신의 꿈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잊어버려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에 대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그분의 순명 정신과 겸손이었어요. 교회의 어른들은 그분에게 있어서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어떤 주교회나 교구장님을 통해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일점일획도 어기질 않으세요.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순명하신 분이셨어요.

해마다 거행하는 성체 거동이 성 신부님께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에요. 그분은 준비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길 원하셨어요. 수련자들이 준비하는 것을 다 다니면서 보셨어요. 생각 없이 하면 신부님이 오셔서 “아, 예수님 성체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단순히 행사로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쫓아다니면서 깨우쳐 주신 거지요.

이 수녀원 성당을 신부님은 성모님의 태중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성모님의 모태라고요. 제대 안에서 사제가 제사를 드릴 때 성모님의 모태 안에 잉태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아주 특이한 신심을 표시하셨어요. 성체께 대한 신심이지요.

우리 수녀원이 커 가는 것을, 특히 크게 건물 짓는 것을 두려워하셨어요. “공심판 때 이 집 허물어지는 소리가 무섭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가난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걸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이지요.

스스로 가난하고 겸소하게 사셨던 모습,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을 섬기듯이 온 정성을 다해서 살아 계신 이웃들을 섬기는 그 정신이 마음에 남아 있어요.

성 신부님은 복음화를 위해서 쓰는 것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시며 그런 면에서 우리를 굉장히 깨우쳐 주셨고 양성 면에서 애를 쓰셨어요.

항상 감사하시고 “아버지께 대해서 염치없다. 나는…” 이런 말씀 늘 하셨어요. 그래서 더욱 겸소하게 사시려고 애를 쓰셨지요.

생활 속에서 그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투신하고 겸소하게 사는 면에서 우리들은 어림도 없어요.

프랑스에서 인터뷰 내용

일시: 2001년 5월 28일- 6월 8일

인터뷰: 마담 조오지(Madame GEORGE), 김 임마콜라따(승종) 수녀

장소: 프랑스(HESDIN - Saint Omer - Paris)

작성자: 김 미리암(정송) 수녀

- ① 카세 신부(Cassez, 에땡 본당 신부: 현재 은퇴)
- ② 장 피에르(Jean Pierre, 큰형의 둘째 아들)
- ③ 폴레뜨(Collette, 큰형의 쌍둥이 딸 중 첫째)
- ④ 테레즈(Therese, 큰형의 쌍둥이 딸 중 둘째)
- ⑤ 끌로드(Claude, 큰형의 맏아들)
- ⑥ 주느비에브 형수님
- ⑦ 조오지(Goerge, 폴레뜨의 남편)
- ⑧ 다미안(Damien, 폴레뜨의 둘째 아들)
- ⑨ 테레즈(Therese, 성 신부님의 여자 친구)
- ⑩ 폴(Paul, 성 신부님의 남동생)

- ⑪ 리제뜨(Lisette, 성 신부님의 여동생)
- ⑫ 마리 클레르(Mari Claire 성 신부님의 막내 동생)

카세 신부(Cassez, 에탕 본당 신부: 현재 은퇴)17)

나는 1943년 12월 19일부터 1994년까지, 51년간 에탕(Hesdin)의 본당 신부였습니다.  
일요일마다 미사드릴 때 지금 여기 양로원도 성당이 짝 잡니다.

- 성 신부님(피에르 생제)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피에르의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Pierre, Paul)을 매우 잘 압니다. 집안도 잘 압니다.  
저는 그 가족들의 신앙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부인회(Damde-Chietienne) 회장이었습니다. 그 집(생가)에 좁은 대리석 벽난로와 서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 피에르 생제에 대한 기억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에르 신부님을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신학교 휴가 때 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2주일간 에탕에서 보내곤 하였습니다. 나는 피에르의 어린 시절은 모릅니다. 피에르가 신학생일 때 알았습니다.  
나는 피에르를 많이 도왔습니다. 피에르가 한국에 선교 갔을 때, 한국의 토속품을 많이 보내 왔습니다. 그것을 본당에서 바자회 물품(여러 한국 옷)으로 팔아서 매년, 10년간 6,000프랑을 보내 주었습니다.
- 신부님의 영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주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족에 대하여 교황청에서 비밀로 문의를 해 왔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주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선종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정이 굉장히 모범적이고 성가정이었습니다.
- 신부님께서 교황청에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그 가정이 본당에서 모범가정이었고, 성체 거동 때는 그 아버지가 늘 맨 앞에 서서 행렬을 했습니다.
- 피에르의 영성 생활에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에 대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였고, 한국에 큰 빛을 낸 사람입니다.
- 당신이 부모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 가운데 특별한 것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쩌다 만났기에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그의 부모님은 매우 신앙이 깊은 본당 신자였습니다. 부모님은 성체 거동할 때 늘 행렬의 선두에 서는 다섯 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 그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빈첸시오 회장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했습니다. 구체적인 자선 사업으로 물건을 사서 주었습니다. 피혁 공장의 노동자들이 “우리 사장은 금과 같은 고용주였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 어머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녀는 부인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단순, 소박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했습니다.
- 성 신부님을 언제 알게 되셨으며, ... 피에르 신부님이 도움을 청하셨습니까?  
피에르 신부가 돈을 요구한 적은 없고, 계속 편지를 교환했습니다. 단 10월 전교의 날에 한국에서 온 물

건들을 팔아 그 돈을 한국에 보냈습니다(해마다 6,000프랑). 이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 두 분은 편지에서 무슨 내용을 주고받으셨습니까?

성 신부는 사목 내용에 대하여 많이 썼습니다.

6,000프랑을 보내면 베드로 신부는 감사의 편지를 보냈고... 나는 그 편지를 본당 신자들에게 다 읽어 주었습니다. 본당 신부로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 그가 돈 쓴 내역을 말했습니까?

그럼요. 수녀원, 학교를 위해서 썼다고 써 보냈습니다.

- 수녀원에서 보낸 카드 등도 바자회 물품에 속합니까?

(질문과 달리 대답하셨다.) 내가 보낸 돈은 파리의방전교회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나는 총대리를 했었고, 2,500명 주민에 27명의 사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피에르와 편지 교환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남녀의 사목활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였고 서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시대는 만과를 가정에서 아이들을 모아 놓고 하였는데, 하루를 잘 살지 못한 아이들은 만과를 함께 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벌입니다.

- 신부님은 지금 100세이신데, 후세에게 줄 교훈이 없으십니까?

지금은 썩은 사회, 악으로 가득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현실에 참여하는 기독교인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루르드의 벨라멧다의 머리털입니다. 이것을 피에르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아라스(L' Arras)에서 선생을 했습니다(불어, 그리스어 선생). 아라스에 있는 생 조셉 학교에서 6년 동안 교장도 하였습니다.

지금 나는 양로원에 있으면서 아픈 사람, 신체 장애인들을 방문하곤 합니다. 나는 매일 미사를 하고 주일마다 강론을 준비해서 합니다. 나는 강론을 준비하지 않고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 대선배 사제로서 젊은 사제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신자들을 모든 기회(회로예탁)에 자주 만나십시오. 영세 준비할 때, 각 가정마다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나는 일 년에 512명이 영세를 할 때, 예비자를 방문했습니다. 8시 반부터 10시까지 예비자 교리를 하였습니다. 초상이 나면 입관하는 날에 갔으며 일 주일이 지나서 다시 그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자들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세, 병자성사 때도 방문했습니다.

불행히도 요즘 사제들은 숫자가 적습니다. 내가 아는 이웃 사제는 혼자서 16개의 본당을 관할합니다.

내가 1943년에 에맹에 왔을 당시 대부분의 본당에 신부가 있었습니다. 한 본당에 신부 3명씩 있었으며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장 피에르(Jean Pierre, 큰형의 둘째 아들)18)

나는 장 피에르(Jean Pierre)입니다. 나는 피에르의 큰 조카입니다. 나는 특별히 피에르의 대자로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피에르가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1935년에 태어나서 지금은 66세입니다. 피에르는 초등학교생인(15세 때) 나에게 생 베르탱 성당에서 성소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생-오메르(Saint-Omer) 대성당 안에는 기적의 성모상이 있습니다. 피에르가 이 성모님께 특별히 봉헌하곤 하였습니다. 이 성모님을 거동할 때 수도 없이 피에르가 참석했고... 나한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전쟁 때, 기적의 성모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다”고. 나는 의사입니다. 1960년대 성 신부님이 병에 걸렸을 때, 개인적으로 그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의사로서, 그는 사제로서 서로 일

은 달랐어도 서로가 인류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만나지는 못했어도 서신을 주고 받았습니  
다. 나는 개인적으로 피에르를 굉장히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건축가처럼 이룩하는 사람이었습  
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의 무덤에 가서 참배하고 싶습니다.

주느비에브 큰 형수집에서

클로드(Claude, 큰형의 맏아들)

- 피에르에 대한 기억은?

첫 번째 기억은 피에르의 사제서품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때 나는 조그만 7~8세의 소년으로 처음으로  
파리에 갔습니다. 최초의 기억이 사제서품입니다.

두 번째 기억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피에르가 처음 왔을 때, 내 큰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1948  
년). 그는 아이들 교과서를 보곤 하였습니다. 교과서에 잔다크라고 써 있는 것을 보고 ‘성 잔다크’ 라  
고 불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나의 어린 아이들과 놀기를 좋아했고, 공놀이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억은 우리가 간 수녀원 기숙사(Les Toulers Condette)에 맡가리다, 테레즈, 피에르가 함께 머  
물렀다는 것입니다.

- 피에르가 당신께 준 신앙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피에르는 아주 굳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열려 있었고 현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피에르는 개방적인 신  
앙인이었습니다. 우리 유럽인들에게 독특한 신앙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렌즈 지방(L' Aine)에는 벌써 사제가 부족해서 현재 50km 달려가야만 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교리공  
부를 시키는 데도 문제가 있었는데, 조카들 종교교육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곤 하였습니  
다. 조카들이 50km 떨어진 곳에 가서 미사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에르는 만족해 하였고 계속하라  
고 격려해주곤 하였습니다.

테레즈(Therese, 큰형의 쌍둥이 딸 중 둘째)

나는 테레즈로 쌍둥이 조카 가운데 동생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피에르는 형제간의 의리가 좋아 나를 감  
동하게 하였습니다. 피에르는 나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손수건 가지고 나를 놀려 주곤 하였고, 피에르는  
모든 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 신앙에 대해 증언해 줄 것이 있습니까?

나는 불어 교사입니다. 피에르가 한국에서 교리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의 의논한 적이 있었  
습니다. 성사나 성체 등에 대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피에르와 함께(한 것은) “교회 용어를 어떻게 쉽  
게 설명할 수 없을까” 하고 서로 편지 교환을 했습니다(성체성사, 종부성사에 대해서).

- 개인적으로 피에르의 신앙을 증거한다면?

피에르의 신앙은 자발적인 역동성이었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주느비에브 큰 형수

나는 96세인 피에르의 형수입니다.

3형제가 찍은 사진을 보세요(폴, 자크, 피에르).

그는 굉장한 장난꾸러기였고 유머가 많았습니다. 그는 매우 명랑하였고 유머스러웠습니다. 그는 내가 예  
뎡에서 제일 미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중학교 때 장난꾸러기 학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머가 많았는지 담임 선생님이 지각을 한 피에르에게 “지금 몇 시냐”고 하면 “시간은 똑같은데!”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이가 네 명인데, 피에르가 군 복무에서 휴가를 나오면 빨래감을 주고 가곤 해서 아이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피에르는 성인은 아닙니다. 장난꾸러기 소년이었습니다.

생-오메르(Saint-Omer)19)에 있는 폴레뜨(Collette) 조카 딸 집에서

조오지(George, 조카 사위)

나는 폴레뜨의 남편이고 피에르의 조카 사위입니다. 1960년대 폴레뜨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피에르를 알 기회는 없었지만, 피에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봉헌하는 전교의 사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열정을 다해서 사는 사제였습니다. 휴가 때 프랑스에 와서 가족을 만날 때도 피에르의 마음은 항상 한국에 있었습니다. 자기 친가족을 만나는 기쁨은 있었지만, 한국의 가족을 다시 만난다는 기쁨을 가지고 떠나곤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제2의 마음의 고향이 한국이었습니다.

폴레뜨(Collette, 조카딸)

나에게는 피에르가 남긴 인상이 있습니다. 피에르는 자기 집에 앉아서, 프랑스에서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봉헌을 했기 때문에 그의 소명은 한국이었습니다. 프랑스에 묻힌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피에르가 늙어서 프랑스에 있었다면 불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에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을 한국에 주는 사제였습니다. 만일 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선교의 열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프랑스에서 살았다면 굉장히 불행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는 늘 아이들과 대화하길 좋아하고 항상 명랑했습니다. 그가 성인이라면 슬픈 성인이 아니고 마음이 즐거운 성인이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밝고 명랑했습니다.

유머도 풍부한 사람이었고 생기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증언한다면 훌륭한 사람이었고 존경할 만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하고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중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미안(Damien, 조카 손자)

조카 손자인 나에게 비친 피에르는 굉장히 먼 나라의 분이셨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집에 오시면 아이들과 잘 놀아 주신 분이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만든 쥐를 가지고 이렇게(손으로 흉내를 내며) 우리를 놀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남은 추억은 이것입니다.

에댕20)(HESDIN)에서

테레즈(Therese, 성 신부님의 여자 친구)

피에르가 10살쯤 되었을 때,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장난꾸러기라 부모님이 많이 걱정했습니다. 엄마가

고깃간에서 고깃간 아저씨에게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자,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본당신부나 전교사제가 되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생제 가족과 나의 집은 서로 잘 알고, 가족과 같았습니다. 이웃사촌처럼...

생제는 9월 13일 태어났고, 나는 1910년 10월에 태어났습니다. 피에르를 받은 산파가 나도 받았습니다.

피에르가 서품을 받고 에맹에서 첫 미사를 드리고 나서, 나는 피에르와 함께 저녁을 먹었고 피에르가 파리로 가는데 피에르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아버지도 동반했습니다.

피에르와 나는 편지를 교환했는데, 지금도 편지가 있습니다. 일본에 있던 테레즈도 나와 편지를 교환했습니다.

파리의 솔랑즈(Solange, 조카) 집에서

폴(Paul), 리제뜨(Lisette), 마리 클레르(Mari Claire)와의 인터뷰

2001년 6월 6일 오후 3시

폴(Paul, 막내 남자 동생)

나는 오랫동안 형과 살지 못했습니다.

1935년에서 45년 사이에 형의 편지를 많이 기다리곤 했습니다.

나는 형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도 같이 지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형이 신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식구들 중에 좋아하는 형으로서 어쩌다 휴가 나오면 만났을 뿐입니다.

사제가 된 형이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는 중학생이었고, 사제가 된 피에르가 학교 신부와 함께 공동 미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감명받았습니다. 나는 그때 같은 반 친구들에게 피에르에 대한 자긍심을 가졌고 그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다음 그는 한국에 갔습니다.

우리는 결혼 후에도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피에르가 신학생일 때, 에맹 본당에 오면 보좌 신부와 함께 주일학교 아이들과 에맹 숲에서 놀곤 하였습니다. 그는 에맹 숲에 가서 참나무에 기적의 성모상을 매달아 놓고 기도하고 부모와 함께 가서 기도를 하곤 하였습니다.

리제뜨(Lisette, 여동생)

엄마는 성탄 후, 본당에서 제일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에게 옷을 만들어 입혀 주었습니다.

-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한국에서 피에르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한 신앙교육은 이미 에맹에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지내면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이것이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국 아이들에 대한 사목을 이미 에맹에서 익혔기 때문입니다.

폴

부모님은 특별히 엄하지 않으셨으며, 애정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생 베르뎅 학교에 다닐 때에, 어머니께서는 주님을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잔다크 성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

님을 먼저 생각하라” 고.

나도 그렇고 피에르도 그랬고 생 베르맹 중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리옹(Lyonn)에서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끈고 정직한 사람으로 자식에게 엄격했고, 어머니는 항상 애정적이고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행복했습니다. 집 뒤에 큰 정원이 있어서 축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누이와 사촌들과 놀았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남동생이었습니다. 형제들끼리 화목했습니다.

형이 집에 왔을 때 무엇을 하는지 보면 성경을 읽곤 했는데 “너는 아직 읽을 나이가 안 되었으니 그냥 놔 두라”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개방적이며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 리제뜨(Lisette)

나는 피에르와 머리도 같고(곱슬머리) 비슷한 동생이라 피에르의 다른 초상화라 했습니다.

엄마에 대한 기억을 몇 가지 회상한다면 엄마는 자주 “피에르가 세 동생을(폴, 리제뜨, 끌레르) 잘 돌보아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피에르가 세 동생의 유모차를 잘 흔들어 주고 끌면서 ‘랄라라 예루살렘’ 하면서 노래해 주곤 했다” 고 합니다. 이것은 피에르가 어디서 주위들은 노래를 돌팔이 의사처럼 “예루살렘” 이라고 불러 주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 미사 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제 놀이할 때 제일 기억나는 것은 헌금을 걷곤 했던 것입니다. 내가 3, 4살 때 오빠와 미사 놀이를 했습니다. 복사도 있었습니다. 마리 끌레르도 다 기억합니다.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피에르가 신학생 옷을 입고 오면 아빠가 피에르에게 엄격하게 대하시며 사제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네가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엄격하게 교육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면, 피에르는 어려서 주위가 산만해서 그가 사제가 된다고 하여도 부모님은 “이 아이가 정말 사제가 될까?” 하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에르가 사제가 된다고 할 때면 부모님은 늘 불안해 하셨습니다.

피에르가 아버지와 토론하던 일을 기억합니다.

신학교에 갔을 때 부모님이 늘 불안해서 처음 휴가 나올 때 신학생 옷을 입지 말고 오라 했는데… 그는 당당하게 신학생 복장을 하고 왔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그가 신학생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피에르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때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 다음 신학생 옷을 입고 왔을 때, 자기의 결심이 확고함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은 불안하셨습니다. 선교를 떠난다고 하였을 때,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 선교를 떠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한국전쟁 때, 피에르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피에르가 부상을 입어 고생하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매우 염려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엄마는 “전쟁에서 부상당하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낫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 폴

피에르가 중고등학생일 때, 우리 아빠는 학교 교장 선생님과 친구였습니다. 아버지가 피에르 때문에 교장 선생님과 의논했을 때 교장 선생님은 피에르가 골칫덩어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피에르의 성소 지도에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지도가 피에르의 성소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정(성소결정)이 좀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극에서 극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소년 시절에 산만

하고 장난꾸러기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사제가 되려고 했는지... 너무 빨리 성소를 받은 것 같습니다(암전한 사람이 사제가 되려고 하였다면 당연하겠지만).

마리 끌레르(Mari Claire, 막내 여동생)

나도 아빠에게 들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골칫거리인 피에르를 데려 가라고 했답니다.

리제뜨

아빠가 생 - 오메르로 출장 가 계실 때, 저녁기도 시간이 되면 아빠는 생 - 오메르 대성당의 기적의 성모님상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들은 집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하면서 기적의 성모님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영세 재신식을 하기 위해서 세례 받은 3년 후에, 일 주일 2~3번 정도 교리를 받았는데... 교리가 아침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 주일에 2~3번을 일찍 에댕 성당으로 교리 공부를 하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추운 날도 일찍 깨우셨습니다. 에댕 본당에서는 철저하게 교육시켰습니다.

같이 교리 공부했던 남자 친구 하나가 독일 군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폴은 보이스카웃을 했습니다.

폴

에댕 사람들은 솔직히 30% 정도가 성당에 다닙니다(리제뜨는 약 40%라고 했다).

리제뜨

에댕 사람들이 무쉬 생체(성 신부님의 아버지)는 자기가 믿는 대로 신념을 가진 신앙인이라고 하였습니다.

폴

성체 거동 때, 아버지가 가마를 들고 앞장을 섰습니다.

마리 끌레르

그때는 성체 거동하는 날이었습니다.

폴

아버지가 마을 아이들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잘 지냈습니다.

리제뜨

이 집 주인인 내 조카 딸 솔랑즈(Solange)는 연령회 회원으로 일합니다. 부모가 신앙심을 주셨기에 후손도 이렇게 장례 미사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조르지(Goerge)도 성당에서 열심히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에르는 한국인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프랑스인은 장점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린 형제가 아홉 명입니다. 엄마가 늘 힘들어했습니다. 기숙사에 보내고, 대학에 보내고, ..... 굉장히 물질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걱정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수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돌아 가면서 골고루 목주신공을 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참 궁금했었습니다. 어떻게 매일 그렇게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면서 목주신공을 할 수 있는지... 무슨 기계가 있었는데... 아이들 이름을 써 놓고 오늘은 누가 목주신공 차례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아빠는 남자는 자존심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신앙심을 보여주는 것에 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관대하고 너그러운 분이셨습니다. 피에르가 떠난 다음, 동생이 수녀가 되었을 때도 더



관대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내가 간호 공부를 하러 갈 때, 엄마는 내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sup>21)</sup> 피에르가 한국에 파견을 받고 떠나기 전 아버지께 말씀드리려 했으나, 아버지는 당신 친구 신부로부터 이미 이 사실을 아시고 피에르에게 “네가 한국에 간다” 라고 말했을 때, 피에르는 김이 팍 샀습니다.

폴

피에르는 집을 떠나기 전, 나에게 한국 국기를 꺼내서 모두 설명해 주었습니다. 피에르는 한국 라디오에서 노래를 녹음해서 보냈습니다. 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리제뜨

아침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저녁기도 때는 했습니다.

- 피에르에 대한 특별한 인상에 대하여

폴

어려서는 개구쟁이였고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신학생 때도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의 바른 학생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리제뜨

피에르는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일을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한국인을 다 가톨릭 신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열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한국에 대해(제스처를 하며) 좋다고 말해서, 나는 신경질이 나 “한국인은 좋고 프랑스인은 결점투성이야?” 라고 했습니다.

마리 끌레르

피에르는 한국인이 널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 에맹의 특징에 대하여

리제뜨

빠 드 깔레 지방인은 야만인이 대부분입니다(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많다).

폴

중용적 성격의 중도시였습니다. 에맹 사람만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인은 브르타뉴 사람인데 브르타뉴 사람도 근면합니다.

마리 끌레르

아라스(Arras)<sup>22)</sup>에 광산이 있었습니다. 이태리, 폴란드인들이 와서 일했습니다. 이들이 광산이 끝난 다음에 농부가 되어 에맹에 살게 되었습니다.

폴

우리 가족이 1950년대에 에맹을 떠났는데도 에맹 본당 신자들은 연대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피에르의 전 교활동을 위해 돈을 모아 한국에 보냈습니다. 에맹 신자들이 힘들게 벌은 돈을 보낸 것입니다.

에맹 본당 신자들은 우리 가족들이 1953년 본가를 팔고 모두 에맹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꾸준히 피에르를 도우며 충실하게 도왔습니다. 1946년 큰형은 에맹을 떠나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에댕은 깊은 신앙을 지닌 도시는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30%가 신앙인이었습니다.

리제뜨

에댕인의 성격은 진정으로 매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며, 에댕은 매우 굳건함과 관대함을 지닌 지방입니다. 빠 드 깔레는 전쟁을 겪었기에 근면하고 서로 충실하고 연대감을 지닌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적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관대하게 현금하고 피에르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폴

앞에 이미 말했지만 리옹(Lyon)과 브르타뉴 사람도 자긍심이 있어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리제뜨

어머니는 성탄이 지나고 첫 번째 태어난 아이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 7. 피에르 생제(Pierre SINGER) 선교사가 되기까지<sup>23)</sup>

김 미리암(정송) 수녀

### I. 에댕 마을

빠 드 깔레 지역에 속하는 에댕은 프랑스 북서 지방에 위치하며 양편에 산을 끼고 있는 골짜기 마을이다. 그래서 유난히 공기가 맑고 신선한 바람이 부는 곳이다. 또 이 마을은 기다랗게 펼쳐진 작은 수목으로 에워싸여 있어 고요하고 전원적이다. 맑은편 산으로 이어지는 에댕 숲은 한층 더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주고 있다. 피에르는 유년시절에 자전거로 장거리를 달리면서, 또 들판과 냇가와 숲을 지나면서, 사랑 어린 시선으로 자연과 동물들을 보았으리라.

마을 중심부에는 시청과 성당이 자리잡고 있다. 조그만 마을에 비해 이 건물들은 세련되고 돋보였으며 예술적인 면에서도 가치가 있어 보인다. 시청 앞으로 넓게 트인 광장은 한때 에댕의 활기찬 모습들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에댕 주택가에는 파리에서 볼 수 있는 은빛에 가까운 고아한 검은 지붕들이 보인다는 점이다. 건물의 우아함도 그렇거니와 한눈에 보아도 시청을 중심으로 잘 계획된 구획 정리가 시골 지방에서 볼 수 없는 도시분위기를 풍긴다. 결국 에댕 마을은 시골의 전원적인 자연과 도시의 잘 정비된 주택 및 도로가 잘 조화를 이루는 작은 도시풍 마을이라 할 수 있다.

에댕 마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매우 굳건하며 관대함을 지녔다.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지만 남의 어려움을 함께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개울 소리에서도, 길가에 서 있는 나무에서도, 시간마다 울리는 성당 종소리에서도, 어린 시절의 피에르는 하느님을 생각하고 살았으리라.

피에르는 신부가 되어 강론 때마다 하느님은 도처에 계신 분이심을 강조하였다. 그의 강론에서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그의 생활 일면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아름다운 에댕의 삶에서 또 미사 때나 주일학교에서도 피에르는 늘 하느님을 감지하며 살았다. 동생들과 함께 어울리던 뒤편이나 피에르의 3층 침방에서 내려다보이는 에댕 마을의 전경 안에서도 하느님의 충만한 현존은 피에르를 소리 없이 성장시켰다. 이 신비로운 성 신부님의 유년시절, 부모님의 애정 어린 교육은 피에르를 더 한층 종교적인 순수한 마음으로 키워주었다.

### II. 부모

피에르의 아버지는 생-오메르에서 피혁공장을 경영하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에댕의 아름다

운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분가하여 에맹에서 작은 피혁공장을 경영하였다. 피에르가 태어날 당시 이 공장은 인부 열 명이 일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노동자들로부터 “금과 같은 고용주”로 칭송을 받았으며, 그의 근면과 신앙심은 에맹의 모범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자기 신념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는 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고 매년 거행되는 성체 행렬 때면 늘 선두에 서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빈체시오회의 회장을 하면서 가난한 이웃에게 구체적인 봉사를 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는 교회라는 모체 속에서 새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체득한 사람이다. 자녀들에게 남겼던 다음의 유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서로 서로 도와라. 일치만이 힘과 행복의 비결이다. 서로 서로 사랑하라. 가족의 기쁨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머무르라. 선행을 쌓아라.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일이다. 교회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회를 위해 시간을 바치고 힘을 바치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얻은 진리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또 전해주어야 한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군인과 같다.”

아버지는 굉장히 정직하고 곧은 성격으로 자식들에게 엄격하였다. 피에르가 신학교에서 휴가를 나오면 철저한 생활교육을 시키면서 “네가 사제로서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은 대단한 것이었다. 수학적인 기계를 만들어 매일 아이들이 목주신공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가 생-오메르로 출장 갈 때면 생-오메르 대성당에 계신 기적의 성모님상 앞에서 저녁기도를 바치는데, 에맹의 식구들도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기적의 성모님을 생각하였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이러한 신심에 익숙한 피에르는 6·25 전쟁의 위험 중에서 기적의 성모님께 간구하여 생명을 유지하였다고 한다.

아버지는 마을 대부분의 아이들의 대부가 되어주었으므로 자녀들도 이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려 지내곤 하였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자만심보다는 신앙심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어머니는 굉장히 관대하고 너그러웠다. 섬세하게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지극한 애정을 베풀었다. 자녀들의 성소 결정을 관대하게 받아들였고 다른 사람들과도 친밀한 유대관계를 가졌다. 종교 교육도 철저하여 생 베르탱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쳤다.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빈체시오의 여회장을 맡았고 성탄 후 첫 번째 태어나는 아이에게 손수 옷을 지어 입혀 주곤 하였다. 덕행은 쉽게 어머니 마음에서 아들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피에르의 인간적 정서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배려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애정과 모범은 생전에 자녀들에게 쓰신 편지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부모의 신앙 교육은 피에르에게 뿌려진 하느님의 씨앗을 꽃피우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성 신부님의 삶에 하느님이 중추가 되어 선교사로서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이러한 가정교육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III. 피에르

1910년 9월 13일에 태어난 피에르는 에맹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성당은 17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지금도 들어가면 하늘나라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해준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 성당 안에서 천국을 염원했을 것이다. 피에르는 아침 미사나 복사, 또 주일학교에 참석하면서 사제를 꿈꾸었고 어린 시절의 성체 행렬, 영세식 등은 감수성이 예민한 피에르의 꿈을 더욱 풍요롭게 하였을 것이다.

열 살 때 어머니께서 성적이 뒤지고 장난기 심한 피에르에게 “이 아이가 장차 무엇이 될는지?”라고 하였을 때 피에르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본당 사제나 전교 사제가 되면 되지 않아요?”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피에르는 이미 어릴 때부터 그의 마음 안에 사제 성소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피에르 안에 감지되고 있던 에맹의 모든 피조물에 깃들인 신적 현존을 그 누가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 더욱이 산만하고 극성스럽고 학업이 부진한 피에르에게서 어머니마저도 그의 가슴 안에

숨겨진 열정의 진면모를 쉽게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피에르의 유년시절을 그려 볼 때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이러한 피에르의 영혼의 순박한 갈망이 온전히 묻혀져 있었다는 점이다. 폭소를 자아내는 유머감각, 자유분방한 생활, 지적인 탐구보다는 단순하고 여유로운 자유 안에서 동생들과 어울리기에 더 열중했던 피에르. 이 모든 것은 피에르 안에 피어 오르는 하느님에 대한 진심 어린 갈망을 주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기에 충분하였다.

금발에 순진하고 청아한 음성을 지닌 피에르, 가족들에게 비추어진 그는 평범한 한 인간이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를 성인으로 추앙하지 않도록 당부한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한 피에르는 천성적 여유로운 게으름으로 학업에 충실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좋은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추억하고 있다. 항상 상냥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 생기가 있었으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 주는 사람이었다.

그의 강론을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것에서도 하느님을 발견하였고 하루 하루의 작은 의무에 충실하였으며 이 의무들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비상한 현존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은 그가 개방적이고 열려진 마음의 소유자로서 현대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성가소비녀회를 창설할 때도 드러난다. 당시 수도회의 성격은 평신도 차원의 생활이었고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의 사도직을 주장한 것, 수도복 없이 일하도록 한 것 등은 당시 한국 상황에서 혁신적인 것이었다.

그의 사제 생활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유난히 어린이 사목에 관심을 두고 어린이 교육을 끊임없이 연구하였으며 어린이들과 늘 함께 했던 삶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늘 역동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룩하는 끊임없는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에 온 열정을 다하여 투신하는 사제였다.

#### IV. 생 베르탱(Saint-Bertin) 중고등학교

1922년 피에르가 12살 되던 해에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보면 피에르의 중고등학교 생활과 그의 노력을 잘 알 수 있다. 물론 식구들의 증언에서 교장 선생님이 장난꾸러기 피에르를 데리고 가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피에르의 학교 생활은 그렇게 성실한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애당에서 자연과 예쁜 다섯 명의 여동생과 자유스럽게 생활하던 피에르가 어떻게 수도생활과 다름없는 엄격한 생 베르탱 기숙학교에 적응할 수 있으랴. 모든 것이 짜여진 규칙대로 움직이는 생활, 그래서 그는 수업시간에 종이배를 접거나 옆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으로 짜여진 학교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피에르의 기질은 이러한 틀에 박힌 삶에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도 그는 중고등학교를 마쳤고 이 학교에서 성소를 확인했다. 피에르의 주위에는 늘 좋은 지도자가 있었다. 당시 학교 교장 신부님은 피에르의 아버지 친구로서 그의 영적 지도자였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드르 르앙브르였는데 베르탱 학교에 유서 깊은 역사에 대하여 신념을 넣어 준 사람이었고, “다시 태어난 날개”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였다. 그는 박식과 겸손, 관대와 분별이 조화를 이룬 사람으로서 지금도 베르탱의 잊을 수 없는 교장 가운데 한 분이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의 하나는 생 - 오메르와 생 베르탱의 종교적인 유래이다

먼저 생 베르탱의 학교의 유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수도승이었던 베르탱은 9세기경 배를 타고 가던 중, 하늘의 사인을 목격하고 바로 그 장소에 베르탱 수도원을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생-오메르 도시 근교였다. 그 후 1561년 베르탱 수도회의 한 수사가 생-오메르의 빈민 아동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숙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것이 바로 피에르가 다녔던 생 베르탱 학교의 시작이다. 그동안 많은 신앙인과 지식인을 배출하였고 성 신부님의 아버지도 이 학교의 출신이었으며, 성 신부님의 가계의 8대에 이르는 남자들이 이 학교의 출신이다. 지금도 생 베르탱 출입문 벽에는 배를 타고 하늘의 사인을 목격하는 베르탱 성인의 그림이 걸려 있다.

생-오메르 도시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640년경 오메르란 성인이 동정 성모님을 기리기 위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려는 의도로 성당을 지었는데 이 땅 이름이 오메르이다. 그래서 생 - 오메르 성당에서는 마리아의 거룩한 모성애를 찾아볼 수 있다. 11 - 12세기경, 현 위치에 있는 대성당에 작은 기도소를 지었

고 경당도 지었다. 그리고 13세기에 고딕양식으로 된 현재의 거대한 대성당을 건립하였다. 이 성당은 중세기 동안 영성의 핵심 성당으로 두각을 나타냈고 오메르 도시는 계속 활발한 산업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신심이 두텁고 믿음이 깊은 이곳 주민들이 성모님께 기적의 어머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부여하였다. 1343년에 기적의 성모님 상이 완성되어 지금도 사람들은 하느님께 가기 위해 성당의 오른쪽에 계신 이 기적의 성모님을 방문하곤 한다. 이러한 역사적 유래를 살펴볼 때 성 신부님의 종교적인 시원은 생 베르탱 학교와 생-오메르라고 할 수 있다. 피에르는 기적의 성모님 행렬 때 참석하였고 이 성모님 상을 에맹의 동산 나무에 매달아 놓고 기도도 드

## V. 파리의방전교회

아직도 위엄과 웅장함을 간직한 외방전교회의 건물에는 자취를 감춘 채, 다른 나라 학생신부들로 메워져 있다. 몇몇 노인 사제만이 본부에 남아 있을 뿐이다. 유난히 아름답고 넓은 뒤뜰 정원은 사라진 신학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잘 가꾸어져 정돈되어 있어서 아름다움을 한층 더해 준다. 정원가에 늘어선 육중한 나무들도 그 무엇에도 위축됨이 없이 정원의 위엄을 더해 주고 있다. 평신도 없이 노인 신부님들의 아침미사 때 들리는 라틴어 노래는 한때 융성했을 때의 미사를 조금이나마 회상하게 해준다.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한 이곳,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앙의 신비가 어려 있으리라.

성 신부님의 한국 파견 시 신학교에 대한 표현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곧 신학교도 사라졌다. 내가 수많은 아름다움을 보았던 곳, 많은 훌륭한 것을 배웠던 곳, 내가 그토록 행복했었던 곳,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있으므로 느끼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행복했던 곳, 그 정든 신학교는 사라졌다.”

무엇이 신부님으로 하여금 신학교의 생활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했는가.

사람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비추어져서 그 사람의 존재가 이끌어진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열원하는 이에게는 그 어떤 다른 욕구도 끼여들 수 없다. 이 최고의 아름다운 분에 대한 열의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것이다. 성 신부님의 그리스도와의 일치, 그분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의가 바로 신학교의 생활을 하느님 최고 축복의 생활로 살게 했던 것이다. 성 신부님은 이렇게 쓰셨다. “선교사는 강한 인간이어야 하고 성 교회의 제단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일하며 고통받고 기도하며 그 누구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 봉헌되는 사람에게는 휴식이 없다. 사랑이신 그 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항상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신념과 열정이 성 신부님으로 하여금 한국으로 파견되기 전 에맹 언덕에 서서 고향을 마지막으로 바라볼 때, 또 마르세유에서 아름다운 고국 땅을 이별할 때, “하느님께서 적어도 나에게 작은 시련을 보내시려 했는지, 나에게 쓰라림을 맛보게 하셨다” 고 토로하게 했던 것이다. 그 힘겨운 이별의 아픔 가운데서도 성 신부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으로 굳건하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이다.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집이나 형제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리는 사람은 백 배의 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한한 희망을 걸고 선교의 길을 떠나셨다. 그렇다.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굴곡과 수많은 가시밭길에서도 용기가 꺾이지 않고 사랑이 질식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하는 분에 대한 간절한 동경과 사랑하려는 갈망만이 커지는 것이다. 성 신부님의 보이지 않는 비범은 바로 이것이다.

## [ 부 록 ]

성모승천작은자매회의 정신

일러두기

이 책은 불어본으로 된 성모승천작은자매회의 정신을 번역한 책이다. 성 신부님께서 1963년 프랑스 휴양(24) 중에 불어본을 보내주시면서 번역하여 수련소에서 볼 것을 당부하셨다.

이 번역본의 원본은 완전한 문장으로 서술되지 않고 생략법으로 쓰여졌기에 어법에 어긋나거나 문맥이 자연스럽지 못한 구절들이 있다. 또한 원본에 불어의 고어들이 많아 번역상 표현이 매끄럽지 못함을 밝혀둔다.

작은 책자로 되어 있는 성모승천작은자매회의 정신은 1960년도에 출판되었다. 이는 승천회가 설립된 1865년 이래 거의 100년이 지난 후의 작업이다. 우리는 이 정신이 승천회 수녀님들이 근 100년간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뤄낸 당신들의 수도생활의 정체성, 즉 승천회의 창립정신을 내면화하고 영성화한 작업임을 알 수 있다. 성 신부님께서 성가소비녀회를 창설하신 지 20년 된 후에 이 책을 접하셨다. 그리고 당신이 모델로 삼으셨던 성모승천작은자매회의 정신의 진수를 프랑스 휴양 중에 보시고 즉시 우리 수도회에 보내시어 그 중요성을 피력하시면서 당신의 유언서처럼 그 정신대로 나아가라고 권고하셨다. 각 장이 시작될 때마다 성 신부님은 친히 주석을 다시고 설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곳은 밑줄을 그어 놓으셨다.<sup>25)</sup> 이 소책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성 신부님께서 성모승천작은자매회에 관해 쓰신 편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요새 가타리나한테(벨기에)<sup>26)</sup> 편지 보냈습니다. 성모 승천 수녀원에 가 보라고 많이 권하였습니다”(1961년 성 신부님 편지).

“내가 시작할 때에 프랑스 성모몽소승천(ASSOMPTION) 수녀원 식대로 성가수녀원 시작했습니다. 그 수녀들 2명씩 가난한 집에 가서 가난한 가족을 도와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를 하녀처럼 섬기는 일입니다”(1961년 4월 25일 성 신부님 편지).

“며칠 후에 ASSOMPTION 수녀원 본원에 가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성가수녀 위하여 몇 가지 말하고 몇 가지 프랑스 책 사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1963년경의 성 신부님 편지).

“어제 말가리다 수녀 별세(1963년 9월 선종) 소식을 듣고 매우 아프고 매우 근심되었습니다. 물론 그를 위하여 미사 중에 기구하겠습니다. ... 중략 ... 오늘 우편국으로 몇 가지 책을 보내드립니다. 전부 다 성모승천작은자매회에 관한 책입니다. 설립자 신부 “빠르네” 신부 일생, 설립자 수녀 “예수의 마리아 수녀” 일생, 잡지, 비라, 정신 설명,<sup>27)</sup> 기타...

이것을 대단히 귀하다고 생각하시오. 나는 이 회를 생각하고 성가수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여러 가지 책을 본원 위하여 번역하시오, 수녀원 안에서 읽어보시오, 지금 인쇄한 것 없지마는 반드시 수녀원 안에 노비시아 안에 이 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정신대로 나가시오, 내가 그것을 원하고 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나와 그 수도원 위하여 부탁할 것 있으면 나한테 편지하시고 곧 가겠습니다”(1963년도 성 신부님 편지).

응답

(REponses)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설명

(a quelque Questions)

1. 수도생활
2. 사도적 활동

3. 전문직
4. 공동체 정신
5. 교회 안에서의 위치
6. 삶의 구조
7. 증거사례
8. 가톨릭 활동과 수도생활

petes-soeurs de L'Assomption  
 57, rue violet  
 PARIS  
 XV.

Nihil obstat  
 P. Dauby, le aout 1960

성모승천작은자매회(28)

#### 쫄 목적

성모승천작은자매회는 1865년 노동자 계층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회복시킴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자”, 이것이 이 회의 창설자이며 성모승천회의 수도자였던 에티엔 빠르네 신부의 생각이었다. 서민계층과의 잦은 접촉을 하면서, 그가 가장 좋아했던 일은 가난한 병자들을 방문하는 것이었는데, 빠르네 신부는 그들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노동자 가족들이 겪는 생활의 고통이 신부의 가슴에 와서 박혔다.

그는 오랫동안 ‘노동자의 아픔’을 치유할 방책을 모색했다. 신부는 이렇게 술회한다.

“나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목격했다. 그들 가정 안에는 분명코 가르쳐야 할 일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었으나 그것들은 남자들이나 사제가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다. 그러니 여자인 수녀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

그는 가정 쇠퇴와 같은 일을 위해서 물질적 도움과 일시적인 방문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신적 버팀목과 항구적인 도움이 어느 정도 가정에 영입되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이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병고가 한 가정을 참담한 상황으로 몰아가기 전에 때맞추어 그 가정에 수녀를 파견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고 모든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집안에서 병자를 돌보아 줌으로써 성모승천작은자매회의 목적이 실현될 것이다. 이것이 예견되는 이상적인 취지이다.

#### 쫄 영성

사랑을 우선으로 하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규칙이 성모승천에 대한 기본 영성이다. 그리스도와 내적 결합, 동정녀 마리아께 두는 자녀로서의 신뢰, 성교회의 용감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전례 생활, 가족 정신, 단순함, 기쁨 등이 그 영성을 특징짓는 것들이다.

성모승천작은자매회는 특히, 그리스도의 구속 신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는 영성을 산다.

#### 수도 생활

교의와 성서에 원천을 둔 기도가 주된 비중을 차지한다.

- 전례 기도: 미사, 로마 기도서로 바치는 시간경(시편 응송으로 바치는 아침, 점심, 저녁기도, 대축일에는 노래로 한다)

- 개인 기도: 묵상, 성체조배, 묵주기도, 영적 독서, 피정

일, 가난, 순명을 통해서, 공동체의 형제적 분위기 안에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희생을 실현한다.

#### 사도적 생활

병자, 미소한 사람,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봉헌된 삶.

“나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루가 4,18)

빠르네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가십시오. 그들의 불구를 위해 아버지 같은 심정, 어머니 같은 심정, 자매 같은 심정을 지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안에서 한 가정을 찾도록 하십시오. 가난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병자들, 이들이 바로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화시켰다. “관상생활과 활동생활, 이 둘의 배합 없이는 작은자매회의 결성은 불가능하다.”

성모승천작은자매회의 핵심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르멜의 영혼, 선교사의 정신’이다.

그리하여 자매회의 삶은 활동과 관상의 일치를 끊임없이 실현하고자 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영적 모성애, 즉 겸손하고 드러나지 않는 봉사,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헌신의 자각을 길어 올림으로써 동정녀 마리아의 사랑을 중재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성교회에 대한 사랑이 자매들의 중심부로 흐르게 한다.

#### 쫄 사도직

성모승천작은자매회의 “사명”은 인간적으로, 영신적으로 가장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터를 둔다. 본 회의 수녀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와 노동자 집단 사이에 놓여진 장벽”을 염두에 둔 교회의 부름에 응답한다. 카르딘(Cardjin) 주교.

수녀들은 어떻게 성교회의 복음화에 참여할 것인가?

수녀들의 사도직은 가정 안에서—노동자 가정과 빈민 가정 안에서— 구현된다. 병자 가정에 직접 들어가 간호사 역할과 병행하여 일상적인 집안 일에도 ‘가족적인 손길’의 도움을 주어 아이 돌보기, 식사 준비, 장보기, 집안 치우기 등을 한다

가사활동, 의료활동, 사회활동, 교육활동 안에서, 작은자매회 수녀들은 단순하고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가정 안에 참여하는 수녀들의 봉사는 현대인들에게 효율적인 사랑을 제시해주는 구체적인 방법이 된다. 일상생활을 함께 나눌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교의



분위기가 형성된다.

수녀들은 복음화에 대한 관심을 부단히 하는 한 온전히 사도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예비자 교리를 위한 준비가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예비자 교리를 위한 준비는 몇 년간에 걸친 교류, 혹은 재교류를 통해, ‘사회복지 제도’에 의한 연장선상에서 간혹 수년에 걸쳐 지속될 것이나, 그 지향점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발견하도록 자극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작은자매회 수녀들은 믿음에 눈을 떠서 더 심도 있는 가르침을 갈망하는 성인들에게 교리교사가 되어 주는 소명을 받았다.

총체적인 사도직은 가톨릭 활동 단체, 본당 공동체 그리고 여러 사회 단체 혹은 종교 단체들과의 협력 하에서 이루어진다.

오랜 문명 국가의 도시 중심부나 저개발 구역처럼 빈민 노동자 인구가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자매회 수녀들은 이상적인 선교생활을 한다. 그리하여 27개 국적의 2500명의 수녀들이 유럽, 북아프리카, 남·북아메리카, 레바논, 뉴질랜드에 퍼져 있다.

### 쫄 양성 과정

약 2년 반의 양성 기간을 거친 후 첫 서원이 있다.

청원자의 수련 기간은 6개월로 한다. 이 기간은 수도생활을 처음 발견함에 요구되는 기간이며, 아울러 이 기간에는 미래의 작은자매회 수녀를 사도직에 준비시키면서 초보적인 가사일도 수련시킨다.

1년 수련기는 교회법규에 합치된 1년으로 프랑스의 경우 주앵빌에서 이루어진다. 이 1년간의 교의교육과 영성교육을 통해 수도자로서의 봉헌의 의미를 견고히 한다.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가르침, 수도생활과 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심화한다.

2년 수련기는 프랑스의 경우 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 1년 동안은 노비스들의 노동자 계층 안에서의 사명을 입문하는 기간이며 첫 서원을 앞두고 작은자매회 수녀로서 살게 될 제반 사항들을 모두 체험하게 하는 기간이다.

이론교육과 실습을 통해 사도직에 요구되는 의학, 사회학, 교리 지식들을 확고히 한다. 여성 가정 근로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을 준비할 경우 보충 교육기간은 연장된다.

첫 서원 후 즉시 1년의 보충 기간이 이어지는데, 이 1년 동안 수녀들은 ‘생활 안에서’ 수도성소와 선교성소의 모든 양상들을 경험한다.

종신 서원은 첫 서원 후 6년 후에 이루어진다. 종신 서원을 위해 각 나라의 자매회 수녀들은 모원으로 돌아와 6개월간 준비한다. 이 기간을 수련기간이라 한다. 기도와 침묵 속에서 수녀들은 회의 심장부에서 서로 만나 합류함으로써 이상적 공동정신과 개인성소를 굳건히 한다. 수녀들은 일치된 가르침 안에서 가족적이고 가톨릭적 정신을 길어 올린다.

작은자매회 수녀들은 어떻게 수도생활을 계획하는가?

“수도생활은 하느님의 선택에 응답하는 거룩한 삶이다.

성모승천작은자매회 수녀들에게 깊고 참된 내적 삶은 그리스도와 성교회에의 봉사의 원천이 된다” (관례집).

## 개요

“가르멜의 영혼, 선교사의 마음”

성모승천작은자매회의 심오한 일치는 창설자 빠르네 신부의 이 한마디 안에 총괄된다.

“가르멜의 영혼” : 수녀는 기도와 관상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바쳐야 한다. 이러한 봉헌된 삶으로 수녀는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존재가 된다.

“선교사의 정신” : 수녀는 자신의 삶을 노동자 계층에 바쳐야 한다. 이러한 봉헌된 삶으로 수녀는 ‘파견자’가 된다.

그러므로 작은자매는 하느님께 속하며 성교회에 봉사한다.

- 목적: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 방법: 병자가 있는 노동자 가정이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 가정 안으로 들어가 전적으로 오로지 노동자를 위해 헌신하는 것

빠르네 신부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오직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을 재현하여야 합니다. 그분이 그러하셨듯이, 여러분도 자신을 완전히 잊을 정도로 자비를 베풀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피 흘리는 것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자매회의 활동은 영성을 기본으로 하며 지극히 구체적인 선교활동으로 명확히 정의된다.

본 회의 소명은 성교회의 소명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처럼 봉사함으로써, 사랑 안에서 복음화하는 것이다.

본 회의 정신은 참되고 순결한 그리스도 정신에 강조점을 둔다. 그리스도의 자비와 굳건한 일치 안에서 온갖 양상의 빈곤을 지각하여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안에서나 혜택받지 못하는 이들과 버림받은 이들을 우선 사랑하며 세상과 타인들을 향해 ‘열려 있는’ 사랑을 요구한다.

이러한 정신은 기도, 서원, 규칙에 토대로 둔 신중한 수도생활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정 마리아와, 성교회를 향한 확고하고 능동적인 사랑 안에서 원동력을 길어 올린다.

이 개요는 비록 간략하나마 그 기본 요소에 한해서는 성모승천작은자매회의 성소를 규정짓는다.

수도성소는 하느님의 선택이며, 사랑에 앞장섬이다.

영혼은 자유롭다. 그러나 스스로를 선물로서 응답한 이상 그 영혼은 맹세로써 묶이며 구속된다. 그때부터 그 영혼은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속할 뿐이니, 그 영혼은 봉헌된 자이다. 그러나 이 봉헌은 성교회 안에서, 성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성모승천작은자매회 수녀에게 이 봉헌은 일치의 신비이며 그리스도를 닮는 신비로써 이른바 관상생활에 깊이 참여하도록 만든다.

## 일치의 신비

사랑을 교환함으로써 하느님과 그의 피조물은 깊은 결합의 신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된다. 피조물은 오로지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균형과 보완과 완성을 추구한다.

하느님은 피조물 안에서 당신 사랑의 신비를 실행하기 위한 ‘성숙된 인성’을 찾는다. 사랑의 합일은 하느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화를 여는 매 순간 하느님의 부르심에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고무한다. 작은자매들은 바로 그들의 서원을 살아감으로써 이 일치를 실현한다.

“순명은 규칙과 장상에 순종으로써 하느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위해 자유의지를 버리는 것이다” (관례집).

모든 수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도록 요구받은 세례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희생으로 바치는 것이며, 부분적으로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모방하는 것이다.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온순함 자체이다.

작은자매들은 이 온순함을 순명 안에서 생활함으로써뿐만 아니라 사도직으로 노동자 가정 안에서도 생활화하는데, 이 온순함은 자매들의 자발성을 요구한다. 책임의 의무를 진 작은자매들은 성인다운 의식으로 순명을 행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순명서원에 모든 가치를 부여할 능력과 투명하고 기꺼운 동의 안에서 생활하는 능력을 갖춘다.

“정결은 바로 하느님 마음 안에 그 원천을 두는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한 자유로운 마음을 갖도록 유지시켜 준다” (관례집).

동정성은 「인간 조건 안에서 맺어지는 전체적인 의지의 맹세 선상 위에 있지 않고 성모승천작은자매회의 선교 소명을 특정짓는 계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강생으로 인류 안에서 가장 완전한 육화를 실현시키신 그리스도는 동정성을 원하시어 동정 어머니에게서 탄생하셨다.

작은자매들은 물질주의 자체와 물질주의가 만연해 있는 생활 환경 속으로 선교사명을 띠고 파견됨으로써, 바로 그곳에서 순결한 삶의 증거자가 되어야 하며, 순결한 삶 안에 하느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음을 증거해야 한다.

같은 맥락으로, 정결서원에 밀바탕을 둔 오로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자매들의 마음을 소심하게 하지 않고 마음을 넓혀주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그리하여 지극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이든, 품위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든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한다.

“수도생활은 안이한 생활과 어울려 섞일 수는 없다. 청빈은 세상과 자신으로부터 철저한 이탈을 요구한다. 그렇게 할 때 영혼은 가벼워져서 하느님을 향해 고양될 수 있으며 자신을 이웃에게 내어 줄 수 있다” (관례집).

그리스도만을 향한 이 독보적인 사랑 안에서 청빈 정신은 배양된다. 나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포기하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철저한 이탈을 위해서, 작은자매들에게 필요한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다.

사랑은 쉬지 않고 비우는 가난함 안에서만이 그 순수성을 온전히 드러낸다. 청빈은 청빈하고자 하는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안에 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언제나 대단한 것이 될 필요는 없으나 다만 깊이 생각하여 포기할 줄 아는 행동이다.

작은자매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공동체 생활에 만족해야 하며, 불평 없이 아래의 조항들을 수용해야 한다.

- 개인적인 강요는 피한다.
- 여가도 갖추지 못하며 생계를 위한 가난한 자의 삶을 열렬히 살며 일한다.
- 언제든지 직종, 돌보아 온 가정, 나라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돌보아 준 가정에 개인적으로 짐착하지 않는다.
- 선교에 있어서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

위와 같은 조항들이 성모승천작은자매들이 취해야 할 청빈 정신의 속성이다.

그러나 위의 서원들은 하느님과의 깊은 친교 없이는 용해될 수 없다. 따라서 열렬한 기도 정신은 그만큼 더 필수적이며 성모승천작은자매회의 삶 안에 스며들어야 한다.

현 세대가 더욱 물질화되어 갈수록 하느님이 그 안에 부재하시므로 관상생활이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작은자매들은 “그침 없는 기도” 로써 항구하신 그분의 현존을 전해야 한다.

그러므로 작은자매들의 삶 안에 충분한 시간을 밀도 있는 기도에 할애한다. 교회 기도와 개인 기도를 병행한다.

교회 기도: 밀도 있는 전례생활, 미사, 로마 기도서로 바치는 성무일과와 성시 음송

개인 기도: 아침기도와 저녁기도, 성체조배, 묵주기도

“작은자매의 일상적인 관상생활은, 마치 마음 안에 하느님을 새기는 것과 같아서 마음 안에 깊고 생생한 느낌을 심어줄 것이다. 관상의 하느님은 현존하시는 하느님으로 변모되어 작은자매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게 된다.

그리하여 작은자매는 마침내 자신의 영혼 안에, 자신의 삶 속에 살아 계신 하느님의 표적을 지니게 된다” (관례집).

## 닭음의 신비

일치의 신비인 수도성소는 또한 닭음의 신비이기도 하다. 사랑의 첫째 조건은 닭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작은자매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관상한다.

작은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녔던 감정들” 로 되입기 위해,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기 위해 그분의 몸짓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기울인다. 그분은 작은자매들의 활동의 원천이시다. 그분은 포도나무의 그루터기와 같아서 작은자매들은 그분에게서 수액을 뽑아 올리고 유일한 존재의 이유를 찾는다. 그분은 작은자매들의 길이며 종착지이다.

주님께서는 빠르네 신부에게 영감을 주시어 성모승천작은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끔 하는 사도의 길을 제시하셨다. 그것은 자매들의 일상 생활과 일상 행위들을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께서 취하셨던 방법들과 놀라우리만치 닮도록 하는 것이다.

작은자매들의 소명은 자매들을 구속자 그리스도의 강생 신비에 깊이 참여시킨다. 그들의 소명은 선교국 혹은 비선교국 안에서의 노동자 가정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리스도의 가정을 회복시킴으로써 하느님 백성을 다시 이룩하는 것” 이다. 이것이 그들의 목표이며, 이를 상용어로 표현한다면 그들의 ‘선교사업’ 이라 칭할 수 있다.

이 ‘선교사업’ 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구속 사업에 동참할 것을 권한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총체를 형성하며 그분의 교회를 통한 완전 무결함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신다. 한 사람의 작은자매의 성소에 담긴 위대함은 바로 신비체를 건설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 활동에 깊이 참여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것, 이것이 작은자매의 영성의 기본이며 빠르네 신부는 이 점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만일 여러분이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 작은자매라 할 수 없습니다.

작은자매는 예수 그리스도 외의 다른 어떤 방법도, 다른 어떤 인도자도 찾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가꾸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모됨으로써 아버지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

우리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끊임없이 그분에게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재무장하십시오.”

그러므로 기도와 함께 진리 탐구는 작은자매들에게 일생의 의무이다. 성서, 교회사, 교리, 교의를 탐구의 원천으로 삼는다.

양성 기간 동안 수업은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양성 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업은 계속 이어지지만 선교 활동의 일정에 맞추어 필연적으로 제한된다.

그리스도를 닮아감은 탐구와 관상으로써만 얻어지지 않는다. 하루 하루의 사랑 안에서의 고행을 요구한다. 작은자매는 만족과 성취라는 분위기로 안주할 권리가 없다. 그는 그때마다 한 단계 더 고양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요구된다. 영적 싸움의 순간들은 공동체 생활에서 그리고 선교 활동 안에서 맞게 될 것이다. 서로를 참고 견디며, 피로를 기꺼이 감수하며, 불시의 일이나 실패 앞에서도 평정을 보존하며, 가끔은 배은망덕하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일에서도 헌신하며, 항상 다시 시작하는 인내를 갖고 순명 안에서 관대하며 자신과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겸손...

월강 코로나(Fulgens corona) 교서29)에서 교황 비오 12세는, 성모 승천 신비 안에 계시는 동정 마리아를 “절망 중에 있는 이 세상에 희망의 표지로 우뚝 서 계시는” 분으로 제시하였다.

동정 마리아는 모든 자녀들이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하신다. 그들과 함께 그들의 일상의 짐을 지시면서 그분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위에 희망의 밝은 빛을 빛나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성모승천의 빛 안에서 생활하는 작은자매들 역시 고통받는 세상에서, 죄인들 안에서 ‘희망의 표지’가 되어야 한다.

마리아의 신비는 그들의 기도생활과 선교생활을 밝혀준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곁에서 작은자매들은 봉헌의 의미와 사도직의 의미를 찾는다. 즉 마리아는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강생을 취하시도록 하심으로 그리스도께 유일하게, 온전히 예비된 최초의 분이셨다. 또한 마리아는 예수 잉태 예고에서부터 승천까지의 공동 구속자로서의 신비를 사셨고 세상 구원을 위해 오신 주님과 친밀하게 결합되신 최초의 분이셨다.

목주기도 안에서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매일 묵상하면서 작은자매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는 법을 마리아께로부터 배운다.

마리아처럼 자매들은 기도하고 영혼을 예수께로 향한다.

마리아와 함께 자매들은 세상 구원을 위한 희생에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자매들은 모든 영적 모성이 요구하는 초월의 인도를 받는다.

이것이 성모승천작은자매회의 이상적 수도생활이다.

성모승천작은자매회의 사도적 활동의 특징은 무엇인가?

“성모승천작은자매는, 하느님의 풍요로우심으로 아무 두려움 없이 세상에 나아가 일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가정 안에서 소임을 다 함으로써 구속사업에 변변치 않게 보탬 수고를 하느님의 나라에 쌓을 수 있다” (관례집).

온전한 봉헌 안에서 하느님과의 개인적 만남을 통해 하느님께 지극히 가까이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들에 지극히 가까이 있기에 병자들, 가난한 이들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하나 되어 어울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모승천작은자매회가 갖는 소명의 양면성이다.

기도와 관상은 상호 보완, 토대가 되어 자매들의 삶에 균형과 윤택함을 부여한다.

작은자매들의 ‘선교 활동’은 다음과 같이 명백히 규정지어진다.

활동 영역: 노동자 가정

활동 방법: 노동자 가정에 체류

사도직 목적: 노동자 계층 내의 가장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

내재성: 믿음, 희망, 사랑의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밀착

가난한 이들은 항상 성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선택해 왔던 이들이다. 가난한 이들이란 물질적,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말한다.

작은자매들은 성소로써 노동자 계층에 헌신한다. 하늘 아래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들은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달려간다. 산업국의 대도시이건 광산지대의 소도시이건, 판자촌이건 대단지이건 빈민층이 나 극빈층이 있는 곳에 우선 간다. 그들의 활동 영역은 변화무쌍하며 동시에 매우 분명하다.

“선교활동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며 국가, 인종, 종교에 구별을 두지 않는다. 오로지 가난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영혼들의 영적 비참의 구별만이 국경이라면 국경이 된다”(관례집).

활동 영역

성모승천작은자매회의 활동 영역은 병자 본인과 그 식구들, 즉 가정 전체가 되므로 일반 대중이 그 영역이 된다.

그로부터 주된 선을 명백히 구획 짓는 것이 중요하다.

하느님이 부재하는 환경: 마르크스적 이념의 영향 아래 무신론과 물질주의가 팽배함과 동시에 가톨릭 활동 대원들의 영적 증대가 병행되는 곳.

기계가 지배하는 곳: 가정 주부들의 일을 대신해주는 기계(세탁기, 청소기)와 경탄할 만한 현대 전기제품(라디오, TV, 영화관)들이 지배하는 곳. 인간의 능력을 전능한 것으로 믿음으로써 종교의 의미를 즉각 감소시킨다.

비인간적인 환경: 노동자들은 ‘집단 속에서’ 짓눌리어 종종 개인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당장을 염려하기에 사육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갈증과 탐욕에 사로잡힌다. 이 모든 요인들은 인간의 가치를 하락시켜 그들을 부도덕 안에 과묵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간 자체의 능력 안에 신뢰를 두게 하여 출세법에 편승하도록 만들 뿐이다.

이 세상에서 노동자 가정은 종종 불안, 불안정, 불균형 속에 살아간다. 불안하고 모자라는 거주 공간 안에서 콩나물 시루처럼 끼여 생활하고, 가족 생계의 유일한 재원인 직장과 봉급의 불안정, 그리고 인간 이하의 생활, 혹은 무거운 대물림으로 인한 ‘여건들’의 결과로 빚어지는 가정과 부부생활의 불균형이 그것들이다.

반면, 이 세상에서 노동자 가정은 꽃 피울 수 있는 풍성한 잠재력을 또한 지니고 있다. 일에 대한 지각과 견고한 감각, 연대성과 상부상조, 응집력의 감각, 거친 생활 속에 흐르는 활력과 에너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극기할 줄 아는 능력들을 지니고 있다.

그 모든 밑바닥에는 불만과 채워지지 않는 욕구,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채 하느님을 찾는 이들의 요구가 흐른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깨우고 환기시키고 연구, 조사해야 할 근처의 요소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작은자매들의 활동 영역이 된다.

그렇다면 작은자매들의 활동 방법은 무엇일까?

## 활동 방법

어떤 가정에 병자가 생겼다. 작은자매가 가서 그를 간호한다. 그렇다. 자매는 그 가정의 살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 가정에 머무는 것이다.

작은자매가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녀를 기다리는 일들이란 물질적 혹은 간호사로서의 일들로서 음식 만들기, 아기 기저귀 갈아 채우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준비시키기, 병자의 붕대 감아 주는 일... 따위들이다.

이 모든 일들은 일에 대한 감각을 요구하며, 간호일이나 따분하고 청결하지 못한 노동에 용기가 꺾이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아이들의 소란, 너무나 협소한 방, 공간의 불편 등 그 사람들의 생활 여건을 이루고 있는 그 어떤 요소에도 겁을 내서는 안 된다.

비록 더 시급해 보이는 곤경이 눈에 띈다고 해서 하던 활동을 당장에 중단할 수는 없다.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든 어떻든 간에 제반 여건들을 향상시키려고 계획하기에 앞서 행동에 뛰어들어야 하며 그렇게 해서 그들의 일상 생활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하며, 향상되더라도 일상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해서 가정은 작은자매를 요청한 것이고, 작은자매는 바로 이러한 가까운 범위 안에서 그의 활동 영역을 찾는다. 가사 노동이나 준 의료 활동의 소임에 초점을 둔 작은자매들의 활동은 심리학적 감각과 이해력의 자질, 신중성, 총명한 지성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말보다도 본보기로 써 그리고 전문적인 능력이 동반된 헌신으로써만이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은 적게, 행동은 많이” (빠르네 신부)

이러한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작은자매들은 고통스러운 상황들과 접하게 된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상황들이 작은자매들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작은자매들은 가난의 고통과 애로점들을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된다.

속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걱정을 함께 나눔으로써 거친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많은 가정의 어머니들이 고독한지, 수많은 가정이 물질적 빈곤으로 겪는 비극적인 불안감에 대해 가슴 저미는 시야를 열어 준다. 마찬가지로 몇몇 가정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가정과, 가정을 붕괴시키는 끔찍한 요소들, 즉 심한 주택난, 가정 재원의 불안정, 집 밖에서의 여성들의 일... 이 사이의 극심한 불균형으로 인한 투쟁을 발견하게 된다.

이 모든 문제점들을 작은자매들은 충만한 사랑으로 이해하는 자세에서 접근해야 한다.

빠르네 신부는 이것을 분명히 밝혔다.

“작은자매는 더 할 수 없는 애정으로 병자들을 맞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열려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동정하고 존중하는 사랑, 변치 않는 자비와 남김 없는 헌신으로 표현되는 사랑, 봉사할 거리를 발견하게 해주고 기쁘게 실행하게 해주는 사랑을 말한다. 이 사랑은 판단하지 않으며, 드러나지 않으며, 지배하지 않는 사랑이다. 다시 말해 모성애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친교가 자리잡히고 서로의 나눔이 시작될 수 있다.

## 사도직 목적

작은자매들은 그들의 분명한 활동을 통해 증거를 보임으로써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단순한 가사 노동으로 하여금 그들은 매일의 걱정거리, 생활난 등을 서로 나누게 된다. 작은자매들은 우선 인간적 차원에서 도우려고 애를 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가정의 분위기를 차츰 변형시켜

가끔은 아련하고 무의식적이나 분명 실제적인 분, 하느님의 필요를 깨닫게 되는 분위기를 조성시킨다.

사도직은 다른 여러 차원 안에서 이어진다. 개인적인 접촉, 사회 의료 센터, 간호직, 의료보험, 도서관, 간호 대상 가정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및 가사일 양성 모임.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작은자매들은 사도직 목적의 견지를 잃지 않는다. 즉 노동자 계층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회귀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가정 안에 작은자매가 하루 체류함으로써 병자가 기도의 맛을 되찾고 성사의 의미를 이해하며 또 사제에게 자신의 이러저러한 문을 열어 보이는 일이 종종 있다.

물론 임종을 돕기도 하지만, 작은자매가 더욱더 갈망하는 것은 살 수 있도록,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가정 안에서 하느님을 향한 여정이 느리게 실현되는데, 이는 진정한 복음화의 예비 단계이다. 교리 교육에 입문시킴으로써 이제껏 개인적 신앙을 전혀 가져 보지 못했던 세례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지식을 얻게 해주고,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의 진리에 입문하게 하여 성교회에 들어오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이로써 작은자매는 교구 내 예비자 영입 운동에 일조하는 것이며 작은자매 교리 교사는 모든 이들을 환영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더욱 거듭난 가정들은, ‘형제애’ 안에서 서로 모이는 기회를 제공받는데, 그 형태는 다양하다. 미사 참여, 피정, 세미나, 나눔의 시간...

단일한 형태에 구애받지는 않는다. 어떤 이들은 직접 본당 활동 안에 흡수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가톨릭 활동 대원으로까지 갈 것이다.

믿음에로의 회귀, 또는 믿음의 재발견은 작은자매가 가정에서 일궈낸 선교사로서의 노력의 당연한 귀추이다.

## 내면화

작은자매들의 열렬한 선교사 정신에 깊은 내재성이 담겨 있지 않다면 여러 차례의 난관, 실패,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버텨낼 수가 없을 것이다.

작은자매가 병자 가정에 들어설 때, 눈에 띄는 수도복과 겉으로 나타나는 태도로써 그는 모든 이들 눈에 ‘색다른 사람’으로 비추인다. 그러나 그의 봉헌이 그의 태도를 변모시킨다면 그것은 특히 ‘내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느님과 결합되어 있는 수녀, 작은자매는 오로지 노동자를 돕거나 개선하는 차원에만 머무를 수는 없는 것이다. 작은자매에게 병자나 그 가정, 도시는 신학적 견지 안에서 포착되는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진정한 사도가 되지 못할 것이다.

살아 있는 믿음이란 고통받는 존재, 병자를 “전능하신” 하느님의 자녀로, 또 하나의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이다. “너희가 내 자녀인 미소한 자에게 행한 것은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마태 25,40).

믿음은 공손함과 신중함과 무조건적인 헌신을 가중시킨다.

희망 역시 그러하다. 왜냐하면 작은자매는 구속사업이 범 우주적 사업이며, 그가 돌보는 이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하느님을 확신하며, 희망 안에서, 작은자매는 그가 접근하는 사람 안에서 이러저러한 가능성을 발견하며, 또한 영입점과 틈을 발견하는데, 바로 그 틈을 통해 ‘하느님’께서 관통하실 수 있다.

희망은 작은자매에게 안심을 준다. 하느님의 은총이 작은자매보다 앞서 병자의 가정 안으로, 병자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며, 이러한 하느님의 활동이 작은자매가 말로써 전하고 행동하는 모든 활동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작은자매가 알기에 안심한다.



그리고 사랑, 동정이나 인간적 연민에 그치지 않는 이 자비는 향주삼덕으로써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해서 더욱 순수하게 무조건적으로, 돌려받음이나 보상에 대한 욕구 없이 사랑하게 한다. 작은자매들이 그들의 수도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몰입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행하신 그대로의 사랑을 타인들에게 적절히 심어 줄 수 없다.

그분을 떠나서는 그들의 활동은 아무런 의미도 담지 못한다.

성모승천작은자매들의 수도생활 안에 전문직의 위치는?30)

“작은자매는 노동자 가정 안으로 들어가 병자를 돌본다. 의료 처방에 따른 물리적 봉사와 가사 노동, 사회 노동의 봉사를 통해 작은자매는 영혼들에게 접근한다. 그리하여 온전한 복음화 사업이 성취를 이룬다” (관례집).

언뜻 보기에 적절한 전문적인 일과 전적인 수도생활을 연결시킨다는 것이 어렵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렇다 해도 현시점에서는 사도직을 행사하는 모든 수녀들에게 현실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봉사하기로 헌신한 작은자매가 도구로 사용되는 현대의 기술을 제쳐놓고 그의 소임을 완수할 수 있겠는가?

성모승천작은자매회의 수도생활은 작은자매들을 세상으로부터 ‘이탈’ 시키는 반면 동시에 봉사와 능력에 의존하는 순수한 선교활동을 위해 작은자매들을 세상 속으로 되돌려보낸다.

“여러분들의 헌신의 특징은, 가난한 이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들의 지극히 겸손한 종이 되어 주는데 있습니다. 병자들의 영성의 성과나 구원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이 어떻게 봉사하느냐하는 그 방법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빠르네 신부).

전문직의 특성이 바로 거기에 있다. “전문직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기술적으로 갖추어져 사람들이 사는 세상 안에서 진정으로 양질의 봉사를 하는 것이다” (마르플레 신부).

그러므로 작은자매들은 그들의 선교활동을 위해 전문성의 요구에 응답하여야만 한다.

어떤 형태들이 이러한 요구를 제시하는가?

작은자매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요구에 응답하도록 준비하는가?

전문직 소임은 그들의 수도생활 안에서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직업 지도

가정과 병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성모승천작은자매들은 다양한 범주의 전문직 소임에 임한다. 즉 가사 노동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가사 노동자는 사도직을 구성하는 기본 세포가 된다. 가사 노동자의 소임은 다른 소임과 마찬가지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가사 노동의 가장 현대적 기술과 복합적인 가사 노동을 합리적으로 계획하는 법을 먼저 익혀야 하고 가정 문제,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한 초보 교육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육아법의 자격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개방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종종 장기간으로 이어지는 가정 체류를 통해 작은자매는 진정한 가사 활동을 배우는 기회를 얻는다.

간호사 소임은 자매의 보조 의료활동이 가정에서 병자에게 실행되는 만큼 그 책임은 더 크다는 사실을

용인함으로써 기술적 자질이 다른 어떤 소임보다도 더욱 요구된다.

가사 노동자는 가사 노동과 아울러 병자 간호를 동시에 확실하게 맡아 함으로써 돌보는 기간 동안에 보다 완전한 가정 내의 복음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작은자매는 구역 봉사나 복지관 내의 봉사로써 영향을 발휘함으로써 항상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참여한다. 즉 ‘구원을 위한 치유’이다. 작은자매는 고통받기를 배우는 사람이며, 가슴속에는 치유의 희망을 보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지사 소임은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므로써 폭넓고 다양한 도움의 기회를 갖는다. 사회 복지사의 소임을 맡은 작은자매는 가사 노동이나 간호사의 소임을 맡은 자매를 통해 매우 다양한 상황들과 접촉하면서 가사 노동자 혹은 간호사 자매들과 함께 그리고 자매들을 보충해주면서 자매들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지극히 물질적 요구들로부터 내면의 문제점들을 발견하는 것이 그의 소임이다.

상대를 존중해주고 판단하지 않으며 비난하지 않는 일의 처리 방법으로 자매는 물질적, 행정적 도움뿐만 아니라 빛과 정신적 버팀, 도약을 가져다준다.

### 직업 교육

정규 학위에 비준하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성모승천작은자매들이 받아야 할 교육은 무엇인가?

가사 노동 교육은 청원자 시절부터 시작되는데, 이론 및 실기 교육과 손으로 하는 일상 노동을 교육받는다. 2년 수련기부터는 가정에 파견 견습이 시작되는데, 견습기간은 첫 서원 때까지 계속 지속된다. 이 기간에 관례상 가사 노동에 관한 시험 기간을 둔다.

출산, 분만 및 육아법 견습 외에도 가사 노동자 교육은 자질을 갖춘 지도 교사 자매로부터 작은자매회 안에서 전적으로 맡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교육에 사도직의 가치를 부여해 주고 개개인의 소명에 맞도록 교육의 방향을 잡는다.

첫 서원 기간 동안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자매들도 있다. 그들은 교육관에 따로 모여 계속 수업을 받으며 외부에 나가 견습한다. 아울러 그들은 교육 기간 동안에도 빠짐 없이 수도생활을 해나가는 기회를 취함으로써 교육은 그들의 소명 선상 안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작은자매들은 가사 노동, 의료, 사회 활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기본 교육을 취득할 수 있다. 그들은 저마다에 요구되는 필요와 가능성, 전공 학문에 따라 각자의 교육을 심화시킨다.

전문 교육은 시험, 수업, 독서, 정보들을 통하여 평생 계속된다.

### 수도생활 안의 전문직 위치

이러한 전문직 교육은 오늘날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진실된 도움의 손길을 주기에는 불충분한 단순한 선의를 뛰어넘게 함으로써 이웃에게 보다 양질의 봉사를 하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전문 교육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준다. 전문 교육은 명확성, 체계성의 정신을 발전시키도록 도우며, 이는 작은자매들이 인간적인 수고를 온전히 소화시킬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이롭게 행하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로 서약한 작은자매들은 그들의 보잘것 없는 일상활동에서 전문성은 하나의 요구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전문화의 의식은 그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최상의 활동을 완수하도록, 최상의 기술을 얻는 데 필요한 노력을 항상 하도록 고무시킨다. 전문화된 완벽성이야말로 수도생활로 정의되는 완벽함의 추구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능력 또한 수녀들이 공적으로 서원하는 사랑의 불가피하고 구체적인 표현이다. 능력은 해결책을 강구해주고, 행동으로 완수하게 해주며, 사랑의 표현 수단이 되어 준다. 작은자매들은 바로 그들이 ‘주님께

올리는 진지한 사랑' 을 그들의 형제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이는 종종 장기간의 훈련을 통해 습득한 전문 직업 활동에 따름으로써 이루어진다.

예수 강생의 영성에 초점을 두는 성모승천작은자매회이기에 '속화된' 표면 밑에 감추어진 '신성' 을 발견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이다. 작은자매들은 세상살이 안에서, '세속' 에서 일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의 매 순간은 하느님을 만나는 기회로 주어진다. 그분은 거기에 숨어 계시나 활동하신다.

랑게 신부는 이렇게 표현했다. “강생 이후 세속에 머물러 계시는 하느님께서서는 세속에서 별로 불편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역사 안에 살기 위해 오셨고, 인간의 일을 하셨으며 우리와 같은 언어로 말씀하셨고 목수이셨던 하느님이시기에 강생 그날 이후로는 모든 것을 그분께서 부담하십니다.”

하느님이 세상 안에, 자연성 가운데 숨어 머무시기에 작은자매는 더욱더 그분 안에 살면서 그분을 가리운 그림자를 벗겨내고 그분을 드러내야 한다. 일상의 현실에서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 '축성된' 이들이 노동자 세계 안에 존재하는 이유이다.

성모승천작은자매들은 봉헌된 이들이기에 그들의 전문직 안에서도 그들의 서원을 끊임없이 행동으로 옮긴다. 그들은 시작한 활동을 끝까지 이끌어 나가든, 중도에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든 자유로이 처분하도록 하며 보다 심오하고, 보다 총체적이며, 보다 가난한 봉사를 위해서 자유롭게 이탈한다.

서원과 봉헌은 '직업' 의 인간적 차원을 초월하게 한다. 이러저러한 형태의 활동을 실행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체들에게 봉사하는 능력과 가능성이 관건이 된다. 따라서 즉각적인 인간적 결실보다는 구속사업의 차원에서 보다 심원한 효율성이 주된 핵심이 된다.

전문직의 소임은 결과적으로, 그 소임이 본질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사도직의 가치에 모든 영역을 둔다.

작은자매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세상 참여는 무엇보다도 특혜의 기회이니, 단순히 친교의 목적으로 방문 오는 수녀에게 단았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속화의 길로 내닫고 있는 세계 안에서, 병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찾아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소임에 가치를 부여할 것입니다. 수녀들의 가치가 몰이해되는 세상 한복판을, 수녀는 더욱더 간호사로서 가로질러 지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랑게 신부).<sup>31)</sup>

전문직의 소임은 인간의 삶 속에 깊이 내리시어 인간의 비참함을 나누시고 인간의 고통에 연민을 느끼시어 그 고통을 덜어 주실 줄 아셨던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겸손한 가사노동에 파묻혀 병자들과 노인들 곁에서 지칠 줄 모르는 인내를 보이며 사회 복지직에 요구되는 힘겨운 행정 처리 업무에 순순히 따르는 것, 그것이 시간을 넘어 구속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구히 존속시키는 것이다.

성모승천작은자매가 전문직을 행사할 때에는 개인의 자격으로 행사하지 않는다. 그의 전문직은 그의 사도적 수도생활의 일치 안에서 깊이 자리 잡는다.

생활 양태와 수도복 차림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의 봉헌은 겉으로 지극히 인간적으로 보이는 활동을 통해서 인간과 하느님을 연결해 주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

공동체 정신은 어떻게 성모승천 작은자매들의 삶을 활기 있게 하는가?<sup>32)</sup>

“성모승천작은자매는 동료 자매들간에 단순하고, 끈고, 개방적이고, 화해심이 있으며 두둔할 줄 아는 모습을 보인다. 그로 인해 진리와 사랑 안에서 훌륭한 영성과 영혼들간의 일치가 이루어진다” (관례집).

우리 시대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공동의 문제점들이다. 따라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

룹을 형성하고 활동을 연대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룹은 당대의 정신 사조에 응답함으로써 현실적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성공 조건이 필요하다. 그룹 안에 깊은 연대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담아야 한다.

게다가 수세기 전부터 수도회 공동체 생활은 일치를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써 제안한다. 생각의 일치, 취지의 일치, 행동의 일치가 그것이다.

서로 다른 개성들이 마주치게 되는데, 개성이 서로 다른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그 모든 다른 개성들이 같은 이상을 추구하고 같은 사랑에 일치하며 같은 형태의 삶을 공유하는 가운데 서로 합류한다. 공동체는 영성의 일치가 이루어졌을 때만이 사도적 빛을 받을 수 있다. 공동체는 그 공동체만의 고유한 삶과 응집력과 공동체의 ‘정신’을 지녀야 하며, 개개인에게 있어서 빛을 발함은 공동체의 내적 삶의 기능이다.

공동체의 각 구성원은 공동체에 대한 생동력 있는 연대 의식과 책임 의식을 갖고 외부로 나올 때 더욱 잘 봉사할 수 있다.

작은자매들은 이러한 영적 연대감을 공동체 삶과 선교의 삶, 양 차원 안에서 체험한다.

### 공동체 삶 안에서

수녀원은 작은자매들이 현존과 사랑 안에서 바람직한 일치를 실현하도록 불린 첫 장소이다.

작은자매들은 저마다 동료들의 어려움에, 고통에, 소임에 마음으로 동참해줌으로써 수녀원이 비단 ‘선의의 나열체’가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도록 한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형제애로써 자발적인 봉사가 이루어지며, 그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마치 한 가정에서 그렇게 하듯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단순하게 달려간다.

이러한 현존은 매일 매일의 생활 안에서, 수녀원과 동료들에게서 필요한 도움을 읽어냄으로써 기도 때에나, 공동체 만남에서나, 수녀원 내부 일에서 똑똑하고 생동력 있고 무조건적이고 자발적인 봉사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저마다 참여하여 일상 소임을 함께 나눈다. 가사일, 설거지, 세탁, 다림질... 등은 기쁘고 형제애적인 상호부조의 기회이다.

마찬가지로 각자는 수녀원의 전반적인 운영 안에서 저마다의 몫을 맡는다. 세탁, 제의실, 회계, 부엌 등등... 공동체 안에서 각자는 동료 수녀들에게 봉사하는 책임이 있다. 이는 수녀원 안에 세속에 종사하는 수녀가 없는 만큼 더욱더 그러하다.

물론 이렇게 공동의 노력을 하다 보면 개인의 무능함과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다. 그러나 모두가 미약한 자들이 합해서 하나의 힘이 되어 갈 때, ‘공동 생활’의 성공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는가?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의 서로 다른 선물을 통해 상호 ‘보충’되고 충만한 부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각자, 개개인의 능력의 한도를 벗어나던 일들이 실현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 삶 안에서 이러한 상호적 현존은 진정한 사랑 없이는 체험될 수 없다.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개별적 사랑으로, 동료 수녀들 개개인의 구체적인 현실과 개개인의 고유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 사랑할 때 그들의 결점을 수용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성격에서 오는 분열과 반대를 넘어설 수 있게 된다.

이 사랑은 집착이나 상투적인 태도, 속된 친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조심성 있는 태도로써 동료 수녀들을 포용한다.

이러한 차원 안에서 성모승천작은자매회 정신의 특징인 자기 비움은 그들을 자신 안에 갇혀 있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상호 애정을 더욱 심화시키고 보편화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이기심에서 이탈하게 해준다.

사람은 같은 것을 좋아하고 같은 이상을 추구하게 되면 같은 기쁨의 깊은 체험 안에서 서로 만난다. 이

러한 용해의 체험은 작은자매들이 영성적, 공동체적, 사도적 생활의 구체적인 부분을 놓고 서로 공부하며 견해를 교환하는 가운데 견고하게 체험된다.

수도회 내의 모든 장소 안에는 깊은 애정의 분위기가 똑같이 흐른다. 정감 있고 명랑한 분위기는 개개인의 서로 다른 출신과 사회적 배경과 국적의 차이를 뛰어넘어 장상과 수녀들을 결합시켜 주고 공동체를 진정한 가족으로 만든다.

선교활동에 따르며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의식구조들 가운데에서 접촉함으로써 일치는 한층 더 강화된다. 그리하여 공동체 정신은 세상으로 확장되어 확산된다.

각국의 언어로 작성된 범 국가적인 회보, 서간, 회람장, 교서들으로써 세계 20여 개국에 흩어져 있는 작은자매들을 결합시킨다.

#### 선교사 삶 안에서

이와 같은 정신은 선교팀의 일치에도 적용시킨다.

식구 중 병자로 인해 물질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가정 안에서 작은자매들은 가사 노동자로, 간호사로, 사회복지사로서 서로 교대하며 함께 일하도록 불리며 필요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담함으로써 진정한 공동작업을 실행한다.

이것은 자신을 철저히 잊도록, 개인적인 성향에서 이탈할 것을 요구하며 오로지 동료 자매들과 함께 병자 가정의 유익만을 꾀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개개인의 노력을 공동체 전체의 관심인 선교에 보탬으로써 이 공동작업 안에 용해시켜 보다 나은 저마다의 가능성과 능력, 재질을 활용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공동체 전원이 사도적 활동에 공동참여 하는 것이다. 문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나이든’ 수녀이든, 식사를 준비하는 수녀이든, 혹은 지체 부자유 수녀이든, 병자 수녀이든 모두 나름대로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 식구들이다. 그러니 식구 모두는 맡은 바 역할이 무엇이든 동일한 유익과 동일한 사도직에 동참한다” (관례집).

사도직을 심화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전원은 공동생활에 참여한다. 공동성찰의 취지는 한 사람의 구체적인 체험 사례를 바탕으로 신앙의 눈으로 투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따라서 어느 개인이나 활동을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복음과 성교회 교리의 빛으로 성찰하고자 함이다.

그리하여 노동자층의 복음화에 있어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개개인이 직면할 때 느끼게 될 고립감을 덜어 준다. 공동의 노력은 개인적인, 한정적인 활동의 한계에서 오는 고통을 감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사도적 활동은 공동체의 과거 안에서 뿌리내린다. 작은자매 한 사람이 어느 선교활동지에 새롭게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는 선임자가 수년간 끈기 있게 실행해 놓은 일의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그 역시 어느 구역, 어느 도시이건 간에 오늘 뿌린 씨앗이 훗날, 길든 짧든 그의 소임을 마친 후에도 공동체 안에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믿는다. 그는 같은 정신으로 움직이는 작은자매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의 수고를 이어 계속 대행하리라는 것도 안다. 그러므로 선교활동은 진정으로 한 ‘팀’ 안에서, 시간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수도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선교지에서 체험되는 이러한 형제애 정신은 일치를 견고히 하며 공동체를 성교회의 진정한 조직 세포로 만든다. 오늘날의 세계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일치와 자비의 증거이다.

#### 성교회 안에 성모승천작은자매회의 위치는 어디인가?33)

“하느님의 교회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초석 위에 건설하거나 건설하고자 하는 원의는 모

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으며,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빠르네 신부).

많은 사람들은 수녀 복장 하나만으로도 성교회를 떠올린다. 또 어떤 이들은 작은자매들이 성교회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나 봉헌된 그들의 직무는 실제적이며 매우 분명하다. 작은자매들은 수녀로서 기도와 사도직 활동을 통해 얻는 모든 것을 성교회 공동체에 ‘결합’ 시킨다.

반면, 각 수도회는 그만의 생활 양태와 사도직 양태에 따라 성교회 안에서 고유한 자리를 차지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시될 것이다.

성교회 안에 성모승천작은자매회의 위치는 어디인가?

성교회 안에 그들의 소명은 어떻게 영입되는가?

그들은 누구와 함께 사도직 협력을 실현하는가?

### 성교회 안에서의 위치

한 수도회가 공식적으로 성교회에 결합되는 것은 우선 수도회의 규칙과 회칙을 승인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성모승천작은자매회는 1865년 승천회의 에티엔 빠르네 신부에 의해 창설되었고 1897년 교황 교서를 받음으로써 교황 권한 수도회가 되었다.

빠르네 신부는 이렇게 적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도회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튼튼하게 세워진 주님의 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니, 이는 영원할 것입니다.”

### 성교회 안에 작은자매회의 파견

성모승천작은자매회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생활 형태로써 성교회의 가장 내밀한 삶에 참여한다. 본 수도회의 구조는 작은자매들이 개인적, 공동체적 전례에 직접 참여를 허용한다.

아침, 점심, 저녁에 함께 하는 성무일도는 성교회가 선정한 찬미가이다. 이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의 매 시간을 성화시키면서 식사마저도 합창 기도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삶 전체를 찬미 안에 들어가게 한다.

전례에 보다 훌륭한 참여를 위해, 작은자매들은 그레고리오 성가를 배우며 축일에는 미사와 저녁기도를 노래로 바칠 수 있다.

이러한 기도는 개별적인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건설하며 공동체의 모든 기능은 일치로 굳건히 하는 데 기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는 성교회의 표징이 된다.

또한 본 수도회는 가톨릭 교의에 참여함으로써, 본 수도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국적으로써 성교회의 표징이 된다. 본 수도회 공동체는 본당 및 교구 차원의 연구, 성찰, 단체에 영입됨으로써, UNCAHS에 영입됨으로써 더욱 성교회의 표징이 된다.

따라서 작은자매들은 그들의 임지와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함으로써 성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일하고 있음을 의식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노동자 계층을 위한 복음화의 위임을 받는 것도 바로 성교회로부터이다.

성교회의 사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만나도록 하고 세상에 하느님을 드러내도록 하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데도 있다.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교회는 전 구

성원을 필요로 한다.

성모승천작은자매회는 오로지 노동자 가정이라는 범주 안에서 오직 인간과 하느님의 만남을 위해 일하는 기회를 얻는다.

노동자 가정 안에 작은자매의 현존은 이미 그 가정이 성교회와 만나는 기회가 된다. 가정 안에 작은자매가 체류하는 것은 선교의 첫 단계가 된다. “노동자 가정은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성교회에 입력됩니다” (보네 주교).

그리고 가정 체류 동안 관계가 맺어지면 노동자와 그 가족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성교회의 조직 세포인 작은자매회 공동체와 접촉될 것이다. 그들은 자매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것으로 선교의 제2단계가 시작되어 보살핌을 받은 가정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고 그들을 모두 점진적으로 성교회에 결합되도록 해준다.

이러한 것이 ‘형제애’의 기원이다. 이 정신은 성모승천작은자매회 공동체 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처음엔 교리 교육을 받지 못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세례자들에게 접근한다. 따라서 작은자매는 그리스도인의 원론에 따른 인문 사상만으로는 노동자 가정에 내포된 문제점들에 부딪힐 것이므로 모임에서 인문교육에 종교와 교의, 전례 교육을 접목시킨다.

형제애의 구성원들간에 형제애적 끈이 확립되어 갈 때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교가 공동체 안에서 체험됨을 실제적으로 목격할 것이다. 형제애는 그들을 점진적으로 이끌어가 그들로 하여금 ‘가정 안에서, 구역 안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는 맹세를 하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형제애는 성교회 안의 참된 삶으로 인도하는 통과 경로이다. 그리하여 위의 경로를 통과할 수 있는 가정은 본당이나 가톨릭 활동 대원으로 동화될 것이다.

#### 사도직 협력

작은자매들의 사도직 협력은, 가정 안의 체류와 형제애, 양차적 선교활동 안에서 실현된다.

작은자매들은 선교활동 안에서 보통 여러 본당으로 뻗어나간다. 그리고 선교계획에 있어서 관구 성직자와 효율적인 협력을 꾀한다. 병자, 성인 예비자 교리 교육 등이 그 첫 목적 대상이 된다. 본당 위원회에 선교활동 준비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작은자매들은 본당의 복음화 작업반에 영입되고 평신도들과 함께 일하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평신도들과의 협력은 선교활동 분야나 의료, 사회 기관에서 실현된다. 병자 가정 안에서의 일, 도서실 운영 등등... 그러나 평신도들과의 만남은 병자 가정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가정에서, 구역 안에서 평신도와의 상호부조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며 확립된다. 이러한 활동은 곧 사도직 팀 쪽으로 재유도된다. 이 밖에도 가톨릭 활동 대원들과의 공동작업 안에서도 실현되는데, 특히 A·C·O와의 공동작업이 그것이다. 비그리스도화된 환경 안에서 가톨릭 활동 대원이나 작은자매들이 선교활동에서 부딪히는 사도직의 문제점들은 어떤 면에서 동일하다. 대중 속에 참여로 부름받은 작은자매들은 가톨릭 활동 대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노동자층과 노동자층의 반응에 민감한 정보를 취할 수 있는 만큼 더욱더 참여할 것이다.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특정한 구역에서는 대중사회 안의 사도직의 노력이 노동자 선교를 통해 구현된다. 노동자 선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수녀들만이 성교회와의 관계성을 가시화하는 유일한 끈임을 재인식시킨다. 그러므로 작은자매회는 성교회의 취지 안에서 그들의 사도직 소임을 계속 추구하면서 그들의 활동은 노동자 선교라는 범주 안에 둔다.

수년 전부터 교리 교육 연구는 보다 더 그리스도의 메시지 전달에 맞추려는 경향으로 흐른다. 성인 교리 교육 문제를 두고 사도직 소임에 몰두했던 성모승천작은자매회는 자매들에게 이러한 경향에 편승할

것을 고무했다. 그리하여 교리 교사 수녀들은 이 역할에 합당하고 정확한 교육을 받는다. 노동자 환경에 대한 구체적 정보와 그들의 선교 소임은 그들로 하여금 노동자 환경의 교리 교육이라는 상황에 매우 자연스럽게 적응하도록 준비시킨다.

성모승천작은자매회는 수도생활, 선교활동, 형제애 실현, 교리 교육 등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성교회 안에서 그들의 자세와 활동은 지극히 미소하지만 그들의 사도적 공과는 지극히 크고도 독특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이 창설자 신부의 원의이기도 하다.

“여러분들의 헌신의 특징은 가난한 이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들의 지극히 겸손한 종이 되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 소명에 응답할 때 여러분은 성교회의 품 안에서 큰 힘이 되어 사도들의 일을 이어가고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성모승천 작은자매회의 생활 짜임새는 어떠한가?34)

“생활이 보다 능동적일수록 영혼은 더욱 하느님께 내어 맡길 필요가 있다” (관례집).

하루 일과표

하루 일과표의 표면적인 골격은 기도와 일, 이 두 가지의 교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진정한 골격은 ‘내적’으로 이루어진다. 각자는 자신의 균형점을 찾아내야 한다. 자신의 활동 안에서 주님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내시는지 발견하여 이로써 그의 기도생활에 양분이 되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 성무일도, 피정을 포함한 기도에 집중적으로 할애되는 많은 시간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아래의 일과표는 근사치이므로 각 지방, 나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05 : 30 기상(단, 월례 피정, 연례 피정 기간 동안에는 1시간 늦춰진다. 청원자 수련자에게는 점진적으로 기상 시간에 적응시키며 젊은이들의 수면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06 : 00 삼중기도

아침기도 - 1도 음정으로 성시 낭송

06 : 30 기도

07 : 00 미사

감사기도, 3도 음정으로 낭송

아침 식사 후, 신속하게 가사노동. 급한 병자들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08 : 30 선교활동 출발

12 : 25 개인 성찰

12 : 30 점심 식사

휴식 - 강의, 공부, 영적 독서(그날의 일정에 따라 )

성무일도 제6시과(정오)와 제9시과(오후 3시)

14 : 30 특별낭송

성체조배 및 성체 흠숭(성체 현양시)

선교 활동 출발

18 : 25 기도

18 : 55 저녁 기도, 합창으로 성시 낭송



19 : 30 저녁 식사

휴식

성찰 - 살베 레지나

21 : 15 취침 - 목요일에는 성시간

내부 소임을 맡은 작은자매는 기도 시간에 맞추어 소임을 잔다.

작은자매들은 길에서 오가는 시간 동안 혹은 특정 작업 중에 묵주기도를 바친다. 의무와는 별도로 로사리오 바치기를 좋아하면서 기도생활을 뿌리며, 그리스도의 기도생활과 동정녀 마리아의 기도생활에 긴밀히 결합한다.

기도와 일은 성모승천작은자매들의 삶의 리듬이다. 밀물과 썰물의 리듬처럼 기도에서 활동으로, 활동에서 기도로 이어진다.

영성활동

매주 영적 공부와 영적 독서로써 각자의 내면의 삶을 심화, 성장시킨다.  
독서는 모든 수녀들에게 매일매일의 다양한 풍요로움의 원천이 되어준다.

일반 잡지류: <가톨릭 정보>, <노동자 집단>, <종교·사회 활동 수첩>  
기타 전문지: <정보지>, <의료, 사회복지활동 수녀>, <간호>, <사회 정보지>

그 밖의 기본 서적 및 시사 서적들이 공동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수녀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 교의 강의, 성서 연구의 기회가 빈번히 주어 지므로 작은자매들은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한다.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 공동체에서 사제의 세미나를 받는다. 본원의 경우, 매주 세미나를 갖는다.

매달, 각 수녀마다 하루 피정이 예비되어 있다. 그날 수녀는 모든 외부 활동에서 벗어나 기도와 영적 독서에 온전히 시간을 바침으로써 내적 삶을 새롭게 한다.

매년 강론 피정을 갖는다. 이 피정은 공동체의 평소 생활 범주에서 벗어난다. 8일간의 피정 끝에 각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휴식의 한 주일이 첨가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미사 때의 성가 참석과 저녁 성무일도만이 의무이다. 피정 및 세미나는 다른 수도회 수사나 재속 신부에게 지도받는다.

장상들은 모원에서 강론 피정을 갖는다. 각 지방(혹은 국가)에서 모여 서로 만나는 한 주간을 앞서 며칠간의 학습이 선행된다. 사제의 지도 아래 수도생활, 사도생활의 현 문제점들을 놓고 공동으로 고찰한다. 피정을 마친 후 각자 탐구한 문제들을 공동체에 보고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도회 안에 수액이 돌고 일치는 더욱 강화된다.

삶의 여정

본 수도회에 관심을 둔 어린 소녀라면 수도회 한 곳을 찾아가 단기간 체류하며 작은자매회의 수도생활과 선교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 작은자매와 함께 병자의 집을 방문하고 성무일도, 미사, 공동체 생활에 참여한다.

피정으로 성소를 심화시킨다. 이 피정은 수도회 입회 몇 개월 전에 갖는다. 프랑스의 경우 이 피정은 본원에서 이루어진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또 본인을 위해 지방생들은 피정 기간 동안 의료검진을 받는다. 개인적 결의와 여러 책임에 따른 염려가 조화 있게 결합되어야 하는 작은자매회의 섬세한 소명은 엄격한 양성 기간을 요구한다. 그 기간은 첫 서원이 있기까지 2년 6개월이다.

청원기는 6개월이다. 이 기간은 수도생활에 처음 눈뜨는 단계로서 복음서, 성무일도 연구에 집중되며 이에 초보적인 가사일을 참가함으로써 미래의 작은자매를 사도직에 준비시킨다.

수련기 첫 해 동안에, 영성적이고 교의적인 양성을 통해 수도 봉헌의 의미를 견고히 한다. 이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가르침, 수도생활과 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킨다.

수련기 2년째 되는 해는 프랑스의 경우 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 기간은 수련자들을 노동자 환경 안의 선교활동에 입문시킨다. 수련자들은 매일 병자 집을 방문하고 접촉하며 첫 서원 전까지 작은자매회 삶의 총체를 접촉한다. 이론, 실습 교육으로 각 분야에 관한 입문 과정을 습득한다. 의학, 사회학, 교의학 등의 지식은 몇 해에 걸쳐 계속 과정으로 보충된다.

첫 서원 직후 1년의 교육 및 실습 입문 보충 기간이 이어진다. 이 기간은 꼭 필요한 인문 기초를 심화시키도록 도우며 구체적인 체험 사례를 통해 초보 수녀들의 수도생활, 선교활동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있어 개인적 성장을 촉진시킨다. 이 기간 동안 삶을 토대로 한 신앙 교육을 훈련시켜 점진적으로 책임감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종신서원은 일반서원 6년 후에 이루어진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각 지방(국가)의 작은자매들은 모원에 와서 6개월 지낸다. 이 기간을 수련기간(probation)이라 한다.

기도와 침묵 속에서 그들은 수도회 중심부에서 서로 만나게 되며 수도생활의 공동 이상과 그들 각자의 성소를 견고히 한다. 그들은 가르침의 일치 안에서 가족적, 가톨릭적 정신을 길어 올린다.

증거 사례35)

증거 1

나는 대학입학자격(바칼로레아) 철학 시험이 있기까지 학업을 계속하며 어머니를 활달하게 도와드리면서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훗날 내가 꾸리게 될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곤 했다.

나는 종종 육체적인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고 공부가 끝나면 식민지령이나 시골 오지에 가서 병자들을 돌보며 가장 가난하고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 곁에서 사회사업을 하고 싶었다.

주님께서는 남을 돕는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의 일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전체를 내주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다. 오로지 하느님께 전체적이고 절대적으로 봉헌하는 것만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비극을 보상할 수 있는 길이며, 이 길 이외에는 나는 늘 무언가 부족함을 느낄 것 같았다.

갈등도 있었다. 우리 집에서 나는 장녀이고 우리 가정을 무척 사랑했다. 그리고 나도 한 가정의 배우자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라는 생각들... 그리고 나의 독립된 생활, 수도 생활에 대한 편견들, 어떤 수녀들의 태도로 인해 가졌던 그들에 대한 편견들이 있었다. 내 생의 처음으로 가졌던 봉쇄 피정을 통해 내 생각들이 조금은 정리되었다.

그것은 능동적인 수도회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었다. 현실에 가까우며 가장 불행한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비극을 덜어 주면서도 타인에게 전체적으로 '봉사' 함으로써 하느님에게 절대적인 헌신을 보장할 수 있는 성소가 깊은 수도회이어야 했다.

내가 알고 있는 수도회들 중에서는 나의 이러한 갈망에 답해줄 수 있는 수도회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던 중 누군가 나에게 성모승천작은자매회에 대해 말해주었다. 나는 그 수도회의 성소가 마음에 들었다. 자매회의 수녀님들은 오직 노동자 가정을 돌보며 가정을 꾸려나가고 아픈 엄마들을 간호해 준다. 그 수녀님들은 병자 가정과 관계를 지속시킨다. 그러면서 가장 가난하고 정신적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비록 여러 번의 실패는 있다 해도, 그들을 결코 매정하게 내치는 적이 없고 오히려 환영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 수녀님들은 부유한 사람들과 형편이 풍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서로 알게 해 주어 사람들 간에 자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러 차례 수도회와 접촉을 가진 후 나는 입회를 신청했다.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한다 한들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비록 작은 역할 안에서라도 봉사할 것이며 특히 내가 봉헌된 수녀가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이 세상을 좀더 복되게 할 수 있으며 하느님과 좀더 가까이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유일한 악인 죄, 다른 이들이 범했고 내가 범한 이 죄가 정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구속주 그리스도의 삶에 영원히 결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작은자매

증거 2

나의 청소년 시절,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주님의 첫 부르심을 들었을 때부터, 나는 매번 내 안에서 들려오는 너무나 명백하게 상반되는 소리, 즉 활동적인 삶과 관상 생활, 이것은 정말로 내적인 고통이 아닐 수 없었다.

내가 보기에 내 형제들의 노동과 고통은, 지극히 순수한 마음과 언제나 하느님만을 열렬히 갈망하는 영혼에 의해서만 서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삼과 함께 하는 깊은 내적인 삶은 모든 영혼들을 위한 불타는 사랑 없이는 갈망될 수도, 추구되지도 않을 것만 같았다.

나는 깊은 침묵 속에서, 흔히 아주 단순한 영혼들이 갖는 막연한 갈망 안에서 참뜻을 간파할 수 있도록 은총을 간구했고 또한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의 노동과 고통의 짐을 내가 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은총을 빌었다.

‘위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없다. 성령께서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작은 행동일지라도 밝혀 주심으로써 진리를 드러내셔야만 한다.

주님께 봉헌된 모든 수도회의 삶이 나의 관심을 끌었다. 나의 교육 정도와 활동으로 보아 교육 수도회 입회 준비는 된 것 같았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아주 분명하게, 깊은 사랑의 서원을 봉헌하기를 요구하시는 것 같았다.

우선, 신뢰가 부족해서였는지 나는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고는 하느님 앞에 나를 전적으로 열어 놓지 못하며 또 내 형제들에게도 완전히 봉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했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성부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분께서는, 지극히 소박한 행동들을 통해 끊임없이 당신의 빛을 전파하기 위해서 당신 사도들로부터 전체적인 신뢰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내 영혼 안에,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과 보편적 자비의 생동력 있는 끈으로써 ‘가정 사회’ 들간의 너그러운 이해가 요구된다는 이 강박관념을 심어 놓으신 분 역시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 나에게 보내 주시는 이 두 개의 징표들 사이를 오가면서도 강력한 기도 생활에 대한 열망은 기본 성소로서 남아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내면을 비우고 항상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은총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다. 시골 태생으로 식구들이 결속되어 있었고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살아온 나의 문화는 다른 이들도 누려야 할 장점인 반면에, 공허한 것에 만족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고 또

간혹 다른 이들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몰이해로 기울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자신의 철저한 필요 안에서 내적 청빈은 모든 수녀들과의 결합을 용이하게 해주며 선교사 대식구 안에서 올림을 전해주며 특히,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강화시킨다.

깨달음을 주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선교사는, 기도에 목말라하는 ‘가르멜의 영혼’에 의해 정화되고, 밝힘을 받고, 지탱될 때만 진정으로 모든 형제들 하나 하나의 마음속에 함께 현존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 증거 3

내게 있어서 관상생활은 깊은 탐구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멀리서 경배하는 신비였을 뿐, 관상생활에 들어가는 기회를 한 번도 모색한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수련자가 되어서야 그 근원적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 늘 그래왔듯이 내 자신 스스로가 진력을 다해 애쓰고자 했던 것은 관상생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내가 자라난 곳에서 아는 수도원이라고는 단 한 군데뿐이었다. 비록 그곳의 가르침에 끌리는 바는 적었으나 나는 그곳에 성소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만 해도 수녀가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더욱 큰 빛의 기회가 주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다.

- 선교예의 부름: 푸코회 수녀원의 창설자 수녀님의 세미나는 나에게 영혼 구원에의 부름을 살도록 해주었다.

- 노동자 층의 부름: <뱅상 씨>라는 영화는 나에게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 곁에서 자선행위를 펼치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해주었다.

- 매년 여름 4년 연속 한 달씩 여름방학 지도교사로서 파리 근교의 남학생들 곁에서 지내면서 노동자층의 직업상, 영성상, 종교상의 애로 사항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으며 내가 받은 교육과 내 환경과는 큰 차이가 있기에 노동자 환경 안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 작은자매회 한 수녀님과의 첫 만남. <뱅상 씨> 영화를 보았던 바로 그 해, 나는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목요일 오후를 작은자매회 수녀님 한 분과 어느 병자 가정에서 보낸 적이 있었다. 나에게 많은 기쁨을 준 경험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의 일을 곧 잊었다. 그때의 추억은 훨씬 후에 가서야 생생하게 떠올랐다.

- 보다 심원한 내적 생활에의 부름. 유년대 소녀단장 모임, 보이스카웃 모임, ‘어린이 그리스도인 양성’ 그리고 피정에서 받은 빛은 나의 미흡한 종교심, 내 가정 환경에서 지탱되고 있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 등을 자각하게 해 주었으며 내 개인적인 결단이 있어야만 한 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그 당시 나는 내적인 투쟁을 겪으며 비올렛 거리에 있는 수녀원(작은자매회)에서 첫 서원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참석해 보기로 결심했다(나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갔지만 그것을 걸지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단순함, 작은자매들의 접대, 간단한 연설, 서원식의 전체 분위기, 기쁨, 새 노비스의 빛나는 표정들은 나에게 커다란 예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나는 담담한 자세를 지켰고 나의 입지도 담담하게 유지시켰다. 나는 정보를 더 취하려고 모색하지도 않았으며 지도 신부님을 찾아가 나의 마음을 열어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두세 달이 지난 후에야 지도 신부님을 찾아갔다. 그러면서도 그 신부님이 내가 자라난 곳의 수도원을 추천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척이나 걱정했다. 신부님께 내가 어느 수도원에 들어갔으면 좋겠느냐고 묻자 신부님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 같다. “성모승천작은자매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를 알아보시오.” 신부님의 이 대답은 나의 예감과 꼭 일치했고 나는 내 일생의 가장 큰 기쁨을 맛보았다.

말하자면 그 신부님은 나를 작은자매회로 인도하기 위해 그 이상으로 특별한 무엇을 해주신 것은 없으나 그분의 지극히 신중한 태도와 믿음은 그 무엇보다 더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신부님은 우선 내가 하느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바라셨다. 그리고 우리 영혼 안의 성령의 역할을 무척 강조하셨다. 그러면서 신부님은 나에게 딱 두 가지만을 권하셨다. 즉

- 하루 일과 중에 하느님을 자주 생각할 것
- 매일 미사에 참석하고 성체를 모실 것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온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약혼녀의 마음처럼, 하느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으로” 그저 하느님께 가고 온종일 하느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눔으로써 영혼이 온전히 은총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족한 점이 바로, 이해하지 못할 하느님의 계획 앞에서 순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줄도 알아야 한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저는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가톨릭 활동과 수도생활36)

이 내용은 <노동자 집단> 제111호에 실렸던 연구 논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연구 논문은 예전에 가톨릭 활동 대원으로 활동했던 성모승천 작은자매팀이 그들의 개인적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만의 유일하며 고유한 인생사를 갖는다. 하느님의 은총의 길은 개개인마다 다르므로 가톨릭 활동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수도성소에 영향을 미쳤는지 간파하고자 모색하는 것은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니며, 특히 그로부터 전체의 방향을 끄집어내기란 더욱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 해도 가톨릭 활동으로부터 수도성소까지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몇몇 특성을 집어내고 각자의 가톨릭 활동에 봉헌된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도성소로 이끌었던 몇몇 표지들을 살피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어서 2부에서 수도생활 안에서 가톨릭 활동의 원칙과 방법론에 있어서 앞으로의 모색 방향을 윤곽지어 보려고 한다.

가톨릭 활동 안에서 수도성소의 발전 과정

이미 가톨릭 활동의 단원이었던 처녀들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는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의 이상을 실현하라는 이 위대한 생각이 박혀 있어서 수도성소를 떠올릴 때면 머뭇거리기도 한다.

“솔직히 말해서 가톨릭 활동이 나를 보다 더 큰 영적, 사회적 개방으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또한 망설이게도 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어 왔기에 주님께서는 내가 수도생활을 통해 어떻게 다른 사람들로 부터 완전히 이탈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인지 그 점을 늘 의아해 했다. 그것이 내 성소에 큰 장애가 되었다.”

어느 JOC는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JOC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그들의 대답은 이 한마디였다. 이제 우리를 버리는 거니?”

그러나 가톨릭 활동이 대부분의 활동원들에게 있어서는 보다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 되었다.

“나는 JOC 임원 세미나에 참석하여 진정한 증거자의 의미를 깨달았다. 수도생활이 문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프랑스 JOC로 돌려졌다. 나는 내 책임을 깨달았다. 즉 내 개인적인 인성이 다른 사람들 내적으로 들어가 지나가서는 안 될 일이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셔야 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안에도 역시 비록 숨어 계시나 하느님이 머무르신다는 것이다.”

개개인에게 있어서 깨달음은 개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일치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방법이야 어떻든 가톨릭 활동이 개인적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으며, 타인을 향해 자신을 개방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정과 단순한 도움을 주기 위해 행했던 사랑의 행위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 진정한 염려와 걱정이 된 것이다. “JOC는 타인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었고 내가 속해 있는 세계를 향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었다.”

위와 같은 증언들은 수없이 많다.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도의 만남과 타인의 만남은 함께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 두 차원은 다름지라도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단 하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친 삶은 이웃에게 봉사하도록 헌신된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더군다나 능동적인 수도생활로 귀착될 영혼들 안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처럼 당연한 사실일지라도 우리는 무엇이 점진적으로 온전한 봉헌으로 이끄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JOC에서의 발견은 “나는 하루 24시간 내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는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 바쳐야 한다는 의식을 일깨우며 ‘이원화된 삶’이란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이어서 복음화의 소명은 곧 계약이 된다.

“툭나바퀴 장치 속에 걸려들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백지 수포에 서명을 해야 했다.”

성소 발전 과정을 담고 있는 이 이야기는 뛰어넘어야 할 여러 단계들이 있음을 말해준다.

“JOC 피정 후 나는 행복했고 한 영성 지도자를 찾았다. 그때의 발견은 기쁨과 두려움, 그리스도교의 풍요로움과 엄격함이 교차되는 발견이었다. 나는 나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겁이 났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나를 멀리, 내가 원하지 않는 먼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신뢰와 포기의 덕을 증가시켰다. 나는 현재만을 살려고 노력했으며 나 자신을 잊고 다른 이들에게 더욱 헌신하려고 애썼다. 매일 미사에 참석해서 주님께 내 사랑을 고백했고 마치 그 모든 책임이 내게 있는 것처럼 나를 에워싼, 내 가슴을 옥죄는 그 고통을 파테나(성반) 위에 바쳤다. 그러면서도 내게는 더 해야 한다는, 나를 더욱더 바쳐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고 급기야 어느 날인가 만일 내가 일관성 있기를 원하고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면 수도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며 내 단 하나의 사랑에 대한 최상의 사랑의 응답이라는 것을 강하게 깨닫게 된 것이다.”

가톨릭 활동이 수도성소로 이끈다면 그것은 가톨릭 활동 중에 바치는 기도에서 비롯되는 힘이 작용한 것이다.

“다른 이들이 지고 있는 걱정의 무게가 어찌나 무거웠던지 나의 어려움은 그들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해 방향을 바꾸었다.”

“내가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분의 미사를 생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기도와 희생이 없이는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없다... 나는 아주 신선한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고 다른 이들을 지탱해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며 내가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들을

나 자신도 생활 안에서 실행했다.”

활동 중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도 자체가 주님께 온전히 봉헌하려는 자세를 영혼 안에 심어 놓는다.

“주 예수님, 저희에게 당신을 통해 사는 법을, 당신처럼 생각하는 법을, 당신을 통해 행동하는 법을, 당신을 위해 저희의 노고와 저희의 시간과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는 당신께 저희의 젊음을 봉헌하러 왔나이다. 저희 마음 안에 당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하게 해주십시오.”

봉헌된 영혼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느님께 온전히 속해 있는 영혼이며 하느님께 온전히 유순한 영혼을 말한다. 이처럼 가톨릭 활동은 주님의 요구에 응답하도록 점진적으로 내적 봉헌으로 이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수도생활 안에서 전체적인 봉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날이 오면 영혼은 봉헌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외적 편견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들, 본성의 저항과 환경에서 비롯되는 애로 사항을 빌미로 항변하는 이유들이 덧붙여진들, 이제 그런 것들이 무슨 상관이라!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작용하시도록 맡기는 법을 배웠으니 그분의 은총이 만사 위에 승리를 거두실 것이고 그리하여 베드로 성인처럼 그분은 영혼을 “원치 않았던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과연, 영혼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가톨릭 활동이 요구하는 바를 그 끝까지 밀고 나가다 보니 수도생활에 봉착하게 되었다.”

수도생활 안에서 가톨릭 활동의 발전 과정

가톨릭 활동 대원들은 관대함과 이상과 활달한 생동력으로 충만하여 수도원에 들어온다. 헌신과 타인에 대한 의식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들은 양성 과정 이전에 벌써 복음을 익혀 알고 있으며 온 생애 동안 기도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수도회에 입회하여 발견하게 될 더 유익한 점은 무엇일까?

분명, 다른 일반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수도생활은 대단한 발견이다.

한 JOC회원의 말을 들어보자.

“청원기 시절 때 나는 심도 있는 성서 연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나의 부족한 점들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그리스도교에 대해 무지할 정도로 지식이 없었고, 열정이 식고 난관과 사기 저하, 실패를 겪을 때 교리로써 뒷받침해 주는 이가 없었으므로 우리는 쉽게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갖추지 못했고 그 누구도 우리 가운데 진정 살아있는 자가 없었으므로 우리는 매달릴 곳이 없었다.”

막 입회한 수녀는 수도생활이 그의 활동 대원 시절의 연속이며 한층 더 꽃을 피우는 것임을 깊이 절감한다. 그가 이전에 받은 교육은 여전히 유효하며 수도생활은 그것을 한층 더 확장시킨다. 가톨릭 활동이 비록 전 세대들이 성교회의 영원한 보물의 똑같은 부분에 역점을 두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에게 충만한 기쁨을 안겨 준 가치들은 공동체 생활 안에서 다시 맛보게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유한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

성교회에 대한 인식, 협력 정신, 책임감 있는 습관, 이런 것들은 젊은 활동 대원들의 사고 방식을 가장 잘 특징 짓는 요소들이다.

## 성교회의 의미

한 JOC는 이렇게 회고했다:

“내가 가톨릭 활동에서 받은 큰 재산은 ‘신비체’의 발견이었으며 그 이후로 신비체를 완성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관심이었다… 가톨릭 활동은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성교회의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수도회에 입회한 가톨릭 활동 대원은 “주변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식구, 시민, 국민의 일에 열려 있으며 바로 그 일들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애쓰는” 습관이 들었으므로 자신의 ‘사소한 문제들’에 갇혀 있는 일이 다른 이들에 비해 훨씬 적으며, 모든 근심 가운데서도 하느님께서 열어 주시리라는 마음을 보존할 줄 안다.

제반 사건들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의 활동이 작용한다는 이러한 의식은 수도원들 안에서도 존재하는 ‘이원화된 삶’이라는 유혹에 맞서 싸우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 의식은 생활 속의 모든 요소 안에 복음 정신을 투여하는 특은으로 남을 것이다. 활동 대원의 경험을 지닌 수녀는 그저 ‘믿음의 활동에 충실하게’ 머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그리스도교를 삶의 의무로써, 모든 상황 안에서 그리스도에 맞갖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염려를 지닌다. 가톨릭 활동 안에서 받은 교육은 그를 더욱 현실을 자각하도록 하여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할 것이다. 그는 기도 생활 안에서 자신을 심화시키며 활동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성부만을 오로지 찬미하신 그리스도와의 한층 더 깊은 일치를 위한 기도를 지향한다.

가톨릭 활동 대원은 ‘성교회’의 사람임에 자부심을 가졌었고, 자신이 받은 세례와 세례 때 맹세의 위대함을 재발견하였기에 가톨릭 교계의 신뢰를 받아 사도직에 참여하도록 ‘위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가톨릭 활동 시절 그에게 ‘사도직 위임’만이 주어졌다면 이제 그에게는 ‘기도 위임’도 주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수도회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성교회 안에서의 소속감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음을 깊이 느끼며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 협력 정신

한 JOC는 이렇게 적었다.

“활동 대원이 같은 어려움을 나누고 같은 목적을 위해 믿음으로 투쟁하기 위해서는 여럿이 모여야 할 필요를 느끼듯이, 또한 협력함으로써 얻는 도움과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듯이, 나는 수도생활 안에서 공동체 삶의 모든 풍요로움을 발견했다.”

활동 대원으로 지냈던 수녀들은 공동체가 부여하는 공동 증거의 중요성과 가치를 그 누구보다 더 절감한다.

“나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활동하는 것을 마음 아파했다. 왜냐하면 ‘모씨는 팬찮은 사람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식으로 그 둘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지어지지 않는 것이다. 믿음의 공동 증거가 없는 까닭이다. 물론 수도 공동체는 공동체의 특성이 그러하기는 하지만 그 점에 있어서 더 많은 이점과 성숙된 책임의식을 발견할 것이다…”

공동체 정신으로 변모될 이 협력 정신은 공동체 정신이 요구하는 총체적 의미와 자기 희생을 부여해 줄 것이다.



“자신의 이익보다 전체의 이익을 더 추구하라”, 이것이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가르치신 규율이다. 가톨릭 활동 대원은 이미 이 가르침을 살 준비가 되어 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인 환상이나 이익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수도자의 순명은 전체적인 참여 안에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모든 사고 활동을 정화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는 것일 뿐이다.”

협력 정신은 공동체 정신을 준비시키고 아울러 수도자 순명의 심오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거기에는 책임 의식 또한 공헌하는 바가 크다.

## 책임 의식

“처음에는 자발성이나 책임감을 갖는 습관이 수도자 순명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도 생활 3년을 보낸 지금은 그것이 오히려 훌륭한 준비 작업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가톨릭 활동은 반성하게 하고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며 대인 관계 속에서 입지를 취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서 성인다운 태도를 갖추게 해준다. 또한 어린아이 같은 쉬운 복종에 자신을 내맡기는 일이 없이, 여장부답게, 전체적으로, 그러면서도 유연한 수도자 순명에 또한 믿음으로 조명되고 진정한 자기 희생 정신으로 뒷받침되는 수도자 순명에 준비시킨다. 이러한 균형은 작은 것을 지키는 성실성과 책임에 필요한 자유, 이 둘 사이에서 오랜 시간 결코 단정짓지 않으며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는 것의 결과이다.

가톨릭 활동에서 각인된 모든 생각들과 힘으로부터 수도생활 안에서 가능하고 또 체험된 기쁨들을 간추려 본다면, “가톨릭 활동 시절과 또 가톨릭 활동으로 인해 입회 동기가 된 수도생활,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단절된 틈이 없다. 오히려 어떠한 일치를 발견했고, 혹은 적어도 실질적인 준비 작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가톨릭 활동 대원이 더욱 심화된 것뿐이다.”

가톨릭 활동은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교의 가장 고유한 샘에서 수액을 공급받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깊이 각인된 하나의 교육책이라 할 수 있다.

하느님께서로부터 오며, 성교회의 바람대로 또 성교회의 용기에 힘입어 그는 수도자의 기본 방침들을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하느님께 온전히 속하며 하느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에게 사심 없이 봉사하는 것이다...

가톨릭 활동이 표명하는 이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들을 위한 사랑’으로 개인의 모든 복지를 포기하는 관대함을 고무시키는 것이다. 인간적인 성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더 선호하라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이상이 침묵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물며 인간적인 기쁨을 찾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만이 삶을 충만케 하실 수 있음을 존재로써 보여주는 수녀들의 희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 1) 파리의방전교회 소속인 배세영 신부님께서 1994년에 번역하여 주셨다. 원자료는 포항 예수성심시녀회에 소장되어 있다.
- 2) 이 글은 파리의방전교회에서 기록한 故 성재덕 신부님에 대한 추도문을 번역한 것이다.
- 3) 파리의방전교회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파리의 거리 이름이다.
- 4) 프랑스 파리의방전교회 본부 문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잡지와 문서들에서 성재덕 신부에 관한 글만을

뽑아 번역하여 편집한 글이다.

5) 구강염과 설사가 따르는 만성 열대병을 말한다.

6) <에피파니> 제39호, 1969년에 “어느 때 특히 자신이 선교사임을 느끼게 되는가?” 라는 주제로 각국의 선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 같으며, 특히 이 설문에 “그룹 작업”으로 응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짐작된다.

7) 원문주: 생제 신부는 그의 겸손함으로, 자신이 1945년경에 이 “성가회”를 창설했으며 1948년부터 이 수녀회가 자율적으로 성장하도록 하였음을 위의 글에서 밝히지 않았다. 생제 신부는 그로부터 22년 후에 수녀회의 요청으로 지도 신부로 그의 수녀들 곁으로 돌아왔다.

8) 성 신부님께서 1950년 6·25사변 때 부산으로 피난을 떠나 다시 논산에 오시어 생활하시기까지의 일기이다. 이 전시일기의 일부분은 서한집 1집(1993)에도 수록되어 있다.

9) 이하 ‘...(미판독)’은 원문이 찢겨나갔거나 알아볼 수 없어 판독이 불가능한 부분을 말한다.

10) “쓸 말이 없다”라는 뜻의 약자이다.

11) 이는 ‘성재덕 신부’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2001년에 김 임마꼴라따 수녀와 연출자 박정준님이 인터뷰한 내용이다.

12) 논산 부창동 본당 신자.

13) 논산 대건 고등학교 국사 교사.

14) 논산 부창동 본당 신자.

15) 성광원 신자.

16) 부창동 본당 신자.

17) 2001년 당시 100세로 은퇴하여 양로원에 기거하고 계신데, 전에 에댕(Hesdin) 본당 신부였다.

18) 성 신부님의 대자, 생-오메르 성당에서 인터뷰 하였다.

19) 성 신부님 아버지의 고향이며 성 신부님이 다니셨던 생 베르땡 중고등학교가 있는 도시이다.

20) 성 신부님의 고향이다. 현재 성 신부님의 부모님이 이곳 에댕 공동묘지에 안장되어 계시다.

21) 리제뜨는 마리 끌레르를 위해 간호 공부를 스스로 선택하고 동생을 돌보기 위해 동정녀가 되었다.

22) 에댕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시 마을 이름이다.

23) 이 글은 2001년 봄, 성재덕 신부 비디오 제작을 위해 프랑스에 다녀와서 쓴 것이다.

24) 성 신부님은 논산에서 과중한 사목으로 심각한 허리병을 얻으셨다. 이에 병후로 1962년 2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모국인 프랑스에 있는 성직자 병원에서 치료와 휴양을 하셨다. 1964년 6월 한국에 귀국하시어 홍산본당 주임 신부로 부임하셨다.

25) 본 책자에 다른 글씨체로 표기되었다.

26) 김 보나벤투라 수녀님의 수도명 이전의 본명이다. 1959년 9월 9일 벨기에에 유학, 1963년 5월 13일 귀국하였다.

27) 이것이 본 소책자이다.

28) 성 신부님은 “아습시옹(성모승천) 수도원의 목적, 역사, 정신의 간단한 설명 뼈라”라고 적어 놓으셨다.

29) 1953년 9월 8일 반포.

30) 원본에 성 신부님께서 직접 한글로 “수도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성가 수녀들이 일할 것인가?”라고 토를 달아놓으셨다.

31) 원문주: 성모승천작은자매회의 탄생, 예수의 마리 프랑수아즈 수녀가 UNCAHS 학기 세미나 중에서 발췌한 내용.

32) 원본에 성 신부님께서 직접 한글로 “성가 수녀들의 공동생활”라고 토를 달아 놓으셨다.

33) 원본에 성 신부님께서 직접 한글로 “성교 안에 성가 수녀의 자리가 어디 있는가?”라고 토를 달아 놓으셨다.

34) 원본에 성 신부님께서 직접 한글로 “성가 수녀 하루 할 것”이라고 토를 달아놓으셨다.

35) 원본에 성 신부님께서 직접 한글로 “여러 증명 - 어떻게, 무엇 때문에 내가 성가 수녀 되었는데

가?” 라고 토를 달아 놓으셨다.

36) 원본에 성 신부님께서 직접 한글로 “가톨릭 운동과 수녀 생활” 라고 토를 달아놓으셨다.췌